

기후철학:철학입문2022



design by @nem-jakka 

2022년 철학입문 지도: 장미성 교수

표지 디자인: 남윤호 학생

기후철학: 철학입문 2022

우리는 지구에 새겨진 인류의 거대한 흔적으로 인해 고통과 죽음으로 변모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이 자연과의 힘겨루기에서 승리하여 지구의 기능을 바꿀 정도로 강력해진 존재인가, 아니면 기후변화는 유약한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는 신의 영역이나 지질학적 힘의 영역일까? 사실 기후 위기가말로, 인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요구하며, 인류와 자연을 구원할 변화를 만들어 낼 새로운 실천철학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봄학기 <철학입문>의 한 분과로 기후철학을 공부하면서, 22학번 새내기들은 우리가 진정 인류세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인간은 신과 동물 사이에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인간, 동물, 종이컵은 다 같은 flat한 존재론적 위상을 갖는지 고민했다. 또한 하이데거의 존재론으로부터, 화이트헤드의 사변적 실재론,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모튼의 초객체, 헤러웨이의 신유물론 등을 공부하면서, 철학자들의 존재론과 인식론을 토대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서의 인간의 존재와, 이를 둘러싼 지구시스템의 위기, 그리고 이를 해결할 새로운 정치와 윤리의 출현을 고대하며 지속가능한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준비했다.

기후 위기는 문화의 위기이자 과학과 상상력의 위기이며,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닌 정치도, 과학도, 문학도, 철학도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수많은 환경주의자들의 투쟁, 과학자들의 경고와 기업인들의 ESG 경영혁신, 그리고 프란테스코 교황의 종교적 메시지까지, 기후위기의 문제는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핵심 이슈이며 모든 학문분야로 뻗어 있다. 이에 기후철학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탐구를 통해, 인류세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다른 학문들과의 연결선상에서 함께 해결책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 철학이 기후 위기 시대에 나침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송실철학 새내기 철학도들은 이를 토대로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의 변화를 넘어, 위기의 순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며,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새로운 설득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갈 미래 송실 철학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송실대 철학과 장미성교수
2022년 8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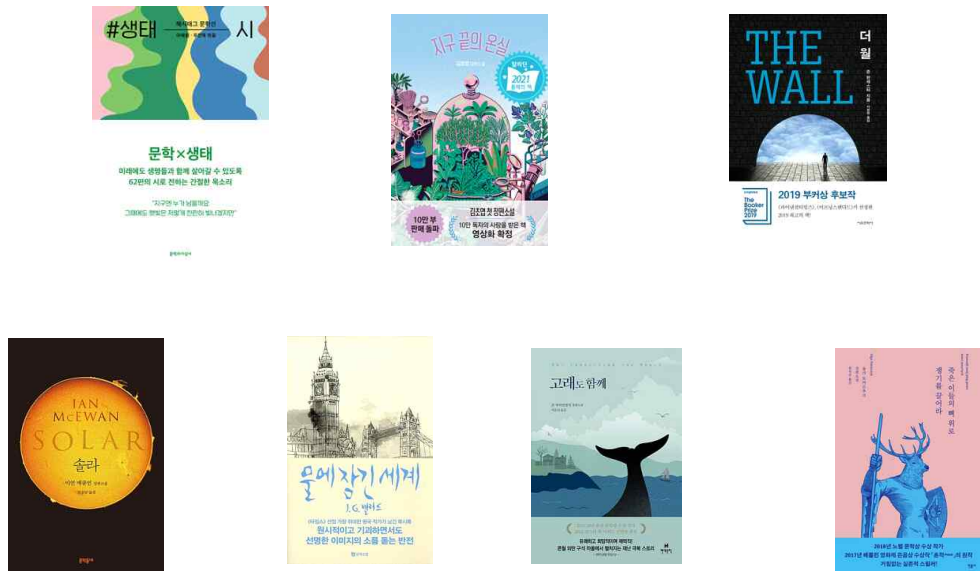
<함께 논의했던 철학 작품들>

1. 클라이브 해밀턴, 정서진 역, 『인류세』, 이상북스, 2018.
2. 티모시 모튼, 『Hyperobjects』, 자이언트북스, 2021.
3. 브뤼노 라투르, 박범순 역,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이음, 2021
4. 도나 헤러웨이,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 하기』, 마농지, 2021
5. 아미타브 고시, 김홍욱 역, 『대혼란의 시대』, 에코리브르, 2021.



<함께 읽으며 토론한 문학 작품들>

1. 이혜원, 우찬제 엮음, 해시태그 문학선, 『#생태_시』, 문학과지성사, 2021.
2. 김초엽, 『지구 끝의 온실』, 자이언트북스, 2021.
3. 존 란체스터, 서현정 역, 『더 월』, 서울문화사, 2019.
4. J. C. 벨러드, 공보경 역, 『물에 잠긴 세계』, 문학수첩, 2012.
5. 이언 매큐언, 민승남 역, 『솔라』, 문학동네, 2018.
6. 존 아이언머거, 이은선 역, 『고래도 함께』, 현대문학, 2016.
7. 올라 토카르추크, 최성은 역,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민음사, 2020.



목 차

1. 생태시민 (『#생태시』를 읽고)

0) 들어가며	7
1) 오늘의 우리는 어제와 달리 '자연'을 보아야 한다 (이은기)	10
2) 나를 넘어 너에게 너를 넘어 자연에게 (정서빈)	12
3) 자연이라는 거울과의 조우 (이의경)	14
4) 인류세, 빛을 갠 빛을 가진 행위자들 (나형은)	16
5) 창작시 (이은기)	18

2. 네가 나를 비취웠을 때 비로소 나는 빛이 되었다 (『#생태시』를 읽고)

0) 창작시: 네가 나를 비취웠을 때 비로소 나는 빛이 되었다 (정운서)	21
1) 온난화를 일으킨 인간 행위에 대한 고발, 생태 시 (최윤우)	22
2) 이기심이 밥 먹여 준다 (정운서)	24
3) 한강의 기적, 한강의 비극 (김우석)	27
4) 인간중심주의와 환경 보존의 관계 - 패스 모어의 관점에서 (전민하)	29

3.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지구 끝의 온실』을 읽고)

1) 기술 철학에서 기후 철학으로 (김예린)	33
2) 오염된 대기에 대한 역사적 분석 (명재용)	34
3) 인간과 자연의 관계, 관계 속의 갈등 기후 문제 (최진혁)	35
4) 우리의 모스바나는 무엇일까? (이예원)	37

4. 인간이라는 식물 (『더 월』을 읽고)

1) 삶의 장소로서의 환경 (방한결)	40
2) 선택된 결말 (최동헌)	42
3) 책임의 공백 (임예인)	44
4) 인간이라는 식물 (강산)	46

5. 물의 불시착 (『물에 잠긴 세계』를 읽고)

0) 들어가며	50
1) 개인의 실존과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 (이채원)	51
2) 물에 잠긴 세계의 위버멘쉬? (유은빈)	53
3) 대지에 대한 인간의 오만함 (이하준)	55
4) 물에 잠길 것인가, 헤엄쳐 나갈 것인가 (이나연)	57

6. 패션(fashion) 환경 패션(passion) 자본 (『솔라』를 읽고)	
1) 문학 - 패션(fashion) 환경보호, 패션(passion) 자본주의 (박영채)	60
2) 정치 - 솔라와 정치 (문정원)	62
3) 철학 - 인간의 환경의식에 대한 지각변동 (조현성)	64
7. 창백한 푸른 점 (『고래도 함께』를 읽고)	
0) 들어가며	67
1) 위험사회 그 반증의 이야기 (서명원)	68
2) 개체가 이루는 세계 (서순오)	69
3)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발견된 이타주의 (박서진)	71
4) 미지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 (이윤서)	73
8. 어두운 들판에는 더 이상 노는 아이 없네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를 읽고)	
1) 한 티끌의 먼지 속에도 전 우주가 들어가 있다 - 생태주의적 입장에서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오윤상)	76
2) 자연스러운 자연의 권리-생태주의적 입장에서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유지우)	79
3) 인간 중심주의에서의 도약 - 신인간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김지민)	81
4) 네 뺨속까지 열게 하는 사슬을 이제는 풀어라 - 신인간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하지원)	83
9. 시체 앞의 투쟁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를 읽고)	
1) 신인간중심주의적 통제 (김나우)	86
2) 하나의 지구,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서는 (김유빈)	88
3) 복수의 대리인: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이유: 분노의 활극,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를 읽고 (황이진)	90
4) 복잡성의 형태 (장서준)	92
10. 교활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질문자는 결코 정답을 알지 못하리니	
1)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진짜 이유, 이성 (이종현)	95
2) 흠벌레는 쟁기를 용서한다 (남운호)	97
3) 필멸의 운명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대지에 의해 삼켜지리라 (우영서)	99

#생태 시_민

- 변화, 조화, 상생을 품은 #생태_시를 읽고 -

“이 글을 읽는 미래의 모든 생태뉴티즌들에게 바칩니다”

0. 들어가며

1) 과학이 곧 철학이다

왜 과학을 철학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김기봉(경기대 사학과)교수는 '과학기술 시대에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로 '인류의 행복'을 꼽았다. 그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연 인간이 행복해질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도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해 근대 과학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서 <직업으로서의 학문>에서 '과학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과학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답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과학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몇 개의 원소와 특정한 결합체계로 구성된 생물유기체' 같은 식이다. 하지만 과학은 결국 '사실진술'만을 할 수 있지 '당위진술'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일련의 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과학은 필연적으로 철학에 의존하여야 한다. 기후변화라는 과학의 문제를 철학으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학기술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만드는 단계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철학에 맡겨야 한다. 과학의 가치는 철학을 통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다.

2) 동서양 사고방식의 차이

서양의 사고방식의 특징은 '범주화', '규칙성', '형식논리'라고 말할 수 있다. 서양 문명의 맹아인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러한 세 특성이 잘 드러난다. 탈레스부터 시작되는 자연철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그들이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연을 대상으로 두어 탐구하는 것에 집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만물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규칙성'을 수립하고 싶어한 사람들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3단논법이라는 '형식논리'와 함께 '범주화'를 그 누구보다 중시한 철학자이기도 하였다.

동양의 사고방식의 주요한 키워드는 '전체 맥락', '조화' 정도로 나타내볼 수 있다. 노장 사상은 이를 잘 드러내는 하나의 예시이다. 도가의 '무위자연'은 조화와 전체 맥락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슬로건이다. 동양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세계와 개별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항상 타 존재와 함께 존재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 이해하였다. 이는 불교의 '업'사상이나 '윤회' 개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양과 서양은 시를 이해하는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공자는 '시경에 나오는 시 300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어진다.'라고 말하며 시의 교육적, 교화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로써 일으키고 예로 세우고 악으로 완성한다'라는 말에서는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를 읽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시의 교훈적 측면 또한 강조했음을 볼 수 있다. 동양에서는 시의 사회적 효용에 집중해 왔던 것이다. 이는 시를 현실에 대한 모방으로 본 플라톤의 견해와는 대비된다. 그는 예술은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계의 것을 또다시 모방한 셈이라고 말하며, 예술은 이데아의 인식을 어렵게 하므로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결론까지 내렸다.

이어지는 논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하였으니, 바로 다음 장에서 논

의를 이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3) 생태시란 무엇인가

흔히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 생태시 아닌가?’라고 착각하고는 하는데, 이는 자연시와 생태시를 구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이다. 빌헬름 레만 (Wilhelm Lehmann) 등으로 대표되는 마술적 자연시파(自然詩派)의 시가 바로 자연시인데, 자연시는 사회 바깥에 있는 세계로서의 자연, 즉 ‘객체로서의 자연’을 묘사한다. 이렇게 자연을 대상화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서양적 ‘범주화’ 인식과 맥락상 유사하다. 이들은 ‘인간에 의해 해석된 자연’을 제시한다.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한 이들은 자연을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하여 심미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 생태시는 동양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생태시라는 용어를 만든 인물은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로, 그는 1866년 “생태학 Ökologie”의 개념과 ‘시 Lyrik’을 결합하여 “생태시”라는 명칭을 만들어 내었다. 헤켈의 견해에 따르면 “생태학”이란 특정한 유기체와 주변 환경 간의 연관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는 물, 공기, 흙과 동식물 간의 상호 작용을 연구함으로써 생물들 간의 연관 시스템을 밝혀낸다. 생태학에서 파생된 생태 시는 생태학의 특징을 이어받아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자연, 지구 시스템 안 존재로서의 인간과 자연을 보여준다. 생태시는 기존의 자연시와 다르게 ‘인간에 의해 해석된 비현실적 자연’이 아닌 ‘현실적 자연’을 묘사한다. 생태시의 언어는 자연시와 달리 매우 간명하고 실제적인 것이 특징인데, 이를 통해 생태시는 현실을 직관적으로 감각하고자 한다.

또한 생태시는 자연과 정치, 자연과 사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묘사하는 자연시의 전통적 표현방식을 부정하고 극복한다. 생태시는 자연을 인간과 함께 사회를 형성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생태시에는 앞장에서 언급한, ‘조화와 전체 맥락의 이해’를 중시한 동양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류세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동양적 가치관이다. 자연을 단순히 하나의 감상 대상, 인간과 분리된 객체로 보는 서양식 사고는 자연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대한 힘을 무시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축소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양의 생태시, 한국의 생태시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였고, 따라서 자연시보다는 생태시 중심으로, 서양적 가치관보다는 동양적 가치관을 중점에 둔 탐구를 이어갈 것이다.

4) 왜 시를 읽어야 하는가

우리는 기후문제에 대해 왜 시로 접근해야 하는가? 문학이 가지는 독자적인 특징은 ‘상상력’에 있다. 문학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를 쉽고 강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문학의 장르들 중 ‘시’는 문학적 상상력을 최대로 끌어낸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의 시대에 그 가치가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태시는 생태위기로 인한 인류의 멸망과 지구의 종말을 묵시록적인 어법을 통해 경고함으로써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과 정신적 저항력을 일깨운다.

시는 ‘낮설게 하기’라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한다. 이는 대상을 일상적 관념에 아닌, 시인의 목적의식에 맞게 형성된 관념을 통해 묘사하는 기법으로, 대상을 다른 시각에서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사고 전환을 유도한다. 대중적인 예시로는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을 들 수 있다. 계장 속에서 새끼들을 끝까지 품으려는 어미 계의 모습은 독자

로 하여금 기존의 인식을 벗어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해 준다.

보통 낯설게 하기는 현실적인 것을 비현실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용하지만, 비현실적인 대상을 현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진행되기도 한다. 생태시의 경우에는 후자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자연시가 묘사하던 비현실적 자연의 모습이 보편적 자연관이 된 탓에, 자연을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오히려 ‘낯선’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생태시의 시인들은 독자들의 시각을 충격적인 생태파괴의 현장으로 돌려놓았다. 그들의 시에 등장하는 자연은 피해자이자 인간 폭력성의 증언자이다. 자연과 사회의 연관 시스템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자연시의 비현실적 자연관과 뚜렷이 구분되는 생태시만의 특징이다. 생태시인들은 자연인식과 사회의식을 동시에 다룬다. 시인들은 황폐해가는 자연의 실상(자연인식)이 사회의 부조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사회인식)를 보여준다. 자연을 오염시키는 원인들이 사회 안에 내재하고 있음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곧 생태시에서 나타나는 시인의 소명의식인 것이다.

이러한 생태 시인들의 소명의식은 사회적 움직임을 촉발하기도 한다. 일찍이 레비스트로스(Levi Strauss)는 “진보는 문화적 기형(奇形)과 추악함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그는 인류의 이상적 공간을 신석기 시대의 사회구조라 주장하며, 이러한 구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의 말처럼, 이상적인 형태의 사회구조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생태시의 시인들은 특유의 상상력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희망의 추구를 소명으로 삼는다.

생태시의 시인들은 자연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강조하고, 타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세계에 대한 철저한 자기인식을 보유했다(앞서 언급한 자연인식과 사회인식 등). 생태시는 이러한 사회의식을 독자에게 각성시키고 사회개혁의 동기를 유발하려는 교육적 의도 혹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다. 독자들은 그 시를 읽음으로써 현실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서 설명한 동양의 효용론적 시관과 유사한 점이 있다. 오늘날 생태시는 민중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사실을 깨우치고, 그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21세기의 ‘군자’와 같은 시민의 유형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한 새로운 시민의 유형에 대해, 다음 장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

5) 시민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맞는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시대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속한 대응’이다. 해밀턴이 <인류세>에서 인용하였듯, ‘앞으로의 몇 십 년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전체 인류 문명의 역사보다 더 오래 이어질, 파국으로 치달을 광범위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할 유일한 기회’¹⁾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기후변화의 문제보다는 눈앞의 사익에 관심이 많은 듯 보인다. 이대로라면 인류는 ‘파국의 기후변화’를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는 더 이상 ‘정치인, 혹은 특별한 위치의 누군가가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다. 의식화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서서 문제의 해결에 가담해야 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시민은 ‘사회/정치체제와 상호작용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존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이 새로운 시민을 ‘생태뉴티즌’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해 두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의를 본론을 걸쳐 전개하도록 하겠다.

1) 클라이브 해밀턴, 「인류세」, 19p.

1. 오늘의 우리는 어제와 달리 '자연'을 보아야 한다

이은기

인류가 맞이할 기후변화의 위기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본 적 있는가? 어떤 이는 언젠가 갑자기 찾아올 위기를 상상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아무도 모르게 다가올 위기를 상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낙관적인 상상이다. 인류의 위기는 '언젠가 다가올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위기 속에 있다. 해밀턴은 <인류세>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1945년부터 인간이 이미 '인류세'라는 위기 속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인류세가 시작된 이후, 인류는 자신들이 가진 기술력으로 자연을 소비하여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다. 보고 싶은 것만 보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던, 문명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문제들을 보지 못한 채로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단으로서만 이용되던 자연이 담겨있는 과거의 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는 것은 환경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생태_시>는 시를 통해 이러한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1부와 4부는 이 책의 6가지 파트를 두 주제로 나누었을 때(인류가 처한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갈 길) 각 주제를 시작하는 부분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1부는 인간이 발전시킨 문명의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 중 <물증物證>은 현재 인간이 자연을 소비하는 태도를 진화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삶에 안주하다가 살 곳을 잃어버린 아프리카 페어의 삶과 비교하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는 시만이 가지는 감정 전달력을 살려 우리에게 현재 인류가 마주한 현실에 대한 더 큰 불안감을 제공한다. 4부는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자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제시하는데, 특히 <틈>은 태풍이나 바다와 같이 멀리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바람을 문틈에서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며 기존의 인간중심주의가 가지고 있던 이원론적 자연관을 부정하고, 인간과 자연이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부와 4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는 기존의 이원론적 자연관에서 탈피하여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행위자로서의 인간이 자연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포스트휴머니즘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은 1945년 이전, 즉 인류세가 시작되기 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힘은 그동안 인류가 초래한 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는 신인간중심주의와 칸트의 논지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신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충분히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지만, 여전히 자연 과정의 참여자임을 주장한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과 인간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시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신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강력한 힘은 곧 지금까지 인간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²⁾

대표적인 인간중심주의 사상가 중 하나인 칸트 또한 인간이 자연에 대해 가지는 의무를 강조한다. 물론 칸트는 인간중심주의 사상가이기에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며, 인간이 자연을 수

2) 클라이브 해밀턴, 『인류세』, 89-90

단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칸트가 말하는 자연의 주인이란, 자연을 그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목적론적 인간중심주의에서 말하는 전제자로서의 주인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칸트가 제시한 도덕적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칸트에게 인간이란 자연의 모든 존재 중 유일하게 자연의 목적체계를 이해하고,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사고를 거쳐 자연의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칸트는 인간을 자연의 도덕적 주체라는 의미로서 자연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이로부터 인간이 자연에 대해 갖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특별한 의무라고 주장한다.³⁾ 이처럼 신인간중심주의와 칸트가 서로 제시하는 힘의 종류는 다르지만, 두 사상은 모두 인간이 자연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그 힘을 이유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한다.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인류가 가진 힘이 그저 인간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주장들을 통해 이 글의 초반부터 강조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자연에 대해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인류는 그 힘을 통해 자연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취급해왔으나, 지금부터의 인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인류가 이미 인류세 속에 있음을 인지하고 자연을 인간이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는 그 자체로 환경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구체적 해결책 없이 현재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그저 절망적으로 보이기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4부의 <고래의 꿈>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한다 고래는 사라져버렸어/그런 커다란 꿈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아/하지만 나는 바다의 목로에 앉아 여전히 고래의 이야길 듣는다'. 우리가 만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래가 몇 마리라도 남아있길 희망하며, 오늘 우리의 눈에 비친 친구, 자연에게 지금껏 우리가 일으킨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고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3) 김양현, 「칸트의 목적론적 자연관에 나타난 인간중심주의=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을 중심으로」, 哲學, Vol.55 No-[1998], 한국철학회, 1998, 97-120

2. 나를 넘어 너에게 너를 넘어 자연에게

정서빈

<#생태 시> 2장의 제목은 훼손된 자연이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장의 관심사는 인간보다 자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구성하는 시 또한 포스트휴머니즘적인 주제가 많다. 2장의 시 대다수는 우리가 자연물에 공감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연민, 정의감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회의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굳이 자연이란 대상에 공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자연에 공감을 하는 것이 어떤 득이 된다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우리를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수많은 윤리학자들이 내놓은 답으로는 보편적 도덕 격률, 자연법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며, 감정 또한 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특히 흄은 공감을 통해 개인적인 느낌이 보편적인 도덕판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⁴⁾ 우리가 느끼는 개인적인 쾌, 고의 감정을 타인도 느낄 것이라고 가정하고, 타인의 느낌을 내 감정으로 바꾸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보편적 도덕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럼 인간이 아닌 대상에게는 어떨까?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공감이라면 어떻게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포스트휴머니즘의 장점이 드러난다. 우리가 ‘오직 인간!’을 넘어서 동물, 자연에게 공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도덕적 행위로 이어진다. 포스트 휴머니즘적 문학은 이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예시로 다음의 포스트 휴머니즘적 시를 몇편 살펴보자.

공광규 시인의 <놀란 강>을 보자. 이 시는 의인법이라는 장치를 통해 우리가 ‘강’이란 객체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쇠붙이와 기계 소리에 놀라 파랗게 질린 강’에서는 귀여운 강이 인간에 의해 상처를 입고 슬퍼하는 이미지가 연상되고, 자연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촉구한다.⁵⁾

이번엔 <들판이 적막하다>를 보자. 떠나 버린 이에 관한 시는 복합적인 감정을 떠올리게 한다. 떠난 이를 향해서는 원망이나, 미움과 아련함을 느낄 수 있고, 떠나 보내는 이에게서는 죄책감이나, 외로움, 서글픔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⁶⁾ 정현종 시인은 <들판이 적막하다>에서 떠나 버린 이에 대한 부재의 감정을 노래하였다. 농사도 잘 되고 날씨도 좋아서 좋은 건 다 있는데 메뚜기만 없다는 내용으로 전개함으로써 불길하고 적막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다 있는데 너만 없어’의 주제는 대중가요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주제이다. 정현종 시인은 ‘너’란 객체에 메뚜기를 대입해서 우리가 환경문제에 공감하고 궁극적으로 불길함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처럼 포스트휴머니즘적 문학작품은 공감이라는 장치를 통해 우리에게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가져온다는 포기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니, 포스트 휴머니즘이 여타의 사상들과 마찰을 빚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밀턴은 포스트휴머니즘을 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다.⁷⁾ 신인간중심주의로의 집중을 방해하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신인간중심주의와 포스트 휴머니즘 모두 각각의 가치가 있지만 양자를 동시에 수용한다면 의미상 대립한다는 문제가 있다. 동양적 사고와 유교사상, 실존주의 사상으로 말

4) 양선이, 「허치슨, 흄,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나타난 공감의 역할과 도덕의 규범성」, 10p

5) 이해원, 우찬제 『# 생태_시』, 56p

6) 같은 책, 37p

7) 클라이브 해밀턴, 『인류세』 158p

미암은 이당 안병욱의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우리는 그의 성실과 중용철학을 통하여 포스트휴머니즘과 신인간중심주의의 대립점을 극복할 수 있고, 조화를 이룩할 수 있다. 그가 강조한 성실과 중용은 무엇일까?

먼저 성실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의 철학의 목표는 삶을 바로 사는 것이다. 바로 사는 삶이란 소중한 삶을 그에 걸맞게 산 것이다. 소중한 자신을 떠올려보자.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소중한 대상에게 잘해주고, 그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실철학이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면,⁸⁾ 세상의 모든 '나' 역시 소중한 존재일 것이고, 그러한 존재들의 총체인 '너' 는 모두 소중한 존재다. 그리하여 사람도 소중하고, 자연도 소중하고 그 터전인 생태계도 소중한 것이다. 나 자신이 온갖 사물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사실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나로 시작하여, 가족, 이웃, 자연, 사물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의 성실철학이다.⁹⁾ 이러한 성실철학을 통해 포스트휴머니즘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

두번째로 이당의 중용철학을 통해 포스트휴머니즘과 신인간중심주의의 대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중용에 대하여 이당은 이렇게 말한다. “중용은 중간이라는 뜻이 아니다.¹⁰⁾ 중용은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불편부당의 상태요, 과부족이 없는 중정의 상태를 말한다.” 중용은 인간이 내적 중심을 확립하고¹¹⁾ 그것을 지켜냄으로써 매일의 일상 속에서, 역사의 현실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에 대해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 판단과 행위를 해낼 것을 요구한다. 포스트휴머니즘과 신인간중심주의 각각은 ‘인간과 비인간적 존재 중 무얼 더 우선시 하느냐’ 에서 차이가 갈리지만, 이 사상을 이당의 성실철학에서 바라본다면, 만물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 둘 중 오직 하나의 입장만이 옳은 것일까? 세상을 인간과 가이아의 대결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가치를 잊을 수 있다. 반대로 포스트휴머니즘으로만 치우친다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릴 것이다. 중용철학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양자 모두 나름의 가치가 있으니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포스트휴머니즘 생태시의 특징인 자연과의 공감을 통해 보편적인 도덕을 행할 수 있음을 보았고, 이당철학을 가져와 포스트휴머니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신인간중심주의와의 조화가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간단하다. 나를 사랑하자.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사랑하자. 내가 소중한 만큼 나를 둘러싼 세상은 소중한 법이다. 세상 모든 선한일은 '나' 와 '너'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마련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이 여타의 사상들과 양립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8) 김대식, 『안병욱 인생철학』, 109p, 안병욱, 『빛과 생명의 안식처』 15-27p

9) 안병욱 『생의 푸른 초원에서』, 182p

10) 안병욱, 『빛과 지혜의 샘터』, 14p

11) 이선경, 「중용의 실현 근거로서 誠의 철학: 존재, 인식, 수양의 측면에서」

3. 자연이라는 거울과의 조우

이익경

‘실천 없는 앎은 공허하고 앎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다.’¹²⁾ 칸트의 유명한 문장을 바꾸어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앎이며, 그 앎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생태_시’는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1~5장에서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을 밝혀낸 뒤 마지막 6장에서 실천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6장의 제목이 ‘상생의 길’이라는 점에서, 그 방법이 ‘상생’임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 ‘상생의 길’이 제시하는 기후위기 해결 방안은 ‘자연과 상생하고자 하는 태도의 함양’이다.

‘상생의 길’은 상생을 추구하는 두 가지 관점을 시에 담아 보여준다. 하나는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 PH)’이라는 관점이다. 이는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를 자연과 동일하다고 보고, 인간이 가진 행위성을 축소시키는 관점이다.¹³⁾ 다른 하나는 자연의 도덕적 모습과 인간의 부도덕한 모습을 대비하여, 인간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해당 시집만의 독자적인 관점으로, 본고에서는 이를 비판주의적 생태윤리(Critical Eco-Ethics, CEE)라고 명명하겠다. 이 둘은 모두 생태중심주의적 관점인데, 전자는 인간과 자연의 존재론적 지위를 동등하게 놓기 때문에, 후자는 자연을 기준으로 인간의 도덕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PH의 사고를 보여주는 시로는 <줄탁>, <수라>, <위대한 식사>, <꽃밭을 바라보는 일> 등이 있고, CEE의 입장은 <숲>, <극빈>, <초록의 길>, <우리가 물이 되어> 등에서 잘 드러난다. 이 중 <줄탁>과 <수라>를 비교하면서 입장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줄탁>은 ‘저녁 몸속에/새파란 별이 뜬다’ 나 ‘내가 타죽은/나무가 내 속에 자란다’라는 구절 등을 통해 인간의 삶을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자연의 죽음을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제시하며 인간의 삶이 자연의 영향 아래 있음을 보여주어 인간의 자율적 행위성을 축소한다. <숲>은 ‘제가꿈 서 있어도 나무들은/숲이었어/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면서/술한 사람들이 만나지만/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에서 자연에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며 도덕적 반성을 유도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생태 시 6장은 이러한 두 종류의 시를 통해 상생을 추구하는데, 두 방법 중 PH의 태도는 상생을 이루기에 적합한 태도가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다. PH에 기반한 ‘상생’ 개념은 오히려 ‘상생’의 본의를 훼손함으로써 주제인 ‘상생의 길’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PH적 관점의 시들은 ‘인간이 자연 속으로 침잠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이 자연에 가하는 행위성을 억제하며,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에 대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다가오는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지며 이는 자연과 인간의 공멸을 초래한다. 상생의 본의는 ‘둘 이상이 서로 복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¹⁴⁾인데, PH가 주장하는 태도를 이행하면 ‘서로 복돋우며’는 실현하더라도 ‘살아감’은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PH의 태도는 ‘상생’을 위한 태도로 적합하지 않다. 상생의 의미를 피상적으로 이해했거나, 인간의 행위성이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임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이러한 오류를 범한 듯하다.

하지만, PH의 의도를 이해할 수는 있다. 인간이 자연에 미친 수많은 악영향을 목도하고도

12)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의 ‘이론이 없는 경험은 맹목적이고, 경험이 없는 이론은 지적 유희에 불과하다. 내용이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를 변형한 것이다.

13) 클라이브 해밀턴, 『인류세』, 97p.

14) 「표준국어대백과사전」에서 인용.

자연에 대한 행위성을 마냥 긍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힘은 자연을 파괴하는 유일한 힘이기도 하지만 파괴를 해결할 유일한 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PH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다는 사실에만 치중하여 다른 중요한 사실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인간의 행위성을 인정하는 신인간중심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행위성에 의해 지금의 문제가 벌어졌음을 지적하는 PH적 사고를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인간의 행위성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위험성을 PH가 감촉하기 때문이다. 신인간중심주의자 해밀턴이 <인류세>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을 활용하면서도 뛰어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를 지적한 것이다. 해밀턴은 신인간중심주의자로서 행위성의 극대화를 주장하면서도,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포스트휴머니즘이 지적한 행위성에 대한 비판을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이러한 해밀턴의 요구를 충족하는 입장이 생태 시 6장에 드러나 있는데, 앞서 언급한 CEE가 바로 그것이다. CEE는 ‘행위성’이 아닌 ‘도덕성’을 비판함으로써 두 입장의 절충에 성공한다.

CEE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 보자. CEE는 인간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인간의 도덕성이 자연에 비해 뛰어날 것이 없음을 보여주며 인간의 반성을 유도하는 입장이다. CEE가 인간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근거는, 인간이 인간의 특정한 본질을 망각했다는 사실에 있다. 하이데거가 현존재 개념을 통해 일찍이 통찰하였듯이 인간은 모든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하며 존재하는 존재자이다. 이 사실은 ‘Da-sein(거기-있다)’이라는 그의 용어에서 확인된다. 인간은 ‘거기’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방식을 가진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의 삶의 방향성을 의식적, 의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자이기에 타 존재자에 의도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의도성에서 비롯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자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자’이다. 이를 종합하면 인간은 ‘스스로가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함을 이해하고, 다른 존재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 유일한 존재자’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본질¹⁵⁾이다. 인간은 이러한 본질을 망각한 채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였다.¹⁶⁾

CEE는 이러한 논리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의 본질에 대해 자각하여 자연에 대해 저지른 과실에 대해 책임지고 행동하기를 촉구하며, 행위성을 요구하면서도 그 방향을 ‘자연에의 침잠’으로 두는 것이 아닌 ‘자연을 위한 행위’에 맞춤으로써 행위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따라서 PH보다는 CEE가 상생을 위한 태도로 적합하다.

생태 시 6장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신인간중심주의와 포스트휴머니즘이 가지는 가치 중 하나에 치중하지 않고 두 입장의 장점을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CEE라는 입장을 도출한 것이 생태 시 6장이 이뤄낸 중요한 성과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태 시 6장의 제목인 ‘상생의 길’에 대해 생각해 보자. 6장의 중요한 가치인 CEE에도 ‘상생’의 이념이 담겨 있음은 매우 인상적이다. CEE는 ‘포스트휴머니즘과 신인간중심주의의 상생’을 이뤄내었는데, 이는 6장이 제시하는 ‘자연과 인간’ 간의 상생과는 별개로, ‘이념과 이념’의 상생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과 이념’ 간의 상생은, 기후위기를 눈앞에 두고도 경제적/정치적 입장에 의해 분열되어 탁상공론을 이어가는 인류 사회가 이루어야 할 일이기도 하다. 논의의 초반에 제시한 대로, 우리에게선 삶과 실천이 모두 필요하다. 기후위기가 눈앞에 닥쳤음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에게선 실천이 필요하다. 6장이 보여준 ‘이념과 이념의 상생’이 이를 성취할 수 있기를 절실히 기대해 본다.

15) 이는 하이데거가 언급하는 가변적 본질이 아닌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불변하는 본질이다.

16) 마크 A. 래틀 「How to Read 하이데거」 16~33p.

4. 인류세, 빛을 갠 빛을 가진 행위자들

나형은

인류세에 빛을 진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시민'이 필요하다. 헤겔은 역사를 '세계정신의 현현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역사는 인간의 사유의 틀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유의 틀이 변화함에 따라, '시민'이라는 개념도 시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해 왔다. 고대 그리스의 시민은 민주정체에 참여하는 '능동적 주체'를 뜻했고, 프랑스 혁명 당시의 시민은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역동적 주체'로 이해되었다. 또 현대에는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시민은 단순히 하나의 의미만을 가진 단어가 아닌, 시대의 특징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새로운 시민 개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새로운 시민의 아젠다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은 이 시대의 의무이다. 필자는 그 답을 대한민국은 항상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았듯이 3장 『인류위기』의 주제인 생태 위기 속에서 시민의 역할을 찾고자 한다.

3장은 인간의 위기의 그로테스크적 묘사와 자연과 인간, 주체-객체의 비분리성에 입각하여 포스트 모더니즘의 입장을 취한다. <공장지대>의 시인은 공장지대의 환경오염으로부터 탄생한 무뇌아를 주체와 객체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공장의 매연으로부터 무뇌아를 낳은 산모의 몸에 공장지대가 있는 것으로 환원한다. 또한 아이의 젖은 허연 거품을 띄는 폐수를 먹은 산모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을 아이가 먹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장지대', '허연폐수', '미세플라스틱'은 우리와 연결된다. 우리는 결국, 더 나은 인간의 삶을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는 현대문명으로 인해 무뇌아가 되었다.

<비둘기는 왜 도시를 떠나지 않는가>의 시인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객체를 비둘기로 설정했다. 우리는 흔히 비둘기를 길거리에서 더럽고 지저분하게 방황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화자는 이 비둘기를 의인화하여 우리와 동일선상에 놓았다. 그러면서 비둘기가 도시를 떠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조류의 '왜곡된 시각 특성' 때문으로 보았다. 도시에 사는 인간 역시 약물 중독으로 인해 사람들이 환각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이처럼 화자는 자연을 의인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하나로 연결하는 생태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전염병>의 시인 역시 전염병과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관념을 드러내지 않은 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연대감'을 찾고자 한다. "우리는 감염되지 않았어요/음악 시간에 노래를 불러도 되나요?" 이 시가 2013년에 쓰였다는 점은 놀랍지만, 지구의 위기가 인류 전체의 위기라는 사실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이 시는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사람들과 연대하고 싶은 희망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의심과 죽음이라는 그들이 존재함을 보임으로써 절망과 슬픔의 감정을 드러낸다. "작년에 죽은 내 친구는 알까요/산 사람들도 죽음과 손을 잡고 있다는 걸./그게 어떤 기분인지" 이어서 아이들은 감염된 사람들과 작별인사를 한다. '작별'의 사전적 정의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짐'이다. 오늘날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면서 평생 만나지 않아도 될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죽어간다면 이것을 '작별'이 아니라 '만남'이라 함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해밀턴은 이러한 포스트휴머니즘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중요성과 힘을 지구상에서 축소"하는 인식론이라며 비판한다. 또한 '도나 17)해러웨이' 혹은 '애나 칭'처럼 "인간의 위상을 격하시키거나", "인간을 박테리아보다 낮은 위치에" 놓아서 안 된다고 지적

17) 최유미(2020).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공산으로 번역한 용례는 최유미로부터 빌려왔다.

한다. 이렇듯 해밀턴은 ‘지구 시스템’을 또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며 인간도 여전히 주체로서 인정한다. 하지만 이 비판은 앞서 언급한 포스트휴머니즘과 신인간중심주의의 두 입장을 절충한 비판주의적 생태윤리’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 행위성을 강조함으로써 극복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각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체의 행위 혹은 사건이 ‘행위자’(agency)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브루노 라투르¹⁸⁾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이 있고, 둘째로, 하만¹⁹⁾의 객체-지향적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이 있다. 마지막 티모시 몰튼의 초객체 이론(hyper object)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기후변화를 물자체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인간이 이 행성에서 다른 사물 존재들과 더불어 공-산(sympoietic)적 삶을 구성하며 살고 있기에, 인간중심주의의 해체가 단지 인식론적 행위가 아닌 도덕적, 정치적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 사물이 ‘그 자신만의 자율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물-권력’(thing-power)를 지닌 존재’로 성찰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만은 ‘모든 관계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편평한 존재론’(Flat Ontology)에 따르면, 모든 존재자는 항구적으로 편평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편평한 존재론 속에서도 위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이 인류세의 행위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시민이 왜 과학과 사회공학적 힘을 융합해야 하는가? 20세기부터 주도된 세계화로 인해 각국은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때때로 정부는 이해관계에 매몰되는데, 일례로 트럼프의 파리 협정 탈퇴를 들 수 있다.²⁰⁾ 반면, 시민에 의해 성취된 파리 협정은, 현재까지도 매우 성공적인 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정부의 한계를 시민의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이 드러난다. 시민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주체로서 정부와 상호작용하며 행위자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역할, 그리고 파리 협정에서 보여주었듯 과학과 사회공학적 힘을 융합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렇다면 ‘생태뉴티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는 사고방식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폴리스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또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 의하면 자연 또한 폴리스, 즉 사회를 구성하는 행위자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의 시대에,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인간이 막아야 함은 분명하다. 자연의 파괴는 폴리스의 파괴를 유발하고, 인간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태뉴티즌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연의 보호를 위해 행동할 필요가 있다.

폴리스에서 사는 것은 ‘덕’,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²¹⁾에 따르면, 지성(nous)에서 벗어나 실천적 지혜(pronesis)를 중용으로써 발휘하는 삶이 최고의 덕 있는 삶이다. 중용은 산술적 중앙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과 결부된 품성 상태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개념이다. 기후위기에서의 실천적 ‘용기’를 예로 들어 보자, 용기에서의 양극단의 하나가 무모함-극단적 환경보호주의, 즉 타인에게 해를 주며 환경보호를 외치는 태도이다. 다른 쪽 극단은,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비겁한 태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상황, 때, 대상에 대해 기후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 여길 수 있다.

인류세라는 혼탁한 시대, 우린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처럼,²²⁾ 쓰러지지 않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생태에 빛을 쬐으면서도 그 빛을 갚을 수 있는 빛을 가진 유일한 행위자이다.

18) Latour, Bruno et als (2010).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19) Harman, Graham (2020). 『비유물론: 객체와 사회 이론』

20)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 장희익 등(서울대학교)

21)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22) 정현중,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5. 끝의 시작

이은기

아름다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아는가?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야 한다
그 색들이 조화를 이루며
한 폭의 그림 안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했다
우리는 그저 원하는 물감만 종이 위에 떨어뜨렸다
물감이 너무 많았던 탓일까
종이 위에 떨어진 물감들은
점점 종이의 빈 공간을 위협하며
죄의 색을 띠고 있었다

다시 흰 종이에서 시작하고 싶었지
하지만 종이는 한 장 뿐이었어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아름다운 그림을 위한 색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엔 충분한 물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붓을 움직일 힘도
우리에게겐 있으니까

[참고문헌]

0. 서론

- 송용구,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 비교 연구」

1. 본론

- 오늘의 우리는 어제와 달리 '자연'을 보아야 한다

김양현, 「칸트의 목적론적 자연관에 나타난 인간중심주의=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을 중심으로」

- 나를 넘어 너에게 너를 넘어 자연에게

김대식, 『안병옥 인생철학』

자사 『중용』

안병옥 『생의 푸른 초원에서』

양선이 -허치슨, 흄,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나타난 공감의 역할과 도덕의 규범성

중용의 실현 근거로서 誠의 철학: 존재, 인식, 수양의 측면에서

이승하- '시란 무엇인가' 의 역사

안병옥 『인생사전』

- 자연이라는 거울과의 조우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

클라이브 해밀턴 『인류세』

마크 A.래틀 『How to Read 하이데거』

리처드 나스벳 『생각의 지도』

송영무,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 비교 연구」

군나르 시르베크, 닐스 길리에 『서양철학사 2』

- 인류세, 빛을 갠 빛을 가진 행위자들

최유미(2020).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Harman, Graham (2020). 『비유물론: 객체와 사회 이론』

Latour, Bruno et als (2010).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Latour, 2010: 31)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네가 나를 비춰줬을 때 비로소 나는 빛이 되었다
(생태시보)

; 「생태 시」를 읽고...



(조장) 정운서
김우석
전민하
최윤우

0) 창작시

.....

네가 나를 비춰줬을 때 비로소 나는 빛이 되었다.

정윤서

너는 무슨 색일까?
장미 꽃밭에선 빨간색이 되고
숲 속에선 초록색이 되고
하늘에 어둠이 내리면 검정빛을 내는
너는 무슨 색일까?

너는 무슨 색일까?
모래밭에선 갈색이 되고
자갈밭에선 회색이 되고
하늘에 어둠이 내리면 달빛을 내는
너는 무슨 색일까?

그 모든 색을 가진 네가 나를 비춰줬을 때 비로소 나의 색이 생겼다.
그 모든 색을 가진 네가 나를 비춰줬을 때 비로소 나는 빛이 되었다.

.....

‘네’가 상징하는 것은 물과 햇빛입니다. 아무 색이 없어 보이는 햇빛과 물이지만 어디를 비추나에 따라 무엇을 비추나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생태, 그것이 우리를 비추었을 때, 우린 어떤 색으로 물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입혀준 색으로 그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과 생태의 조화를 통해 만들어질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그들이 우리를 비추어 준 만큼 그들을 우리들의 색으로 예쁘게 물들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온난화를 일으킨 인간 행위에 대한 고발, 생태 시

생태시보

2022.05.22. www.ssu.phil.kr

20220351

최윤우 기자

온난화를 일으킨 인간 행위에 대한 고발, 생태시

대지 윤리를 통해 바라본 생태 시의 관점

2021년 월드이코노믹포럼에 게재된 자료에 의하면 1880년 이래 지구의 평균 표면온도는 10년마다 0.07도씩 상승해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온도변화율은 1981년 이후 0.18도로 두배 이상 올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저하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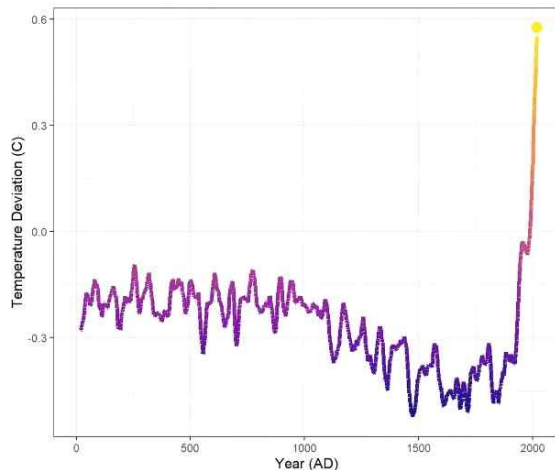
‘세계적인 환경 저널리스트이자 사회운동가인 마크 라이너스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 표면온도가 1도 상승하게 되면 만년 빙하가 사라지게 되며 사막화가 심해져 기상 이변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2도 상승하게 되면 대가뭍과 대홍수, 그리고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 북극 생태계가 파멸할 것이며, 3도 상승하게 되면 아마존 지역이 사막화 되고 세계 각지의 해안지역이 침수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4도 상승하게 되면 영구 동토층이 녹아 지상으로 메탄가스가 분출되어 5도 상승하게 되고 지구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며, 6도 상승하게 되면 지구 상의 모든 생물이 멸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기온 상승, 즉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된 바 없으나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가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한민국 환경부의 ‘지구온난화 원인과대책’에 따르면, 온실기체로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이며 인류의 산업화와 함께 그 양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류가 숲을 파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산호초가 줄어들어는 것으로 인해 온난화 현상이 심해진다는 것 역시 수많은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온난화 현상이 그저 지구 순환의 과정이라는 소수의 주장이 있으나, 현대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의 증가에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주류 의견은 산업 발달에 따라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농업 발전을 통해 숲이 파괴되면서 온실효과의 영향이 커졌다고 본다.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PC)에서 인정한 견해는 19세기 후반 이후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0.6도 상승했으며, 20세기 후반부터는 인류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온난화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온난화의 원인이 인간, 즉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시태그 문학선 생태시’에 등재된 김광규의 ‘물의 소리’는 이러한 인간의 생태파괴적 행위에 대해 비판한다. 이 시에서는 물을 생태에 빗대어 표현하는데, 인간이 물을 모방하면서도



1900년대 이후 급격히 치솟은 그래프
(사진 : Visual Capitalist)

동시에 배반하여 파괴한다고 지적한다. 시인은 물을 배반한 인간은 더러워지고 물을 이용해 다시 몸을 씻는 인간의 모순을 꼬집는다. 이에 인간이 금속의 종족이며 고통받아 마땅하고 이들에게 물의 축복은 베풀어지지 않는다고 표현하며 현 인류의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김광규의 ‘물의 소리’가 지어진 시기는 1970년대로 현대문명과 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경제 발달로 인해 생태 파괴 현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태동된 생태시는 1990년대부터 생명운동, 생태계 보호라는 사회운동이 문학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생태주의 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적 흐름 속에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생태주의 문학은 생태주의와 문학의 접합점으로, 여기서 생태주의란 유기적인 관계에서 서로 복된 삶을 영위하는 세계를 생태계라고 하는데 지배와 복종의 삶이 아니라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며 질서가 조화롭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생태계를 지향하자는 의식이 생태주의이다. 미국의 생태이론가 조셉 미커는 “문학이야말로 생태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서는 생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생태주의 문학은 새로운 문학의 장르로서 현대 문학에서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설보다는 시 형태, 즉 생태시에서 생태문제에 대한 형상화가 두드러졌는데, 소설에 비해 시에서는 한결 자연친화적이고 주관적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 자연을 객관적 상관물로 하거나 소재로 곧잘 구사하기 때문이다.

생태시의 관점은 미국의 생태학자 알도 레오폴드의 대지윤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서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지윤리 이전의 모든 윤리는 개인은 상호 의존적이 부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공통된 전제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본능은 개인으로 하여금 그 공동체 내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라고 촉구한다. 그러나 대지윤리는 단순히 이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 곧 포괄하여 토지를 포함하도록 확장시켰다. 간략히 말해 대지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토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켰다.

인류가 지구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닌 평범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대지윤리와 현대 생태시와 동일한 입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는 지구공동체에서 특별한 존재자가 아닌 타 존재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재고한다. 또한 대지윤리에 따르면 설령 타 존재자와 차이가 있더라도 그들을 정복하려 들면 안 되며 그들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생태시에서 강조하는 부분으로 생태시는 상생의 길이 아닌 베이컨을 필두로 한 과학중심주의, 강경한 인간중심주의를 통해 지구공동체의 정복자가 되고자 했던 과거 인류의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나눔과 배려, 협력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생태시는 문학의 형태로 기존 인간 행위를 비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h1>2장 이기심이 밥 먹여준다</h1>		
생태시보	2022.05.22. www.ssu.phil.kr	20220349 정윤서 기자



내가 살아야 지구가 산다

:인간중심주의 입장에서 바라본 「생태 시」
(철학입문)20220349 정윤서

자연환경의 파괴, 기후의 급격한 변화, 생태종의 변화 등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태문제에 대해 빨리 해결책을 찾지 않고서는 더이상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없다.

「생태 시」 안에 다양한 시들이 보여주는 자연의 생동감과 경이로움, 의인화된 자연의 모습 표현은 인간과 자연을 나누는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생태와 인간의 조화를 위한 의식의 변화라는 주제로 인간이 스스로 사고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간결하지만 다른 생명을 향한 개방적이고 동등한 시선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시만이 가지는 특권으로 인상 깊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을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써 생각하고 생태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의 조화를 위한 나의 의식을 변화시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해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아예 문제라고 하지도 않겠다. 즉,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는 뜻이다. 이제는 생태를 지키자! 생태의 말에 귀 기울이자! 새로운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보자! 등의 뻔하디 뻔한 교훈과 해결책이 아니라 좀 더 현실 가능성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아니, 굳이 노력해야 하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 경제가 돌아가듯 우리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생태를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인가? 「생태 시」에서의 장점은 우리가 그냥 지나쳤을지 모를 생물들이 가지는 생명력, 그 경이로움이 독자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딱 거기에서 끝이다. 위의 책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생물의 가치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속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 나 또한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잊고 생태만을 우러러보게 된다. 우러러본다 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 세상에 생태 관련 시들은 넘쳐나고 생태 관련 책도 넘쳐난다. 그렇다 해서 지금 생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아니다. 생태라는 키워드에 지나치게 치중해 계속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만 깎아내릴 뿐이다. 이런 부분에서 「생태 시」 또한 다른 생태 관련 도서와 다르지 못했다. 「생태 시」가 특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태 관련 도서와는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어야 했다. 현대사회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과 실현 가능성 있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인간에게 있다. 인간의 심리 중 이기심이 있다. 이기심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이다. 이기심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게 다가오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편견이라고 볼 수 있다. 이기심이 꼭 나쁜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선착순 10분께 사은품을 드립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이다. 이 문구를 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서 내가 사은품을 받아야지’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이런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가? 결국엔 나의 양심에 대한 가책과 나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가. 이것 또한 나의 이익을 꾀하는 마음, 즉 이기심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럼 이런 이기심은 어떨까? ‘나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생태를 보호해야한다.’ ‘내 도덕성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동식물을 해하지 않겠다’ 충분히 실현 가능성 있는 이기심이지 않은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치중할수록 자신의 가치와 도덕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늘어날 것이다. 즉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태를 보호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생태 시」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식의 주체가 틀렸다. 현실 가능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생태를 위한 인간의 의식 변화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위한 생태 인식 변화였어야 했다. 또한 인간이 다른 동식물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동등한 위치였다면 애초에 파괴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개발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철학자 칸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칸트는 인간중심주의 학자였다. 그러나 평범한 인간중심주의 학자와는 약간 다른 주장을 한다. 도덕적 권리 갖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며 모든 자연 대상을 오직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반적인 인간중심주의 학자와는 달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도덕적이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사람의 인격을 항상 목적으로 대해야 하며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접적인 의무라고 생각했다. 동물이나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의 도덕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여중생 살해범 이영학 또한 프로 파일링 과정에서 끔찍한 동물살해 전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면에서 위의 주장은 칸트의 인간중심주의적 입장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생태가 파괴되었다면 반대로 인간의 이기심이 생태를 다시 살릴 수도 있

다는 말 아닌가? 이제는 이기심을 자극해 생태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감으로써 더 나은 지구 더 가치 있는 생태를 만들어 나갈 때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인간과 생태의 부조화이다. 위의 해결방안을 통해 인간과 생태가 서로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뽐내며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결책이자 저자가 원하는 결과일 것이다. 그 결과를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올바른 이기심의 형성을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서로의 이기심을 자극해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드높여야 한다. 우리는 이기심이 밥 먹여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3장 한강의 기적, 한강의 비극

생태시보

2022.05.22. www.ssu.phil.kr

20220329

김우석 기자

-생태중심주의 입장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

일제 강점기, 6.25전쟁을 거쳐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울 만큼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었다. 군부 독재 시대, 외환 위기를 겪고도 삼성, LG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을 필두로 폭발적인 산업 증진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 5천달러를 달성하며 전세계 10위 규모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에서 한국전쟁 이후부터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까지 나타난 반세기에 이르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이지만, 실제로 한반도는 수도를 가르치르는 한강을 품고 수천년 역사를 일궈냈다. 고층건물이 뿔뿔이 들어서고 큰 도로와 다리들이 뻗어있는 도시, 한국 경제와 정치, 문화의 중심지가 된 아름다운 야경의 도시 수도 서울은 한반도 수천년 역사 속 우뚝 솟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준다.



사진 출처 - <https://m.blog.naver.com/psh334411/222623288426>

대한민국에게 기적과도 같은 눈부신 발전을 선사했던 한강의 입장에서 한국 변영과 발전이 과연 기적일까? 한국이 산업화 되고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동안 인구의 증가와 집중, 산업 발전, 소비 증대에 따라 에너지, 수자원, 토지, 각종 자원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막대한 양의 매연, 오수, 폐기물, 유독화합물, 방사능물질 등이 배출되었고 현재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과거 들판을 수놓던 메뚜기, 여치, 반딧불이와 같은 작은 풀벌레들부터 계곡을 가득 채우던 가재, 도롱뇽, 개구리 그리고 수달, 다람쥐, 여우 등의 작은 소동물들까지 인간들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그 자취를 감췄다. 지금까지 산과 들판과 계곡과 바다가 인간들을 위해 그들의 자원과 에너지를 나눠준 만큼 이제는 우리도 자연과 생태계에

대해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지구라는 공동체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공생할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한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을 2083년 까지 점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화력 발전으로 대체 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정치적 문제들이 겹쳐 그 진행이 더뎠다. 지난 5월 10일 공식적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10가지 공약중 탈원전 백지화, 기존 원전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 추진에 대한 부분이 상당수 있어 방사능 폐기물, 방사성 폐수 등을 내뿜는 원자력 발전소는 앞으로 더 오랜시간 동안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과 자금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는 효율성이 높은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23.4%를 원자력 발전이 차지할 정도로 원자력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전이 위치한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는 60여개의 활성단층이 있어 지진이 발생할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확실히 원자력 발전은 풍력발전이나 조력발전 등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보다 효율적이라고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한번 사고가 나면 인간과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그 피해는 완전히 회복하는데 상상할 수 없을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직접적 누출은 열흘 동안 계속되었다. 이는 소련과 유럽 지역 일대에 광범한 환경 손상을 가져왔다. 대기와 토양, 식수가 방사선에 오염되었고, 동식물이 방사능 물질에 피폭되었으며, 이 때문에 인간은 식수와 식품 오염이라는 면에서도 심각한 불안감을 안게 되었다. 한정숙. (2013). 체르노빌 원전 사고. 역사비평, 199-232. 사고 이후 소련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 곡류, 감자 등 주요 식품의 방사성물질 오염이 확인되었다. 체르노빌 사고는 또 숲의 방사선 오염을 불러일으켰다. 바람과 비가 전파한 방사성물질로 소련의 여러 지역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스웨덴의 숲도 오염 시켰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산림지역이 국토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 또한 원전 사고의 피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생태문제는 인류 전체의 실존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정치적 판단이나 논쟁이 아닌 실제 환경을 생각하고 생태계를 생각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인간은 100년도 채 안되는 시간을 살다간다. 우리는 생태계에 잠시 들어와 자원과 에너지를 빌려쓰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자원을 마구 쓰며 인간의 위상을 높이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생태계에 일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우리 지구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간이 생태계 정점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생태를 돌볼 때 진정한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장 인간중심주의와 환경 보존의 관계

- 패스 모어의 관점에서

생태시보	2022.05.22. www.ssu.phil.kr	20220347 전민하 기자
------	-----------------------------	--------------------

<생태시보> 철학자 가상 인터뷰

안녕하세요. 생태시보의 전민하 기자입니다. 요즘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후로 인해 생태계에 급진적인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매년 예상치 못한 폭염과 폭우, 꿀벌의 집단 폐사, 이상 기후로 인해 가옥이 침수되어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 등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대되면서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주제를 바탕으로 철학자 '패스 모어'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

기자: 안녕하세요, 철학자 패스 모어님. 귀한 자리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오늘날 급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생태계 파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패스 모어님께서서는 환경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걸까요?

패스 모어: 우선 저야말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이 인터뷰의 취지에 조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간중심주의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인간중심주의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대상을 오직 인간의 처지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자: 완전한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패스 모어님이 생각하시는 환경에 관한 생각이 매우 궁금합니다.

패스 모어: 하하 그러죠. 인간중심주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인간중심주의라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베이컨,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을 떠올리지 않나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도덕적 권리를 갖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며, 인간 이외의 모든 자연 존재의 가치를 오직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정하는 도구적 자연관의 사상입니다. 이러한 도구적 자연관을 지닌 인간중심주의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자연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을 가속화 해왔으며, 이로 인해 앞서 나열해주신 심각한 환경문제가 초래된 것입니다. 이를 '강경한 인간중심주의'라고 합니다. 강경한 인간중심주의가 있다면, 이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인간중심주의도 존재하겠지요? 바로 '온건한 인간중심주의'가 제 환경 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현세대를 포함한 '인류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오호,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이지군요. 그렇다면 온건한 인간중심주의가 가지는 공통적인 입장 이외에 패스 모어님의 고유한 환경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패스 모어: 네! 물론입니다. 우선 저는 어쨌거나 인간중심주의이므로, 자연을 자원으로 보는 입장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경한 인간중심주의와 다른 점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인간이 꽤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 영리함으로 인해 자원으로서의 자연을 가능한 장기간 이용하려고 자연을 파괴하는 쪽보다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기자: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철학자님의 입장은 ‘인간을 위해서’ 환경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을 위한 목적이라면 환경 보호의 진정성이 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스 모어: 앞서 말했듯이 저는 인간중심 주의자이므로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굽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동물, 생명, 생태중심주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채식을 권장한다면, 수많은 식물에게도 권리가 있으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제기되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즉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만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각자의 사상을 가지고 혈투는 데에만 시간을 낭비하다 정작 환경을 보호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기자: 아하...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거군요. 그런데 인간이 영리하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패스 모어: 인간에게는 생태계, 그러니까 동물, 식물 같은 생명에게는 없는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다면 자신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는 곧 이성적으로 숙고된 판단에서 도출된 결과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자연을 존중하면서도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삶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기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패스 모어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덕적 권리를 갖는 대상은 인간과 자연 둘 다 모두 내포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패스 모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본질적으로’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점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중심주의라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웃음) 쉽게 말해 주체는 인간, 객체는 자연이 되는 것이지만 주체인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므로 객체인 자연도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셈이지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과 관련된’ 자연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기자: 철학자님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마치 칸트의 인간중심주의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칸트도 인간중심주의지만 인간의 도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인간중심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한계를 자신만의 사상에 갇혀 편협하게 한 부분만을 바라보고 사상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철학자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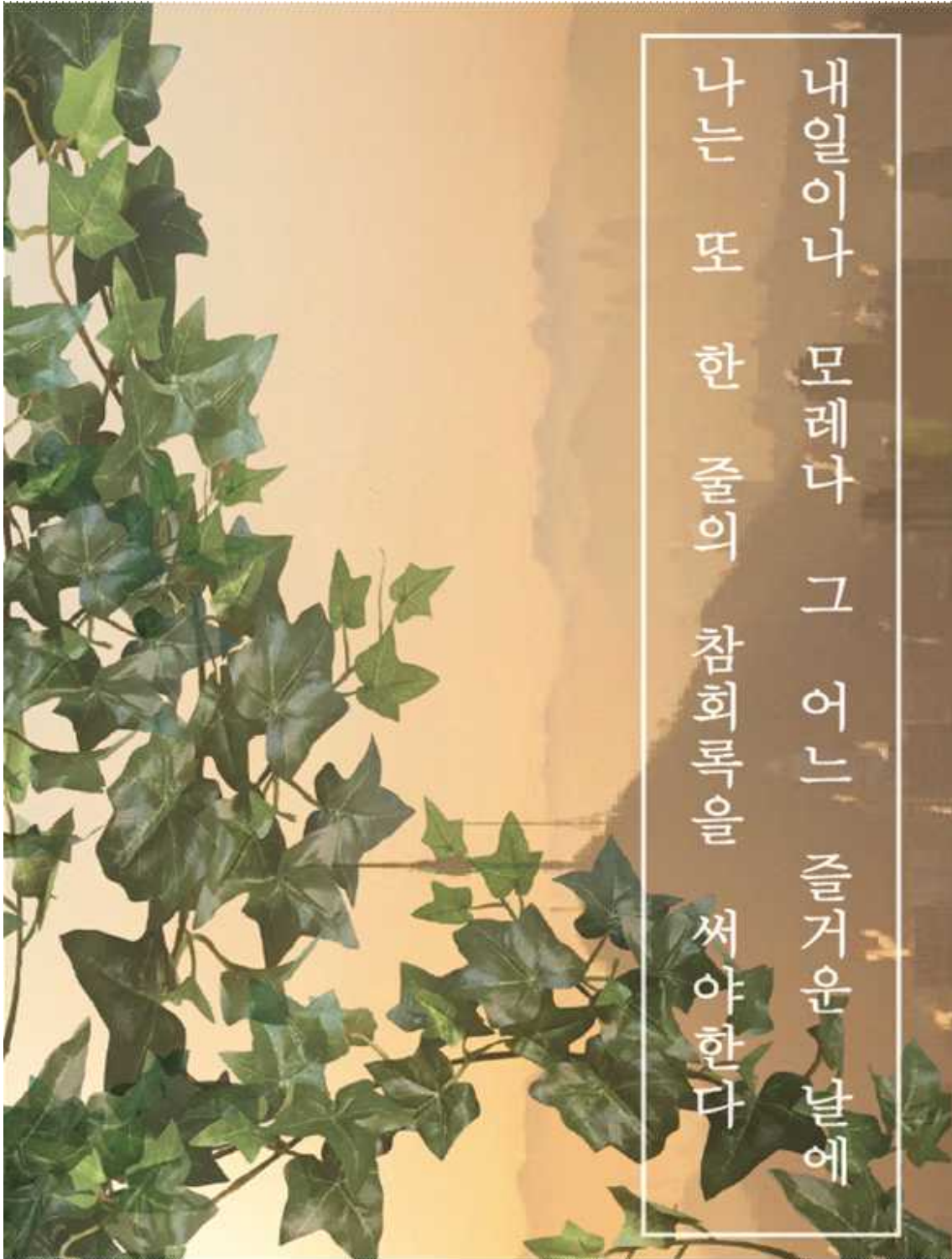
패스 모어: 핵심적인 부분들은 앞서 전부 이야기한 것 같네요. (웃음) 한 가지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은 새로운 환경 윤리를 확립하는 것보다는 기존 윤리를 준수하는 것에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기존 윤리만을 고수하자는 입장은 아니지만, 환경을 배려한답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윤리가 도출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환경 윤리가 정립되는 데에 혼란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사회는 변화무쌍하기에 기존 윤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가 도출될 수밖에 없지만, 기존의 윤리들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윤리만 도출해내는 것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기존 환경 윤리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변화무쌍한 세상에 맞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외쳤던 과거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보자면, 철학자님의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이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패스 모어: 기존의 환경 윤리를 토대로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자연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환경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일상에서부터 실천의 모습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패스 모어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 드리며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철학자 패스 모어님과 나눈 대화가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새로운 환경 윤리의 관점도 배워가고, 인간중심주의는 오로지 인간만을 존중한다고 생각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관점도 있었으며, 진정으로 환경을 배려하는 것은 기존 윤리를 지키려는 자세에서 시작됨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패스 모어님의 사상은 강경한 인간중심주의에 비해 자연에 대한 존중과 책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인간중심주의이므로 인간의 이익이나 관심을 벗어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는 여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학자 패스모어님과 동일하게 이 세상의 생명체 중 가장 실질적인 주체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이므로 작은 생명체의 눈으로 환경을 고려하는 관점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연에서 멀어지기 쉬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므로 더더욱 자연을 향한 섬세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태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질적 주체인 인간이 작은 생명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생태계 보호를 향한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주체답게 일상에서부터 실천적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민하 기자였습니다. 2022.05.23. (월) 생태시보, 전민하 기자.



<지구 끝의 온실>을 읽고
김예린(조장), 명재용, 이예원, 최진혁

1. 기술 철학에서 기후 철학으로

김예린

해밀턴은 인류세라는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주장한다. 또한 인간의 행위로 인한 지구 시스템의 파괴 현상을 신인간중심주의적인 측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간에게는 지구 시스템을 보호하고 진정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인류세의 도래는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가 주원인이다. 이에 따라 평화로웠던 홀로세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학자의 새로운 주장 중 하나가 신인간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다. 신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에서 나아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구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인식한다.

해밀턴은 우리가 사는 행성인 지구를 지구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며 인류세는 인간과 자연의 힘겨루기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또한 신인간중심주의를 주장하며 지구 시스템과 인간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이아 여신의 존재를 언급한다.

신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자연 과정의 참여자로 이해하고 반휴머니즘적인 태도를 보인다. 인간의 운명이 '가이아'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신인간중심주의는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이 인간이 기술을 과도하게 신뢰하여 기술에 종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파괴된 지구 시스템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세의 도래와 함께 발생하게 된 기후 문제의 해결책에 관한 철학적 논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기후 철학이라고 칭한다. 크게 분류하자면, 지구를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는 인간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등의 여러 관점이 존재한다.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그리는 작품 속에서는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됨과 동시에 이를 해결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위에서 언급한 신인간중심주의가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인간중심주의적 입장을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지구 끝의 온실>은 기후 소설에 속하는 작품이다. 기후 소설은 clifi라고 불리며 cifi가 현대 사회에서 시선을 끌기 이전에는 sci-fi가 주로 다뤄졌다. Sci-fi는 공상 과학 소설, 잡지 또는 영화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는 소위 SF 장르로 불린다. 과학의 발달은 sci-fi와 같은 공상과학 소설이 더 많은 분야를 다룰 수 있게 했으며 sci-fi는 현대 사회에서 각광받는 장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공상 과학 소설은 물리학, 천체 물리학, 화학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지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상 기후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기후 관련 소설의 출간이 급증하게 된다. The Science Times라는 기사에서는 2018년 UN 보고서에 기후과 학자들이 인류가 재난을 향해 가고 있지만 재난이 다가오고 있다고 실감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과학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고, 소설가들이 대신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류세의 도래 이전까지는 과학에 초점을 맞춘 소설이 많았으나 이상 기후 현상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소설이 급증하고 있다.

Clifi는 기후소설이라고 불리며,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소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대체로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을 다루는 소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clifi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 독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위기를 암시하기도 한다. Clifi는 단순히 재미를 위한 소설이 아닌 지구가 처한 위기를 독자들에게 알림으로써 경각심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오염된 대기에 대한 역사적 분석

명재용

공기질이 나쁘다는 불평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아마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세네카가 AD43년에 쓴 편지일 것이다. 세네카가 자신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는 로마의 검은 매연들을 뒤로하고 로마를 떠나서 건강이 좋아진 것을 느낀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공기 중에 무언가 몸에 안 좋은 게 있다는 인식에서 히포크라테스는 ‘미아스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공기가 인간에게 해로운 독기(miasma)에 의해 더럽혀지면 언제나 인간은 병에 걸린다” 미아스마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전염병 독을 말하는데, 이러한 관념은 중세의 흑사병, 콜레라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어졌다. 이러한 인식이 세균의 존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는데, 1861년 루이 파스퇴르가 <자연발생설 비판>을 통해 세균설을 주장하면서 실험을 통해 유럽 사람들을 납득시켰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의 공장에서 석탄을 대량으로 소비하기 시작했다. 석탄 연료로 인한 미세먼지와 자연의 안개가 만나 스모그를 형성했고, 사람들은 그걸 도시 안개라고 불렀다. 특히 영국은 안개가 자주 발생했는데, 1952년 영국 런던에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석탄으로 난방을 돌리자, 석탄의 아황산가스와 공장의 매연, 안개가 합쳐지면서 녹색빛의 스모그를 형성했다. 사람들은 그 스모그에 ‘콩 수프 안개’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12000명의 사망자와 10만명의 호흡기 질환자가 발생했다. 런던 스모그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경위의 사건은 많이 있었다. 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1930년 벨기에의 뫼즈(뮤즈) 계곡 사건이며, 1943년 LA 스모그 사건, 1948년 도노라 스모그 사건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후에야 사람들은 규제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지구 끝의 온실>에서, ‘더스트’는 연구실에서 만들어져 인류사를 바꾸어놓았고, 그 해결책인 모스바나 또한 사람이 만들었다. 김초엽 작가는 더스트가 인간이 초래한 부분을 강조하며, 그 해결책 또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재의 미세먼지와 스모그도 사람이 상당부분 초래하여서, 사람이 희생당하고, 결국에는 사람이 해결하는 양상을 보인다. 결국은 인간이 현재 상황을 만든 것이고, 자연을 훼손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 또한 인간인 것이다. 인간은 지금까지 자연을 무분별하게 이용했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큰 힘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 LA 스모그 사건 이후로 규제를 강화한 LA시는 현재 가장 청정한 공기를 갖고 있는 도시중에 하나가 되었다. LA시는 대기 자원국을 설립하고, 미국 환경보호청 보다 엄격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 법안을 발표하면서 산업계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지만, 그러한 진통을 겪으면서 무공해 자동차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인간은 분명 지구시스템의 균열을 억제할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객체 지향적 존재론이나 flat ontology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은 다른 사물과 다를 거하나 없는 존재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내 앞의 종이컵은 기후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사람들의 힘은 다른 사물들의 힘을 능가한지 오래다. 사람들은 우리 주변보다는 자신의 이익,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한다.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당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무언가 바뀌는 건 항상 소를 잃은 다음이었다. 인류의 문명이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대부분이 무시하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3. 인간과 자연의 관계, 관계 속의 갈등 기후 문제

최진혁

인류는 무엇으로 멸망하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김초엽 작가님은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가까운 미래부터 100년 정도 후라는 시간을 기점으로 하는 cli-fi 디스토피아 소설에서 현실의 기후 문제에 적용하여서 본다면 미세먼지로서 분류될 수 있는 소설의 미세입자인 더스트와 인간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과 혼란으로 인해서 인류의 멸망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크게 두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인간성을 잃어가고 인간을 과학기술의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존재를 비롯하여 인간과는 거리가 멀던 존재가 인간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모습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더스트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과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켜 자연을 개조하고 제어하려는 에코 모더니스트들의 관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과 문제를 직면하고 작가님의 말을 인용하자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세계를 마주하면서도 마침내 그것을 재건하려고 결심하는 클라이브 해밀턴이 인류세에서 강조하는 신인간중심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대립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작가님이 강조하려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무너진 현실을 재건하려던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인간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마을 프림빌리지와 그곳의 사람들은 파괴된 자연의 모습에서도 공존을 선택하고 그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연의 도움으로 재건에 성공하는 모습은 왜 문학 작품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경고하는 작품들을 제시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의 이유와 신인간중심주의와 인류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우선 기후 문학 소설 cli-fi 소설은 최근 급부상 하고있는 중이다. 그 이유로는 과학적 데이터에 의거해서 미래에 인류가 직면하게 될 다양한 상황들과 위험들에 대해서 흥미롭게 전달한다는 장점을 고려할 수 있다. BBC에 따르면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걱정한다고도 하는데 이러한 소설의 특징은 다소 내용이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논문을 통한 기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전달보다 효과적이라는 측면을 가진다. 김초엽 작가님의 지구 끝의 온실도 이러한 장점을 반영하고 있다. 미세먼지라는 문제를 소설에 적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소설의 내용을 통해서 미세먼지와 같은 기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해결책에 대해서 모색하게 하며 소설의 내용 중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문제의 해결 후에도 지속적인 해결 등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과학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식물을 개량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현재의 미세 먼지의 해결방안으로는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진다.

그리고 신인간중심주의와 인류세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인류세는 2000년에 크리스천이 처음 사용한 지질학적 개념이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는 소설에서도 인류세를 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인류세에 대한 다양한 관점 중 클라이브 해밀턴이 주장한 신인간중심주의가 소설과 현재의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가장 지지 받아야 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구 끝의 온실에서도 나오는 것과 같이 지구의 환경을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만큼 망칠 수도 혹은 다시 재건할 수도 있는 존재인 인간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인간중심주의를 강조한 스피노자가 복잡한 사고를 하는 인간의 정신이 다른 정신들을 넘어선다고 주장했

듯이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시킨 것도 인간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도 인간이라는 아이러니한 문제는 신인간중심주의의 중요성을 대두시켜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과 신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의 대립과 기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이 작품은 기후 문제에 대한 경고와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류가 지구에서 발생하는 기후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이상 현상과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는 부분에서 기후 문제에 대한 문학작품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우리의 모스바나는 무엇일까?

이예원

모스바나는 소설 속 ‘프림 빌리지’가 더스트로 뒤덮인 다른 공간과 달리 유일하게 청정 구역으로 남을 수 있게 만들었던 식물이다. 즉, ‘지구 끝의 온실’ 속 더스트를 종식시키고 지구를 재건할 수 있었던 계기는 레이첼이 온실 속에서 개량한 ‘모스바나’인 것이다. 모스바나는 소설 속에서의 팬데믹을 해결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우리의 모스바나는 무엇일까?

산업혁명 전 ‘홀로세’ 시기를 지나 인간의 힘이 더욱 막강해진 지금, 인간은 전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강하게 지구시스템에 혼란을 주고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연은 인간의 막대한 영향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적인 형태의 반응을 시작하고 있다. 소설 속에서는 ‘더스트’의 형태로 자연의 공격성을 표현하고 있다. ‘더스트’는 현실에서 심각한 기후 문제로 여겨지는 ‘미세먼지’와 연결된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대성을 버리고 다시 과거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가? 안타깝지만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포스트모더니즘 등 기존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사상가들은 계속해서 인간의 영역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밀턴의 말에 따라 보아도 우리가 아마존의 열대우림에서 지구가 ‘홀로세’에서 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인간을 제외하고 자연, 더 나아가 지구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신인간중심주의의 관점을 통해 인간의 탁월함과 영향력을 인정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지구를 보호할 수 있을지 집중해야 한다. 즉,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인 ‘근대성’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물론, 근대는 힘이 있는 만큼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까지의 근대성 진화 과정에 대한 성찰을 동반하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실에서의 모스바나, 즉 미세먼지 해결책은 기업의 기술 발전과 정부의 환경 정책 사이의 조정에 있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 밖에 있는 제3의 중재 기구 설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기존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방안을 제외하고도 인공강우, 초대형 공기청정기 등의 기술적 측면의 해결 방안들이 꾸준히 제시되어왔지만 이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해주지는 않았다. 기업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이 목적이기에 서로의 목적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다수의 ESG 기업들이 생겨나며 기업 내에서도 탄소 중립을 주장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경제 성장을 뒤로하지 않으면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충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때이다. 그리고 독일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와 같은 중재 기관이 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위원회는 제 3의 독립적 기구로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영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감사위원회나 감사(이하 ‘감사기구’)는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의함으로써,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여 투명한 경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이 회계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감사 기구의 역할이 논의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이다. 대부분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앞서 논문에서 인용하였듯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를 ‘환경’에 적용해야 한다.

먼저, 중재 기구는 기업의 환경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 기업과 공장의 운영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인 화석 연료의 연소를 초래하고 그 과정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대기 중 수증기,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며 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 또한, 자동차 배기 가스의 질소산화물과 공장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만들어진 오존은 점점 미세먼지로 인한 팬데믹을 촉진하고 있다. 중재 기구는 기업의 경영 방식에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규제해야 한다.

동시에 중재 기구는 정부(환경부)의 정책 방향을 살피고 기업과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최근 환경부가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을 친환경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오는 11월부터 친환경 인증 기간 만료에 의해 생분해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이 중단하는 행정법을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모든 1 회용품을 규제하는 것은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예시와 같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환경 정책과 기업의 목적이 상충하는 경우 이를 중재하는 역할이 중재 기구의 가장 주된 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 감사위원회 구성원은 정부기관의 인력과 기업의 임원을 1:1 의 비율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어느 한쪽의 입장에도 치우치지 않고 경제 성장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환경 정책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구 끝의 온실’ 속에서도 돔을 씌우고, 지하에 거처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더스트 사태에 대응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법들이 근본적인 해결을 안겨주지는 못했다. 그 주된 이유는 사람들 간 협력이 되지 않았으며 이를 중재할 기구 또는 사람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프림 빌리지’는 자신들만의 체계와 ‘모스바나’라는 식물을 통해 오랜 기간 마을을 유지했지만 결국 이 공동체가 흩어지게 된 계기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불균형과 부조화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서 인류세의 도래에 따른 지구시스템의 강렬한 분노 표출에 대응하는 프림빌리지 공동체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결국, 망해가는 인류 재건에 큰 힘을 실어준 것도 그들이었다.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한 인류세의 폐해,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방식들을 통해 다시 한번 현실에서의 기후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참고자료:

<https://www.sciencetimes.co.kr/news/기후소설cli-fi이-급부상하고-있다/>

Séneca Lucio Anneo, and Robin Campbell. "LETTER CIV." Letters from a Stoic, Penguin Books, 1969, pp. 84-85,

https://hillelettersfromstoic.files.wordpress.com/2014/10/letters-from-astoc_lucius-a-naeus-seneca.pdf. Accessed 25 May 2022.

Hippocrates, Breaths 6

포스트 휴머니즘의 쟁점들, 인류세 Anthropocene -와- 주체세Juchece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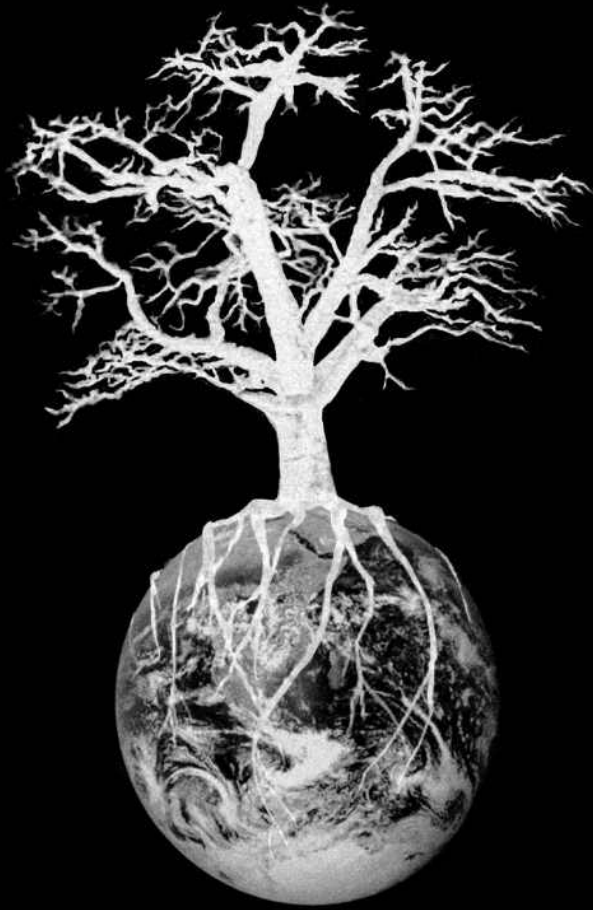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313>),

The science times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A%B8%B0%ED%9B%84%EC%86%8C%EC%84%A4clifi%EC%9D%B4-%EA%B8%89%EB%B6%80%EC%83%81%ED%95%98%EA%B3%A0-%EC%9E%88%EB%8B%A4/>

김유경,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위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1p

인간이라는 식물 : 더 월을 알고



강산 방한걸
최동현 임예인

표지 : 강산 방한걸
편집 : 임예인

1. 삶의 장소로서의 환경

방한결

환경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간 인간이 이룩한 지식의 증가는 인간의 창조 능력과 파괴 능력을 동시에 확장시켰으며, 특히 인구의 급증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오히려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생태계는 더 이상 자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생태계 지속성의 위기는 인류에게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나는 이와 같이 생태학적 위기가 도래한 것은 한 생물과 다른 생물 혹은 모든 생물과 자연환경과의 연대가 무너지기 시작함에 따라 지구 전체를 유지시키는 동적인 상호작용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자연환경에서 우리 인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인류세>의 저자 해밀턴은 인간이 지질에 변화를 가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구와 인간의 관계를 새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이 힘을 '인류'만을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힘이 성장한 만큼 지구도 그 영향력을 키워왔으므로 인간의 자유가 자연에 매여 있어, 자연이 곧 인류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는 힘에 책임감을 느끼고 자연의 지배적 개체로서 그들이 속한 지구 시스템을 돌봐야 한다. 지구 시스템과 인류가 동등하거나 근사한 지위에 있음에도 해밀턴은 인류에게 지구 시스템보다 더 많은 제약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인류가 먼저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으며 인류는 지구 시스템에 매여 있으므로 인류의 지구 지배나 자비롭게 인류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지구의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란체스터의 소설 <더 월>에서는 해밀턴과 유사한 신인간중심주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더 월>은 망가진 세상을 보여준다. 더 자세히는, 국가가 커다란 벽을 세우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있고, 온도는 아주 차갑다.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벽을 얼마간 지키거나, 인간을 생산해야한다. 이러한 세상은 인간의 힘의 성장과 동시에 자연에 대한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준다. 인간의 힘은 커지고 커져 거대한 벽을 세울 정도로 성장하지만, '추위'에 대항하기란 힘들다. '추위'에 영향을 미친 인간은 '추위'에 영향을 되려 받고있다. 더불어 '추위'속에서 인간은 인간에 대항한다.

인간과 인간의 대항. 이것이 가져오는 의미란 무엇일까. 소설 속 카바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그들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 중 하나라서 기쁘다'. 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악마같은 행동을 하는지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벽을 지킨다. 본래 벽의 목적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해치고 있다.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벽', 그러나 '벽'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다. 이러한 벽의 소설 속 기능을 토대로 우리는 한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는 '벽'을 인간을 위한 가치를 지닌 환경으로 생각했다는 것. 그러나 벽은 삶, 거주, 체류 장소로서의 환경이라는 것. 우리는 자연에 대한 태도를 사물적 존재로서의 자연, 도구적 존재자로서의 자연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카바나가 경험한 '벽'에서의 삶은 이를 뒤집고 있다. 란체스터는 소설을 통해 우리의 존재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삶의 현장으로서의 자연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란체스터가 말하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무엇인가. 란체스터는 말한다. 인간의 한계성과 오만함을 자각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이 가지지 못한 인간만이 가진 기술력과 고유함만이 결국 자연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시스템 전체를 위협에 처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인간이기에, 그 책임도 인간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란체스터는 희망이 없는 디스토피아만이 남는다는 것만을 말하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결말과 첫 시작의 수미상관 구조는 디스토피아의 극복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의 ‘추위’와 끝 부분에서의 ‘추위’는 사뭇 다르다. 인간이 초래한 추위, 인간만이 구할 수 있는 추위.

이에 나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시사하며, 란체스터가 시사하고 있는 신인간중심주의에 더해 내 의견을 고찰하고 싶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땅이라는 환경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세계를 건립해야 하는 인간의 존재론적 책임은 막중하다. 그러한 인간의 기저에는 삶의 현장으로서의 환경이 있다. 결국 순환 구조인 것이다. 인간만이 극복할 수 있는 환경적 재앙, 그런 인간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환경. 결론적으로 나는 지구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의 근원을 일깨워주는 생태적 감수성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선택된 결말

최동헌

인류의 종말은 일종의 유희이다. 그 내용이 인간성의 말살인 디스토피아나, 지구가 파괴된 이후의 포스트 아포칼립스든 시나리오가 사실적일수록 더 유쾌하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종말을 다루는 시나리오를 보며 기꺼이 즐긴다. 자신이 종말의 시나리오 속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력과 몰입으로부터 공포, 스릴, 좌절을 느끼지만, 우리는 이내 곧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때 공포, 스릴, 좌절은 현실에 대한 안도, 다행, 희망의 감정으로 바뀐다. 우리는 상상력과 현실에 대한 구분을 둠으로써 행복감까지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종말론적 시나리오가 현실에 대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을 경우는 어떠한가? 이러한 경우에는 ‘종말’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 만큼의 절망만이 있을 뿐이다. 핵전쟁으로 인해 불로 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묵시록적 예언은 다행히도 냉전의 종식과 함께 그 끝을 맞이한 것 처럼 보인다. 반면,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로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은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존 란체스터의 소설 <더 월>은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 하나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더 월>은 ‘벽’을 통하여 인류가 해수면 상승으로 종말을 맞이한 상황을 보여준다. 벽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1부와 2부는 전체주의속에서 인간성이 말살된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3부에서는 벽 외부의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적 상황을 제시한다. <더 월>의 작가 란체스터는 물과 불의 상징을 통해 소설을 이끌어 나간다. 물은 자연으로, 추위와 폭풍우, 태풍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띄지만, 아무런 악의가 없기에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존재할 뿐이다. 반면, 불은 인간 기술의 상징으로, 등불이 되어 따뜻함과 아늑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총구의 화염이나 폭발하는 수류탄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결국 인간이 주체가 되어 행동할 때에는 언제나 불이 곁에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는 결국 인간의 기술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인류의 기술은 지질에 변화를 가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졌으며, ‘의도’를 갖고 행위 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 <더 월> 또한 인류는 힘에 책임감을 느끼고 자연의 지배적 개체로서 지구 시스템을 돌봐야 한다는 <인류세>의 저자 클라이브 해밀턴과 뜻을 같이한다. 그러나, 란체스터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인간이 기술에 종속된 세계상을 제시한다. 소설 속 벽 내부의 세계는 지구를 지키는 책임자로서의 운명을 거부한 자들의 세계이다.

지구를 지키는 책임자로서의 의무는 어디서 오는가? 철학자 한스 요나스는 현대 기술에 의한 전통 윤리의 파괴, 인간중심주의의 파괴로부터 그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인간을 목적으로서 대우하라는 칸트의 의무론적 전통 윤리는, 도덕적 의무의 고려 대상이 인간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적 사상은 인간이 기술을 통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용이했지만, 현대 기술의 폭력성과 마주하면서 그 한계를 맞이한다. 현대 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의 황폐화는 미래 세대의 인간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리적 고려 대상은 인간 종 자체 뿐만이 아닌 미래의 인간이 살아갈 지구에 대한 책임으로 까지 확장된다. 한스 요나스는 이러한 지구에 대한 책임을 인간의 새로운 선형적 의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주체로서의 인간이 역설적으로 그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버리는 현대 기술의 강제적 요소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설 속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영국은 기술에 대한 주체로서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국가이다. 벽 내부의 세계는 해밀턴의 표현으로 ‘충분히 인간중심주의적이지 못했던’ 세계가 장기간 지속된 세계이다. 미래의 지구에서 살아갈 인간에 대한 책임이 부재하는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눈앞의 편안함 혹은 안락함이다. 불이 주는 따뜻함 즉,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에 중독된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찬란한 기술-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벽’을 세우고, 외부와 자신들을 구분한다. 인류세의 시작인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의 이런 ‘구분 짓기’의 최대 피해자는 기술적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아프리카 동부의 스와힐리어를 쓰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둘의 입장차이는 명확하다. 영국인들은 외부세계의 변화를 뜻하는 “대격변”이라는 단어를 쓰는 반면, 스와힐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로 “쿠-이-쉬-아”, ‘종말’이라 부른다. 세상을 바라보는 “벽”의 내부와 외부 사람들의 입장차이는 그들의 윤리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벽 내부의 사람들은 외부의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기술과 벽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이 곳에서 인간은 더 이상의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그들의 기술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락한다. 인간은 그 유용성으로만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인간의 출생은 인력의 보충을 위한 “번식” 일 뿐이다. 기술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벽 경계에 실패한 경계병들은 역할을 다 한 소모품처럼 벽 외부의 세계로 던져진다. 반면, 소설 후반부에 등장하는 벽 외부의 자연은 인간성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인간성의 회복은 기술에 종속되었던 “바다로 오기 전 있었던 일”을 모두 잊음으로써 가능하다.

바다로 오기 전 등장인물들의 생활은 기술이 제공하는 편안함에 중독된 삶이었다. 동포들을 기술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해 학살을 저지르는 대위, 사회의 부조리함을 느끼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엘리트 계층으로의 진입을 꿈꾸는 카바나, 교육받은 데로 사람들을 선동하던 정치인 제임스 등 모든 등장인물들은 기술 시스템에 종속되었던 인물들이다. 작가 란체스터가 제시하는 바다에서 인간성의 회복을 도모하는 방법은 기술에 대한 태도의 변화이다. 인간으로서 기술에 대한 주체성을 찾음으로써 등장인물들은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인물들은 주인공 카바나가 아닌 카바나가 비난하던 대위와 정치인 제임스이다. 대위는 공동체를 위해 소송을 든 자들에게 적대의사가 없음을 알림으로써, 제임스는 타인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수류탄으로 자폭을 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주체성과 인간성을 회복한다. 반면, 바다에서도 다시 벽 내부로 돌아갈 ‘희망’을 갖던 주인공은 망망대해를 표류하다 작은 등불에 의존할 수 있는 새로운 ‘벽’을 찾고 경계병으로서 의무를 이어간다.

란체스터는 이 소설이 우리 인류의 미래라고 단정짓지 않는다. 단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라고 소개한다. 이 이야기에서 다루는 인간성의 회복은 기술에 대한 주체성을 되찾아옴으로써 이루어지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끝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인간 기술로 인해 기후변화의 임계점을 넘어버린 세계에서 새로운 희망을 담보하는 어떤 것도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러한 결말을 맞이할 뿐이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결국 현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부작용에 관한 문제이다. 인류는 기술이 제공하는 효율성에 중독되어 기술의 부작용에 관한 문제는 항상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대응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문제의 경우 그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손을 쓸 방도가 없을 것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예측이다. 현재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기술의 ‘개와 늑대의 시간’의 끝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우리 인류에게는 다가오는 늑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 남아있다.

3. 책임의 공백

임예인

“벽 위는 춥다.” 영국의 소설가 존 란체스터의 디스토피아 소설 <THE WALL>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했던 한 문장이다. 이 문장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소설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소설 속의 ‘벽’은 해수면 상승과 기후 난민의 침탈을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 공간을 나누고 벽 내부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또한 이 ‘벽’은 느리고 꾸준한 통제력으로 시민들을 교묘히 이용하는 정치적 수단으로써 작동하기도 한다. 벽 하나를 기준으로 순식간에 국민이 난민으로 전락하고, 우리가 상대(others)가 되기도 한다. 인간을 위한 벽에서 도리어 벽을 위한 인간이 되기까지의 이 소설 속 상황은 새로운 세계의 잔인함을 드러낸다. 해수면 상승, 식량과 자원 부족, 출산 문제, 난민 문제와 같은 우려들, 사회 질서의 변화와 기후 재앙으로 인한 붕괴가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개개인의 환경적인 삶의 개별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또한 “벽 위는 춥다.”라는 문장 속에서 이 추위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란체스터가 ‘추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고자 하는 것은 소설의 주인공인 카바나와 히파가 더는 작동하지 않는 석유 시추 시설 안에서 불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화석 연료의 부재를 환기하는 기후 위기의 상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작가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시사점을 던져주며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소설 속 주인공의 생각은 어떠할까?

“기성세대는 이 세상을 돌이킬 수 없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부모 때문이다. 세상이 그렇게 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와 그 세대라는 걸 알게 되었다.” 소설의 주인공인 카바나가 벽 복무를 하다 휴가를 받고 집에 돌아온 장면에서의 대사 중 하나이다. 이 대사를 통해서 카바나가 생각하는 기후 위기 책임의 주체를 엿볼 수 있다. 세계에 인간으로 인한 균열이 일어났으며 그 책임 또한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또한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의 작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결과가 심각한 문제 상황으로 귀환하고 있다는 인식은 해밀턴의 인류세 담론과의 공통분모를 이루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카바나는 그 인간 중에서도 부모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의 원인, 책임져야 할 주체를 ‘우리 세대’가 아닌, 윗세대, 즉 카바나의 용어로 말하자면 ‘부모 세대’로 한정시킨다. (여기서 ‘우리 세대’란 대격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대격변 발발 전에는 벽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벽 복무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대격변 이후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세대’가 받게 되었으며, 벽 복무 또한 떠안게 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부모 세대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가지는 이러한 카바나의 입장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벽 이전과 벽 이후로 나뉜 세대의 갈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의 전가를 통한 회피적 태도는 근본적인 기후 위기 문제 해결에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은 기후 위기의 원인인 행위자와 그로 인한 결과를 해결해야 하는 주제 사이에서 책임의 공백이 생겨버린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책임의 공백의 문제에 한스 요나스의 책임 윤리를 시사하며 회피적 사고방식의 타파를 주장한다. 한스 요나스는 책임의 개념을 두 가지의 의미로 구분하는데, 첫째, 인간

이 이미 행위한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적 책임 소재로서의 책임, 둘째, 인간이 지속적으로 행위 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이 그것이다.²³⁾ 인류가 저질러온 과거의 행위들에 대한 인과적 책임은 물론, 행위할 것에 대한 예견적 책임 또한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의 범위 확장을 통해서 인류가 지구 시스템에 가하는 영향력을 인지하고 그로부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인류 존속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이 필요하다. 현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사태에 책임져야 하며, 또한 우리는 지구 시스템에 대한 책임, 미래 지향적 책임,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숙고해야 한다. 인류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마땅히 책임져야만 한다.

<THE WALL>의 작가인 존 란체스터는 이 책에 대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을 상상함으로써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소설과 같은 참담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 인류에게 있다. 세계는 과거부터 인류가 선택한 것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졌으며, 마찬가지로 미래의 세계 역시 이 순간부터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축적되어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23) 양해림, 『한스 요나스의 생태학적 사유 읽기: 『책임의 원칙』 독해』(대전: 충남대학교출판문화 원, 2013), p.61

4. 인간이라는 식물

강산

“세상은 불공정하다”- 사실의 단순 진술이든, 원한에 찬 불평이든, 안일한 우월감의 언표이든, 우리는 세상의 불공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듣는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세상은 불공정하다. 세상일이 공정하지 않다고 함은 다시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맹목적인 우연의 작용에 의한 불균등을 말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적이고 의도적인 불공정을 말할 수 있다. 소설 <더 월>의 등장인물로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눈에 띄게 짙어진 영국의 해안선 전체를 둘러싼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밤낮으로 지키는 경계병들을 상대로 장광설을 늘어놓는 ‘초짜 정치인’인 제임스는, 그의 연설에서 “운이 없는 어떤 곳, 불행한 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중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의심의 여지가 없이 전자를 의미한다. “[대격변은] 운이 없는 어떤 곳에서는 쉬지 않고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불행한 자들은 [대격변의 지속적인 영향을 피해] 다시 도망쳐야 합니다.”

넬리 받아들여지는 예측에 따르면²⁴⁾, 2050년에는 2억 명의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의한 극단적 기상 현상으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제임스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불행한 자들이 운이 없는 곳을 떠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말대로 정녕 운의 문제인가? IPCC의 2014년 보고에 따르면, “1951년과 2010년 사이에 관측된 전지구 평균 표면 온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은 인위적 온실가스 농도 증가 및 기타 인위적 강제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지구의 표면 온도 상승세에 대한 책임의 절반은 인간에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밀턴은 그의 저서 <인류세>에서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기상사태는] 더 이상 순수하게 자연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재확인한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한 가지 사실이 확실해진다; 즉, 제임스가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을 ‘불행’의 피해자로 치부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자 소재가 분명한 책임을 무마하려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본 소설 <더 월>의 작가인 란체스터가 제임스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독자에게 비판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하나의 인간상이다; 그리고 해밀턴에 따르면 세계를 가짐은 인간의 필요조건이므로, 이 인간상에 대해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것에 수반되는 세계관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임스가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자: ‘우리’와 ‘상대,’ ‘영웅,’ ‘승리’- 이것만으로도 그의 세계를 구성하는 범주를 일별할 수 있다.

‘우리’와 ‘상대’-원문으로는 ‘Others’이다; ‘상대’는 적극적인 양자대립의 느낌을 주는 반면, ‘Others’는 포함-배제 관계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의 분리는 폐쇄주의 수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그리고 이 분리는 여기서는 “불행의 시련을 견뎌내고 승리한 우리, 그리고 그와 달리 실패한 타자”로 나타난다. “우리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뿐”이라는 태도는 ‘운명과도 같은 전지구적 시련’이라는 세계관-구성계기에 의해 뒷받침된다. 여기서 ‘불행’과 ‘운명’이라는 표현은 극단적 기상현상에서부터 인간의 무절제한 화석연료 사용으로까지 소급되는 인과- 및 책임관계의 단절에 일조한다. 자율적 행위와 필연지사 사이를 가르는 선이

24) Brown, O. 2008: Migration and Climate Change.

확고할수록, 이 불편한 책임관계를 후자의 영역에 단단히 걸쳐 두는 한편 전자의 영역에 ‘영웅’과 ‘승리’를 위한 자리 또한 확보하기 용이하므로, 행위성(agency)를 갈망하면서도 ‘회피하고 부인하는’ 인간의 특성은 필연-자유 구조에의 기생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소설의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점에서의 지도층에게 온전히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되며, 이 부분은 아쉽게도 소설에서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다고 느낀다. 소설의 시점은 “대격변,” 즉 기후 변화가 티핑 포인트를 넘게 되어 발생한 막대하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이후이고, 따라서 기후 변화의 저지와 적응을 위한 비용은 대격변 이전보다 매우 높을 것이므로, 여기서 전지구적 책임의 회피로의 유인은 현재보다 훨씬 클 것이다.²⁵⁾ 이것은 양심을 거스르는 최악의 문제이기보다는 전 세대로부터 떠넘겨 받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빠져나오기 어려워지는 딜레마의 상황이다. 물론 이는 불공정한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딜레마가 책임을 말소하지는 않는다. 상황이 이렇기에 란체스터는 이 소설이 “어쩌면 디스토피아보다도 더욱 암울”하다고 설명한다.

란체스터는 이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바로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일들을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듯이” 써낸 것이라고 말한다. 이 소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독자로 하여금 성찰하도록 하는 것은 소설 내에 있지 않고 그 배경에 있다. 소설 내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비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피에 가까운 자기정당화일 뿐이지만, 작가가 진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상술한 것과 같은 딜레마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얼버무리는 것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다.

그렇기에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언가 사실이 아니기를 원하는 것과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 마냥 행동하는 것은 두 가지의 다른 것이다.” 물론 우리는 책임 관계를 원치 않을 수 있다: 상술했듯 그것은 인간의 부인할 수 없는 특성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것을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 자주 잊고는 한다. 그것을 붙잡아야 할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바로 지금인데도 말이다. 한계 지어진 세계에 경도된 우리는 의무와 욕망 간의 양립 불가능한 모순을 목격한다. 하지만 지금 문제되는 것은 그런 대립이 아니다. 되려 누군가 정언명령의 환상에서 벗어나 일견 견고한 기반을 부수어 집요한 연관관계를 끝까지 되짚어 추적한다면, 그는 지구에 뿌리내린 ‘인간이라는 식물’-그리고 이 식물은 이제 자신의 뿌리로 지구를 단단히 휘어잡아 균열을 일으킬 정도로 거대하고 강력하게 자라났다-의 전체를 비로소 포착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그 뿌리와 지구의 접점에서 발원하는 견고한 가언명령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유리되고 소외된(alienated)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분리 불가능한 직접적인 의무이며, 지구와의 공존을 위한 필요에 근거한 의무이다. 그리고 그 근원적 의무는 우리가 이제껏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언제나 있었고, 또 언제나 있을 것이며, 바로 지금도, 어디에선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25) 자국주의로의 유인에 대해 또 하나의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2016년 영국의 EU탈퇴 국민투표 관련 연구에서 확인되었듯, 국내로의 유입인구 증가세가 급격할수록 국경을 닫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후 변화로 인한 인구 이동의 흐름이 거대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이민자 감정을 이용한 포퓰리즘에 기댄, 자국주의적 성향을 띠는 정치인들이 힘을 얻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II.

- Hamilton, Clive. (2018). **인류세** (정서진 역). 서울: 이상북스 (원서출판 2017)
- Jonas, Hans. (2005). **기술 의학 윤리** (이유탉 역). 서울: 솔 (원서출판 1987)

III.

- Hamilton, Clive. (2018). **인류세** (정서진 역). 서울: 이상북스 (원서출판 2017)

IV.

-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ore Writing Team, R.K. Pachauri and L.A. Meyer (eds.)]. IPCC, Geneva, Switzerland, 151pp.
- Hamilton, Clive. (2018). **인류세** (정서진 역). 서울: 이상북스 (원서출판 2017)
- Brown, O. 2008: Migration and Climate Change. IOM Migration Research Series, paper no.31, www.iom.int

매일

의

불

시

착

0. 들어가며

풀은 불에 의해 사라지고, 불은 물에 의해 사라진다. 그렇다면 무엇이 물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불이 물에 의해 소멸되는 것과 달리 물은 어느 것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른 것이 아닌 물로 인해 세계의 종말이 도래할 것이라고 설정한 『물에 잠긴 세계』의 저자 J.G.밸러드의 의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물에 잠긴 세계』에서는 ‘물이 잠수복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면서, 몸 안의 혈류와 거대 양막 사이의 장벽이 사라져 갔다’는 표현으로 물에 흡수되는 케런즈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물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다. J.G.밸러드는 이러한 물의 위엄을 통해 인간이 기후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이제는 인간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한다.

‘물의 불시착’은 2150년에 인간이 예상치 못했던 환경 변화가 나타나 세계가 물에 잠긴 것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물이 세계에 불시착 했다는 의미를 담는다. 우리는 불시착한 물의 의미를 제고하고 각각 인간중심주의, 신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어스테크의 관점에서 물로 인해 변화된 상황의 심각성과 그 상황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물에 잠긴 세계』조
(조장) 이나연
(표지디자인)
유은빈
이채원
이하준

발행일자: 2022년 5월 27일

1. 개인의 실존과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

이채원

‘물에 잠긴 세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편적인 세상과는 동떨어진 세계이다. 먼 미래 기후 문제로 인하여 도래한 세상인 물에 잠긴 세계 안에 살아가는 케런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문제는 인식하지 못한 채 물에 잠긴 세계에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물에 잠긴 세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남쪽으로 향하고자 하기까지 한다. (물에 잠긴 세계, 15.태양의 낙원 에피소드에서 케런즈가 석호를 떠나 남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필자는 물에 잠긴 세계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고자하는 케런즈의 모습에서 주체적으로 의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후 문제와 인간 사이의 상관 관계에 관심을 두고 케런즈의 행동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케런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무의식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무기력한 인물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다.

의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케런즈의 삶을 실존주의 철학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실존주의는 보편의 틀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철학이다. ‘물에 잠긴 세계’는 보편에서 벗어난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물이 빠진 세계가 도래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물에 잠긴 세계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케런즈는 보편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물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책의 앞 부분에서 케런즈는 물에 잠긴 세계가 도래하기 전, 규칙에 얽매어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했던 인물로 묘사되는데 물에 잠긴 세계가 도래한 후엔 별다른 억압 없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에서 케런즈는 물에 잠긴 세계에서 비로소 케런즈 자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에 잠기지 않은 세계에서 세상이 요구하는대로 살아가던 케런즈는 물에 잠긴 세계에서 ‘나’ 자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이 된 것이다. 따라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사르트르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본질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기에 개인은 완전히 자유로운 입장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케런즈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물에 잠긴 세계에서 삶을 계속 살아가기가 힘들어지자 남쪽으로 향하는 케런즈의 모습도 끝까지 자신이 살고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하는, 의식적인 삶을 사는 인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케런즈의 모습은 물에 잠기지 않은 보편적인 세계의 도래를 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즉 케런즈는 보편적인 세상의 틀에 맞추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로 살아가는 인물인 것이다. 따라서 케런즈는 다양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강조한 보편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적인 실존의 입장에서 바라본 케런즈의 삶은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삶으로 볼 수 있지만, 지구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케런즈는 인간중심주의적으로 살아가는 무의식적인 존재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선 물에 잠긴 세계라는 보편적이지 못한 세계가 도래한 주된 이유가 무엇일지에 관해 생각해보아야한다.

‘물에 잠긴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이상 기후 현상의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 이 책의 배경이 2150년이기에, 인간의 활동이 지구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자연에 혼란을 가져온 시기로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당장 2022년 현재만 생각해보아도 이미 인간이 주관한 수많은 기술의 개발과 발전으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글의 작가인 J.G. 벨러드 역시 2150년을 책의 배경으로 삼고, 지구의 기온이 60도까지 올라가는 이상 기후를 설정한 것은 인간과 물에 잠긴 세계라는 세상의 도래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문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과 관련하여 ‘신인간중심주의’라는 클라이브 해밀턴이 제안한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신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어느 시기보다 큰 힘을 갖게 된 것을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연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관점이다. (인류세 91p, “인간은 스스로를 자연으로부터 분리시켜 그 위에 군림하려는 근대의 꿈을 실현할 수 없는 비극적 인물이자 핵심 행위자가 된 것이다.”) 인간은 지금까지 자연을 사용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자연 시스템을 비롯해 다른 생물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하지만 책에서 나타나는 케런츠의 행동은 전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볼 수 없다. 케런츠는 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저 물에 잠긴 세계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모습만을 보일 뿐이다. 또한 이 책에서 ‘물에 잠긴 세계’라는 문제가 왜 도래하였는가와 관련한 이유는 다루지 않고, 그러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을 통해 다양한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류세 93p에서는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에 대해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고 주장한 것처럼, 인간이 ‘목적론적’으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스트랭맨이 ‘물에 잠긴 세계’를 이용하여 그 세상의 절대자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서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이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간중심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하지만 물에 잠긴 세계는 인간이 제어하기 어려운 세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즉 인간이 자연의 우위라고 바라보는 데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물에 잠긴 세계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닌 자연과 동등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작가는 케런츠가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중심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었다.

기후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의 문제는 분명히 인간과 관련이 돼 있다. 신인간중심주의의 입장에 입각하여 많은 생물 중 의식과 주체성을 가진 생명체는 오직 인간이기에, 지구시스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이다. 인간이 진정으로 주체성을 갖고 실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지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구 환경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한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점을 깨닫고 자연을 존중하며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적, 즉 신인간중심주의적 입장을 갖기를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즉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실존적으로 살아내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실존적인 삶을 맹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인간과 관련한 자연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구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을 먼저 생각해보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2. 물에 잠긴 세계의 위버멘쉬?

유은빈

“가장 근심이 많은 자는 오늘날 이렇게 묻는다. “인간은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가?” 하지만 차라투스트라라는 유일한 자이자 최초인 자로서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극복될 수 있는가?”” 26)

J. G. 발라드의 소설 ‘물에 잠긴 세계’의 주인공 로버트 케런즈는 이 질문을 충실하게 던지는 인물로 보인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극복될 수 있는가?” 기후의 변화로 물에 잠겨 멸망해 가는 세계에서, 케런즈는 인간종의 ‘보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는 리스 대령처럼 구시대의 질서를 지키거나 복원하려고 하지도, 스트랭맨처럼 이 상황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활용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는 물을 빼낸 석호의 독을 폭발시켜 물을 채우고,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어코 남쪽으로 향하면서 두 행동 모두와 선을 긋는다. 이런 그의 모습을 소설은 ‘제2의 아담’이라고 말한다.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어 남쪽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은 프리드리히 니체가 ‘오직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 사유하고 실천하며 매 순간 자기 실존의 변화를 실현하는 건강한 몸의 존재’²⁷⁾ 라고 정의내린 위버멘쉬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케런즈는 물에 잠긴 세계의 초인(위버멘쉬)일까?

케런즈의 초인 여부를 묻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이 책의 세계멸망에서 ‘인간의 힘’은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소설에서 인간의 힘이 작용해 세상이 멸망한다. ‘인간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²⁸⁾을 인정해 인간의 힘이 자연환경에 균열을 일으킬 정도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반면 ‘물에 잠긴 세계’는 인간과 무관한 우주적 변화에 의해 돌연변이를 겪는 생태시스템과 이상기후를 묘사한다.²⁹⁾ 인간은 물에 잠기는 도시에서 간신히 도망치기만 하는 등, 철저히 무력하다.(무기력) 이는 클라이브 해밀턴이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해 말했던 바와 일치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이 가진 힘을 부정하는데, 이것은 인간에게서 행위성을 박탈해 자연계 전체에 부여하는 존재론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³⁰⁾ 후덥지근한 환경과 사람들이 꾸는 꿈(고생대의 석호에 서 있는 꿈)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사람들은 행위성을 박탈당하고 비인간 존재가 행위성을 가지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하드먼 중위의 도주다. 그는 계속 석호의 꿈을 꾸다가 결국 남쪽으로 도주한다. 상황이 이렇듯, 케런즈는 과연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 사유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일단 ‘자기 자신의 힘’이란 부분에서부터 걸린다. 케런즈는 과연 자신의 힘(의지)로 이 모든 행동(석호에 남고, 독을 폭발시키고, 남쪽으로 가는 것)을 결정했는가? 겉으로 본다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먼저 석호에 남기로 결정한 것은 그의 연인인 비어트리스 때문이다. 연인을 위한 케런즈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도 전적으로 그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다.

“케런즈는 막스 에른스트의 그림에 그려진 태양을 바라보았다. (...) 막연히 어떤 기억이 떠오를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들을 고대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비추는 이미지. 그 이미지가 주는 느낌은 베토벤의 곡보다 훨씬 강력했다.” (『물에 잠긴 세계』 53쪽)

26) 프리드리히 니체, 백승영 역 『차라투스트라라는 이렇게 말했다』 p.564

27) 이상범, ‘위버멘쉬와 그의 건강의 실존적 조건’, 『철학연구』 제150집 p.151

28) 클라이브 해밀턴, 정서진 역 『인류세』 p.39

29) 복도훈, ‘역사의 기후변화와 인간 종의 변이 - J. G. 발라드의 파국 삼부작 읽기’, 『외국문학연구』 55호 p.107

30) 해밀턴, 『인류세』 p.148

케런즈의 결정 전에 나오는 이 장면은 그가 이미 어느 정도 “총체적인 생체심리학적 기억”(책 143쪽)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암시한다. 후에 그가 꾸는 석호에서 있는 꿈은 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작중에서 바드킨 박사는 이에 대해 생태계가 트리아스기로 회귀하면서 “모든 염색체와 유전자에 새겨진 시간 부호”(책 81쪽), 즉 “수백만 년 된 고대의 유기체적 기억”(책 142쪽)이 다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작품이 진행될수록 케런즈는 이 힘에 더욱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는 천천히 고생대의 환경에 잠겨 살아가게 되며 곧 이어 그것에 도취한다. 이는 석호의 독을 다이내마이트로 폭발시키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것으로 석호는 고생대 호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케런즈는 남쪽으로 향한다. 작중에서는 케런즈가 왜 남쪽으로 가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마지막에 간략하게 나올 뿐이다.

“(…) 그는 남쪽의 석호들을 향해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재탄생한 태양이 존재하는, 오래전에 잊힌 낙원을 찾아가는 제2의 아담이기에.” (책 348쪽)

여기서 “재탄생한 태양이 존재하는, 오래전에 잊힌 낙원”이란 자연환경의 변화로 고생대 생태계로 회귀한 세상을 말한다. 원래 케런즈가 머물렀던 석호는 스트렝맨과 그의 부하들 때문에 망가졌다. 그래서 그는 석호를 원상태로 회복시킨 후에 남쪽으로 떠난다. 그의 ‘낙원’을 찾아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고생대로 회귀한 남쪽을 ‘낙원’으로 여긴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책은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책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진화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것을 환각적으로 경험하는 “총체적인 생체심리학적 기억”(143쪽)의 작용”³¹⁾뿐이다. 심지어 케런즈가 그런 이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는다. 치열한 고민과 특별한 이유 없이 내린 결정을 주체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는가?

또한 케런즈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니체의 ‘위버멘쉬’와 반대된다. 니체는 행복을 ‘자신의 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과 행위’³²⁾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케런즈는 자신의 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창조하려고 하지 않는다. 석호에 남은 그는 “나른하고 무기력한” 생활을 보내며 “밀림의 고요한 세상 속으로 점점 깊게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결국 그는 ‘총체적인 생체심리학적 기억’이란 힘에 의해 남쪽으로 향한다. 이 과정에서 케런즈는 자신의 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창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다. 그가 하는 것은 점점 더 깊숙이 ‘생체심리학적 기억’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일 뿐이었다. 여기엔 ‘자신의 힘을 통해’하는 것이 없다. 일견 주체적으로 보이는 그의 행동들은 사실 신경세포 깊은 곳에 잠재되어있는 ‘총체적인 생체심리학적 기억’에 항복해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에 불과하다.

분명 케런즈의 행동들은 “삶의 본질과 성격을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을 의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남쪽으로 계속 간다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한다. 이는 니체가 말하는 ‘삶을 긍정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³⁾ 그러나 케런즈가 위버멘쉬가 되는 데엔 심각한 결함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케런즈를 움직이는 동력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힘이나 의지가 아닌 환경변화로 활성화된 “총체적인 생체심리학적 기억”이다. 바로 이 점이 케런즈를 ‘위버멘쉬’가 아닌 평범한 인간으로 만든다.

31) 복도훈, ‘역사의 기후변화와 인간 종의 변이 - J. G. 발라드의 파국 삼부작 읽기’, 『외국문학연구』 55호 p.112

32) 이상범, ‘위버멘쉬와 그의 건강의 실존적 조건’, 『철학연구』 제150집 p.153

33) 김주휘, ‘니체에게서 삶의 긍정 및 구원Erlösung과 위버멘쉬Übermensch’, 『철학연구』 제131집 p.80

3. 대지에 대한 인간의 오만함

이하준

누군가 말한다. 대지란 물, 흙, 불, 등 모든 것을 포괄하고, 무생물뿐만 아니라 생물을 순환하며 흐르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필자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한다. 대지는 생명체를 온전한 생명체로 만들어주며, 지구를 구성하고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하고 감사한 존재다. 그렇다면 철학자 레오폴드의 주장처럼 여성의 도덕적 지위가 인정받지 않던 세상에서 여성의 도덕적 지위가 인정받는 세상으로 변한 것과 같이 대지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가?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해 소설 ‘물에 잠긴 세계’를 바탕으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앞서 말한 소설의 작가 J.G벨러드는 지구의 대변화; 종말위기에 처한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시리즈로 제시했다. 그 중 ‘물에 잠긴 세계’는 (‘불타버린 세계’와 같이 행위자인 인간에 의한 종말위기가 아닌) 지구의 외적 요소인 태양온난화, 태양폭풍에 의해 지구가 종말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모티프를 제시한다. 인간의 행위적 문제와 잘못으로 인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후관련 서적들, 전문가들의 입장과 달리 인간 외적 요소, 우주적 차원의 문제로 지구에 종말이 초래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작가가 설정한 배경에 대해 “**인간의 무력함을 극대화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다. 인간의 추측과 행위로 태양의 변화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저 종말의 시간 속에서 적응의 단계를 거쳐 재탄생 하거나** (책에 제시된 내용에서 알 수 있으나 예를 들면, 토사가 쌓여 수면위로 올라온 곳에 숲이 조성되었다거나, 문명화 되었던 지역이 견고한 밀림으로 탄생하였다는 점을 보면 확인 할 수 있다.- p32~33) **죽음을 맞이할 뿐이다. 또** 한편으로 필자는 작가의 의도가 “어떠한 지구의 자기조절 시스템이 존재해 파괴와 재생성을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다. 지구, 아니 그 너머 우주가 (티마이오스 대화편에서 플라톤이 제시한 지구의 개념과 같이) 모든 다른 살아있는 피조물들이 발생론적으로 일부를 이루는 단일 거대 생명체여서, 인간의 오만함과 이기적인 환경파괴에 분노한 나머지 파괴와 재생성을 이루기 위한 것처럼 말이다. 배경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대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작가는 인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스트랭맨이 그의 부하들을 통해 특정 석호의 물을 전부 밖으로 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결국 인류는 거대한 자연 앞의 미물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에 잠긴 세계’의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전자와 진화에 대한 작가의 전제는 신선한 충격과 함께 자연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할 수 있게 한다. 등장인물들은 태양의 열기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환각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며, 결국에는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수반한 채 남쪽으로 떠나게 된다. 남쪽은 죽음을 상징하는 동시에 환각증상을 통해 알 수 없어 답답했던 심정을 풀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존재로 상징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케런즈와 하드먼, 비어트리스 달을 비롯해 많은 등장인물이 공통적으로 겪는 이 환각증상이다. 작가는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환각증상을 생체심리학적 기억, 수백만 년 전 세포질에 저장된 본능적 유발기작, 과거로의 회귀 등의 단어로 표현한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익숙한 느낌의 이 거대한 태양, 북소리, 진동의 환각증상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고대의 기억이 태양의 열기로 인해 다시 회상하게 된 점, 그 기억이 마치 살아있는 듯이 각 등장인물들을 괴롭게 하며, 남쪽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물? 혹은 태양의 열기?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그 시작에서부터 인간은 진화를 거듭해 왔으나 이제 다시 역진화를 통해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화와 역진화, 유전자를 바

탕으로 하는 소설의 배경은 진화론적 관점, 창조론적 관점을 떠나 인간이 자연에서 나타났으며 자연에 의해 소멸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인간의 질료적 측면과 자연에 대한 고찰은 자연의 정복자적 행세를 자처하던 인간은 결국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자연, 대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태양과 물, 대지가 인간과 자연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지하지 않고 변화한다면, 우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대지의 변화에 의해 몇몇 종과 인간이 종말 위기에 처하게 된 책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불가능하다. 인간다움의 기준을 정립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대지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필자는 대지에 대한 레오폴드의 입장에 어느 부분 동의 한다. 지구의 자기조절 시스템 작동 여부를 떠나, 대지의 중요성과 영향력의 입장에서 생물체에서 무생물까지. 또 생태계 전체까지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라는 레오폴드의 주장과 이에 따라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와 보존을 각 개체의 생존권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는 레오폴드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물에 잠긴 세계와 같이 생태계라는 것은 지구 외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 그러한 작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화하는 지구세계 속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던 등장인물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듯, 인간은 생태계에 개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근시적인지 원시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온전성 통합성 안전성과, 이외에도 아름다움과 같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면 생태계의 유기적 관계와 보존을 위해 인간은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에 잠긴 세계'를 읽은 뒤 대지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필자의 관점은 인간이 감히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 속 미물인 인간이 자연을 도덕적으로 어떠한 자리에 위치시킨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캐런즈를 비롯한 등장인물은 죽음이 기다리는 남쪽으로 태양에 대한 호기심의 여정을 이어나간다. 또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익숙한 느낌의 유전자적 상태를 찾길 원한다. 이처럼 물에 잠긴 후 꿈을 매개로 존재론적 의구심을 이어나가는 몇몇 등장인물을 통해 생태계의 종말과 재생성 가운데 인간이 자연과 분리 될 수 있는가? 자연으로부터 자연에 속한 존재가 아닌가? 로 이어져 자연 속 인간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4. 물에 잠길 것인가, 헤엄쳐 나갈 것인가

이나연

“바다에서 발견한 플라스틱의 변신”, “미생물, 인류를 보존할 히든카드”. 모두 어스테크 (Earth Tech)를 충분히 표현해주는 말들이다. 그렇다면 어스테크 (Earth Tech)는 과연 무엇일까?

어스테크 (Earth Tech)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인간중심주의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인간중심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우선시하는 관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칸트, 데카르트 등이 이를 지지하는 사상가들이며 이들 중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갖는다고 말한다. 또 하위 존재의 목적은 상위 존재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이 인간을 위해 식물과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한 아퀴나스 역시 인간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이어받아 인간이 인간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신의 섭리로서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어스테크 (Earth Tech)는 위에서 설명한 인간중심주의의 일환으로, ‘인공 지구’, ‘생각하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스테크 (Earth Tech) 사상에 뜻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병한 저자의 『어스테크, 지구가 허락할 때까지』 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책에 의하면 인간들은 발명과 창조로 인공적인 사물들을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인공적인 생각도 작동시키게 하며, 만물의 연결망을 통해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합류하는 ‘생각하는 지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즉, 이제는 인간이 우주와 지구, 생명과 만물의 진화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나가는 ‘인공 지구’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책의 위 구절은 인간이 삶의 주체로서 인간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연을 정복하여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것 또한 내포하고 있다.

어스테크 (Earth Tech)의 핵심 내용인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하여 생태 문명을 이루고 기후 위기 문제를 극복해가자는 내용은 『인류세』의 저자 해밀턴의 주장과는 상반됨을 알 수 있다. 해밀턴에 따르면 인간은 지질에 변화를 가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구와 인간의 관계를 새로 정의해야 한다. 인간은 이 힘을 단일한 개체로서의 인간들의 집합, 즉 해밀턴이 부르는 ‘인류’만을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힘이 성장한 만큼 지구도 그 영향력을 키워왔으므로 인간의 자유가 자연에 매여 있어, 자연이 곧 인류의 한계이기 때문에 인류는 힘에 책임감을 느끼고 자연의 지배적 개체로서 그들이 속한 지구 시스템을 돌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밀턴의 이러한 주장은 어스테크 (Earth Tech)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밀턴은 인간들은 단일 개체로서의 인류가 되어 “새로운 유형의 지구에서 핵심 행위자”가 되고 이 행위자는 지구에 매여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인류가 할 일은 지구에 대한 지배권이 없음을 인식하고 인류세 전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연 정복과 자연 이용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인간이 자연과 연결 관계가 아닌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관계에 놓여있다고 보는 어스테크 (Earth Tech)의 입장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연결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자연에게 지배당하는 인간’으로 보는 해밀턴의 주장이 반박할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밀턴의 주장은 『물에 잠긴 세계』의 주인공인 케런즈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 『물에 잠긴 세계』의 저자 J.G.벨러드는 불도 크리스탈도 아닌 어느 것도 저항할 수 없는 물에 잠긴 세계라는 극한의 위기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위기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주인공 케런즈를 물에 잠긴 세계에 잠식당하는 인물로 설정함으로써 '자연에게 지배당하는 인간'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케런즈의 캐릭터는 어스테크 (Earth Tech)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을 기술력과 결합시켜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과는 분명히 대비되며, 어스테크 (Earth Tech)의 입장에서는 케런즈를 나약한 인물로, 심지어는 '자연을 정복할 능력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자연에 정복당할 수 있지?', 라는 생각까지 하게 하는 인물인 것이다.

“물이 잠수복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면서, 몸 안의 혈류와 거대 양막 사이의 장벽이 사라져갔다. 깊고 깊은 토사의 요람이 커다란 태반처럼 그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지금껏 누워본 어떤 침대 보다 아늑하고 부드러웠다. 마침내 그 빛마저 흐려지자, 그는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의식하게 되었다.” (p 216-217)

기후 위기 상황은 현 시대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인간은 기후 위기 상황을 예측하고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예측한 위기를 극복하고 특히 어스테크 (Earth Tech) 의 입장에서 자연을 이용한 더 나아가 자연을 정복하면서 오직 '인간을 위하여' 라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바탕으로 '인공 지구', '생태 프로젝트'를 주체적으로 가꾸어 나가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어스테크 (Earth Tech)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목적론적 세계관은 현대 사회, 더군다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에서 의의를 지니며 이 점에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며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강조하는 어스테크(Earth Tech)의 입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물에 잠긴 세계』는 물에 잠긴 남쪽이라는 극한 상황, 그곳에 가려하는 케런즈를 통해 독자로서 하여금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과 체념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려는 주인공을 통해 '나라면 이렇게 했을 거 같다' 와 같은 깊은 고찰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 필자 또한 책을 읽고 당연히 위기를 극복하고 물에 잠긴 세계에서 벗어나는 결말을 예상했으나 작가가 이와 상반되는 결말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더 상황에 대한 몰입과 함께 어스테크(Earth Tech) 의 입장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에서의 인간의 능력, 역할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인간의 위대함과 위기의 대상인 자연을 해결책의 근본으로 삼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할 수 있었고 현 시대에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가 바로 어스테크에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인건. (2019). 신인간중심주의로 조명한 인류세 논의. 과학기술학연구, 19(1), 182-199.
이병한, 『어스테크, 지구가 허락할 때까지』

패션 환경 패션 자본

Fashion

Passion



<솔라>를 읽고

조현성(조장), 문정원, 박영채 (Design by 박영채)

1. 문학 - 패션(fashion) 환경보호, 패션(passion) 자본주의

박영채

문학은 느리게 찍히는 사진이다. 심지어 사진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문학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완성된 작품은 그 시대를 훤히 보여주는 사진이자 증거로 남는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솔라(SOLAR: 태양의)’는 우리 시대 그 자체를 과감히 찍어낸 사진 작품이다.

‘솔라’ 이전에 나온 작품들이 그러하듯, 이언 매큐언은 이번 작품에서도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확실하다. ‘인간의 양면성’이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가 알고 봤더니 외도로 4번이나 이혼을 당했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살인 누명을 씌우기까지 했다면? 그리고 죽은 연구원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꾸며서 사회로 들고 나가 유명세를 타고 돈까지 번다면? 비호감도 이런 비호감이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양면성을 풍자하기 위해 이용된 캐릭터는 비단 주인공뿐만이 아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에 관심 있는 예술가와 과학자 무리가 북극에 파견단으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는 에피소드를 돌아보면, 그 ‘깨달음’을 위해 이루어진 여행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지구를 구하겠다는 엄청난 의지를 가진 이들이 공용 탈의실에서 자신의 소지품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은 독자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자아내게 만든다. 이 외에도 노벨상이라는 타이틀에 따라오는 허상들,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연구비를 타는 업계의 관행,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의 기세만 등등한 논점 잃은 토론 등 이 모든 에피소드를 통해 작가는 인간의 양면성을 드러내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비호감의 캐릭터를 보며 비웃고 욕을 하는 독자들에게 작가는 이어지는 글로 묻는다. “당신에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인간은 입체적인 존재이다. 고로 캐릭터로 풍자된 수많은 ‘양면성’ 중 하나도 해당되어 본 적 없다면 ‘탈(脫)인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풍자 속에서도 독자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주인공 캐릭터의 태세전환이다. 비어드(주인공)는 생태 문제로 인해 종말이 올 것이란 주장에 ‘구약성서의 악성종기나 개구리 재앙을 연상시키는 경고는 수 세기 동안 인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전해내려온, 자신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믿으려는 성향에서 비롯된다. 세상의 종말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 자신의 죽음도 납득할 만한 것, 최소한 조금이라도 의미있는 것으로 여겨질 테니까. (33p)’라며 종말은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실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벌어들일 수 있을지 고민한다. 1부에서 보여지는 비어드는 생태 문제나 종말론보다 자신의 삶과 만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스토리가 전개될수록 무시해오던 생태 문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이런 자신의 본심을 감추고 사람들 앞에 서서 죽은 연구원의 이론과 심각한 생태 문제를 거론하며 굉장한 에코테크네 입장의 환경보호가로 둔갑한다. 그러면서 ‘세상은 안전한 새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고 그는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구원받을 수 있었다. 빛이 있으라! (231p)’라며 자신의 무기력한 현실을 합리화한다. 이후 학자들이 모인 행사장에서 죽은 연구원의 이론을 펼치며 투자를 이끌어낸다. 그의 이론에 회의를 갖는 이들을 보며 그는 기후학자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잇속만 챙기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자신’은 이제 막 변했으며, 그들에게 경멸을 느낀다는 감상을 남겼다. 생태문제에 순수하게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자신’에 심취한 모습은 가히 진심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물론 그의 진심은 돈이지만. 죽은 연구원의 이론을 훔쳐 자신의 이익을 챙긴 그는 결국 동업자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고민한다.

그에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심화된 현대인들의 책임회피 성향이 특히 짙게 드러나는데, 그는 소설이 마지막 장을 보일 때까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언 매큐언이 제공하는 비어드의 삶에선 진정한 ‘문제해결’을 찾아볼 수 없다. 이쯤에서 독자는 작가의 의도대로 충실히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의 삶이 비어드와 다를 바 있는가?”

이언 매큐언은 비전문가로서 과학적 수치나 이론 등을 무시하고 생태 문제를 논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다른 생태문학에 비해 ‘솔라’는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물리학 이론이 남발되어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독자들만큼이나 전문 이론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학자는 글에 등장하지 않는다. 알아듣기도 어려운 이론은 청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럴 듯 하다’란 인식을 주기 위해 ‘이용’당한다. 이론이 주장에 적합한지 혹은 더 나은 것이 있을지를 순수하게 고민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다.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심리로 괜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전문용어를 남발하며 아는 척하는 이들은 어디에나 있다.

이언 매큐언은 겉보기 차분하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을 글로써 표현하는데 재능이 있다. 하지만 이런 특유 필체의 매력은 번역을 거치며 반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학을 번역한다는 것은 번역가에게 상당한 책임이 가는 일이다. 문학은 언어 ‘표현’을 사용한 예술이고, 예술은 감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사유하도록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번역가가 원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해당 국가의 슬랭(Slang)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원어를 최대한 그대로 번역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문을 모르는 독자들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솔라’의 경우, 번역가가 원문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글을 읽는 내내 소설이라기보다 수능영어 해설본을 읽는 것 같은, 분명한글로 쓰여있지만 그 한글을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정리해 곱씹어야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민승남 번역가가 담당한 또 다른 도서인 ‘인도로 가는 길(E.M.포스터 저)’에서도 밝혔듯 ‘매끄럽고 쉽게 읽히는 번역보다 원작의 의미와 뉘앙스를 충실하게 옮겨 놓는 정확한 번역’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솔라’는 풍자를 통한 블랙코미디라는 재미요소를 갖춰놓고도 대중들에게 쉽게 술술 읽히지 못한다는 진입장벽을 치게 되었다.

또 하나의 진입장벽으로는 ‘솔라’라는 소설의 주인공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 특히나 주인공은 소설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인공의 성격과 가치관 빌드업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언 매큐언이 풍자로 다루고 싶은 이슈가 너무 많은 나머지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비어드’라는 인물에만 집중시키는 게 소설의 모든 내용을 차지해버렸다. 물론 ‘솔라’를 통해 인간의 양면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게 주 의도지만, 그와 동시에 생태 문제도 다루려는 계획이었다면 비어드의 ‘캐릭터성’을 지금보단 라이트하게 잡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의 비어드는 가질 수 있는 모든 비호감적 요소를 두루 갖춘 ‘광대’로 극대화되었고, 이는 작가가 다루고자 했던 생태 문제를 가리는 장막이 되었다.

하지만 생태 문제는 결국 ‘인간의 양면성’과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기에 생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인간성’에 대해서도 응당 다뤄야 한다.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피해를 다룬 작품은 이미 만연하기 때문에 ‘솔라’처럼 인간성에 대해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드는 작품이 더 가치 있을 것이란 감상은 남는다.

2. 정치 - 솔라와 정치

문정원

소설가와 정치는 어떤 관계인가? 소설가와 정치의 공통점. '승리한 자만 기억된다.' 거대 프랜차이즈 대형 서점 맨 앞줄에 걸려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와 총선을 압승한 거대 여당의 엘리트 당 대표 그리고 이름 하나 알려지지 않은 무명 작가와 선거에서 저 초라한 은퇴를 맞은 정치인. 판매 부수와 투표수. 얼마나 잔인하면서도 명료한 숫자인가. 이렇듯 소설가와 정치는 '영향력'으로 판단 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소설 솔로의 작가 '이언 매규언'은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이제 그림 작가의 정치활동에 대해 알아보겠다.

작가의 정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작가의 책 즉 작품 안의 정치와 작품 밖 즉 작가의 대외적 정치 활동으로 말이다. 작가의 영향력에 따라 정치적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어떠한 반향도 일으키지 못하기도 한다. 솔라의 작가 이언 매규언은 베스트 셀러 작가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작가이다. 이러한 작가들은 책 한권을 발매할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들은 줄을 선다. 평론가들의 평론과 일반 독자들의 서평은 쏟아지며 신문에까지 실린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신간 자체가 정치인 셈이다. 즉 베스트셀러 작가는 책을 내는 것 그 자체가 정치 활동이다. 또한 작품 내 메시지를 통해 정치 활동을 하기도 한다. 극 중 솔라의 주인공 비어드는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이지만 은유적으로 부패한 정치인을 상징한다. 비어드는 환경, 기후 문제를 패션으로만 생각한다. 진정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채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비어드는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 기후 위기와 관련한 사업을 하는 인물이다. 기후 위기는 그저 자신의 명성과 금전적 이익 그리고 대중들의 인정을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패션 환경운동가인 것이다. 작가는 비어드를 통해 기후 위기를 정치적 이해 관계로만 바라보는 정치인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세상이 당장 내일 망하는데도 지구는 멀쩡할 거라고 외치는 정치인들과 기후 위기에 관심도 없으면서 기후 위기를 외치는 정치인들. 기후 위기를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이용하는 이들의 목적은 기후가 아닌 더 많은 의석수, 득표율뿐이다. 작가는 기후 위기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위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솔라는 언뜻 봐선 그냥 치정극에 불과한 소설이지 정치, 기후 위기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비어드를 통해 서구 사회의 백인 남성우월주의를 비판하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블랙 코미디 책이다. 굉장히 정치적인 책이라는 것이다. 좋은 문학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불씨는 점점 더 커져 가시화되지 않은 사회 문제를 수면 위로 이끌어준다. 때론 학자들의 담론보다 작가의 책 한 권이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이는 오직 문학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다.

작가(소설가)의 정치 활동은 책 밖에서도 계속된다. 예를 들어 이언 매규언이 책 속에서 비어드를 통해 기후 위기에 무감각한 현대 사회의 부패 정치인을 비판하였다면 작품 외적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세미나를 통해 정치 활동을 펼칠 수도 있다. 영향력을 가진 작가라면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이 집중되고 이를 정치로 연결 지을 수 있다.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 빈자를 위한 정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자신의 정치 생명과 관련한 이해관계에 얽매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나아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작은 목소리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빈자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관심 갖기이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혐오가

극에 달하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에 소수자는 분명히 존재 하는데 막상 밖을 나가면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학은 지워진 존재들을 다시 비춰줄 수 있다. 이것이 문학이 하는 일이다.

이 책의 장점은 비어드라는 입체적이고 자기과신에 빠진 인물을 통해 극사실적인 묘사로 교묘하고 우회적으로 사회 전반의 정치적 흐름과 백인 남성우월주의 나아가 백인 남성 중심 과학계까지 비판하는 블랙코미디라는 점이다. 또한 비어드가 노벨상을 타게 된 과정마저도 정치적 이해 관계로 얽혀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세 후보 말고 비교적 주목을 덜 받은 어린 과학자인 비어드를 선택한 점이 그야말로 “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

책의 단점은 흥미진진한 소재에 비해 책의 전개가 지루하다는 점이다. 450페이지에 육박하는 장편 소설인데 조금 루즈하다. 긴 장편을 끌여가는 동안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실패한 책이다.

마지막으로 솔라에서 모든 것을 잃은 비어드는 아내와 딸을 내버려 두고 다른 여자와 외도를 일삼다 딸의 곁으로 돌아간다. 비어드는 이제 딸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믿어주는 이가 있을까 하고 걱정한다.

“비어드는 딸을 맞이하려고 일어서며 심장에서 무언가 부풀어 오르는 듯 생경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딸을 향해 두 팔을 벌리는데 의문이 들었다. 자신은 사랑인 것처럼 보이려고 해도 이제 믿어주는 사람이 있긴 할까.”

비어드와 같은 FASHION 정치가들은 명심해야 한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도 자기의 말을 믿어 주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을.

3. 철학 - 인간의 환경의식에 대한 지각변동

조현성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환경인식에 지각변동이 일어나야 한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자연을 보는 인간의 인식은 데카르트가 주장한 것으로 유명한 기계론의 입장을 취했다.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세상을 주체와 대상, 그리고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정립하면서 이성을 근거로 자연보다는 인간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의식은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연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관념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 산업혁명으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연은 임의대로 변경되고 착취되었으며 인간은 윤리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발생하게 될 환경문제는 뒤로 미뤄버렸던 것이 사실이다. 인간이 자만하고 무지에 빠져있는 동안 자연은 단순히 수동적인 대상으로 남지 않았다.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산성비, 잦은 화재와 태풍, 미세먼지와 몇 년째 지속되는 봄철 가뭄 등 인간이 알고 있었던 자연체계가 지각변동 되면서 인간의 삶 역시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인간이 정립한 관념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인간은 근대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현대의 우리가 환경 인식에 지각변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헤겔은 ‘엔치클로페디’라는 저서를 통해 “자연은 인간에게 문제로서 주어지며,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한다. 이 문제가 어디에 성립하는지를 아는 것은 오직 인간이므로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인간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필자도 근본적인 문제를 고뇌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 뿐이기에 인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의 환경인식을 비롯하여 많은 부분을 비판한 ‘솔라’라는 도서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솔라의 주인공 비어드는 높은 권위를 지닌 덕분에 그의 말과 행동은 좋은 영향을 미치던, 나쁜 영향을 미치던 간에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다. 높은 권위는 전문성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울일 뿐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없다.

환경 서적인 솔라에서 비어드는 현재까지의 인간, 즉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만 무능력한 인간을 표상한다. 비어드는 여러 문제로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환경문제를 알리고, 대체에너지를 발표하고 태양 전지판이라는 대안을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순간 장밋빛 미래가 보일 듯 하였지만 비어드가 애써 무시하려 했던, 스스로 막아보려고 했던 불안요소와 문제들을 피할 수는 없었다.

소설은 인간의 어리숙하고 무능력하고 이데올로기적인 과거의 생각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그럴듯하게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자연의 힘에 굴복할 수 밖에 없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 해석은 인간의 힘은 그대로지만 자연의 힘이 강해졌다는 생태중심주의적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는 인간 중심주의적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비어드가 실패한 이유는 단지 인간이 무능력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비어드는 환경문제를 연구하면서 대중들에게 환경문제를 일깨워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환경’이라는 소재를 사업모델로 설정하면서 명예욕과 소유욕을 채우려는 의도가 강했다. 이 의도가 생긴 까닭은 주체는 자기 자신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연이라는 대상을 이용해 인간의 이익을 얻겠다는 기계론적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솔라에서는 톰 울더스라는 사람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변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마리도 보여주고 있다. 비어드는 환경문제를 다루면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머

못거리던 반면 톰 울더스의 “비어드 교수님 전 단순한 사람입니다. 지구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싶을 뿐이라고요”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잘못됨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인간과 자연을 위한 일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다. 비어드가 시도하려고 했던 환경 해결책이 톰 울더스의 생각에서 나타났다는 점은 이익을 생각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신인간중심주의’를 주장하는 해밀턴은 더 이상 근대처럼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대상으로 두고 지구시스템(자연)을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인간이 지구를 보살피지 않으면 지구는 풍요로움을 선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 인간의 능력 발휘를 강조했으며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권위는 조금 내려놓고 책임의식을 강화해 다시 지구시스템(자연)을 복원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점은 인간이 권위를 내려놓고 책임의식을 가진다고 생태중심주의적 태도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책임윤리학을 말한 요나스는 “너의 현재 선택에 있어서 인간의 미래적 통합을 네 의지의 공동대상애 포함시켜라”라고 말했다. 현재 인간의 손해는 인간의 다음세대, 조금 더 생각해보면 현재의 나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기에 결과적으로 인간을 위한 투자다. 이런 책임의식이 근대적 사고방식에서 현대적 사고방식으로 지각변동하는 방법이며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현재 인간의 현실을 보면 환경법이 재정 되었고, 시민들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작은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자연은 세계 곳곳에서 훼손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자연을 보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을 생각하는 이미지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기업이나 집단이 있다.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인간의 책임의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연 인간이 이기심을 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최근 들어 전 지구적으로 폭염과 한파, 산성비, 잦은 화재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모든 인간은 위험신호를 인지한 상황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도 많아지고 있다. 세상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움직일 것이며 인간의 이익을 위해 지금의 자신들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책임과 의무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결과는 지구의 지각변동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인간인식의 지각변동이다.

창백한



푸른 짐

<고래도 함께>를 읽고

(C)(LYS)all right reserved

이윤서 (조장), 박서진, 서명원, 서순오

0. 들어가며
<고래도 함께>를 읽고

새로 시작하기

<고래도 함께>는 환경보다도 인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과 달리 고래의 비중은 적습니다. 가끔 가다 한 번 지느러미만 비치고 사라집니다. 마치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 잊고 살다 종이 빨대를 보며 가끔 떠올리는 것처럼요.

‘창백한 푸른 점’이 담긴 사진에 열광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 쓰레기 매립, 경제적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는 셀 수 없이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인간,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를 휩쓸게 한 것 또한 인간입니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다들 자신의 일처럼 나서곤 하지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천성입니다. 이 모든 비극을 만든 원인은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인간입니다. 인간이 자초한 일은 인간이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이전으로 돌려놓기 전까지 그 무엇도 자연에게 바랄 수 없습니다. 바다에게, 산에게, 하천에게, 세상에 그 어떤 혜택도 바라지 마세요.

어쩌면 지금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눈 돌릴 곳이 많은 현대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하고 힘을 쏟아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세요. 말 그대로 ‘창백’해진 지구를 당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도우세요.

땅을 딛고 살아갈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광활한 바다를 유영하는 고래를 위해서.

1. 위험사회 그 반증의 이야기

서명원

독일의 교수인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이 위험사회란 인간의 사회가 점점 근대화가 되고 산업화됨에 따라서 우리의 편익은 나아지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가 멸망할 위험도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그 예시로는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서 우리는 막대한 전기를 얻을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핵폐기물의 위험이 존재하고 자동차로 이동수단이 편리해졌지만 이에 따라서 온실효과 역시 발생한다. 쉽게 말해서 과학의 발전은 양날의 검이라는 이론이다.

하지만 나는 이 이론에 대해서 반론을 해보자 한다. 우리의 기술은 이미 환경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복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왔다. 생물학을 통해 멸종위기의 동물을 구원한다던지 점점 고갈되는 천연자원을 대체할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던지 드론을 통해서 전쟁지역의 구호품을 전달하는 등 우리의 과학기술은 이제 환경을 파괴하고 이용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즉 에코모더니즘을 이야기한다.

에코모더니즘이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인간이 사용하는 공간과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세계의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환경주의 철학이다. 이 같은 에코모더니즘적 움직임은 최근 많이 등장하고 있다.

ESG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즘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를 많이 생각하고 거의 필수덕목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자본과 기술은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이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혁신기술이다. 이제는 인간의 이타주의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만으로는 환경을 보존하기는 힘들다. 고래도 함께라는 책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기본적으로 이기주의적 생각이 있고 그 결과 주인공의 피난처인 세인트 피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현실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타적인 인간들의 영향력이 크게 발휘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해도 국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증가하여 그 상한선을 사고 팔며 제한선을 늘리고 있고 아무리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최근 코로나 사태로 배달이 늘어나 플라스틱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서 내 대응책은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고래도 함께에서도 캐시라는 예측 프로그램이 있기에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언급이 나온다. 이 역시 기술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인간 하나하나의 조그만한 이타심들이 모여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너무나 영향력이 없지만 환경관련 혁신기술은 하나만 발명되어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에코모더니즘적인 사고를 따라가야 한다.

2. 개체가 이루는 세계

서순오

개체중심주의란 무엇인가? “인류세”의 저자 클라이브 해밀턴은 자신이 사용하는 여러 개념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류세의 도래가 어떠한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한다. 여기서 등장한 개념들 중 하나가 “개체중심주의”다. 이 개념은 개체론적 환경윤리로 환원할 수 있다.

피터 싱어나, 톰 레건이나, 폴 테일러는 각자 세세한 방식과 전제는 다르지만, 하나하나의 개체로서 생명체의 도덕적 지위나 권리를 승인하고 이에 따라 도덕적으로 개체를 배려하는 것으로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개체론적 환경윤리의 입장을 띄고 있다. 즉, 개체론적 환경윤리는 환경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개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개체주의의 입장을 고수한다. 개체주의에 따르면, 실재하는 것은 개체뿐이고 전체는 개체들의 단순한 집합이므로 개체들의 합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현실은 개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니 개별적인 것들이 진실이다. “고래도 함께” 책 안에서도 나온 바가 있었던, 라이프니츠의 ‘이보다 더 좋은 세계는 없다.’ 라는 형이상학적 세계관 역시 기본원리를 살펴보면 칭하는 개념만 다를 뿐, 개체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이프니츠 이론에서 개체는 그의 세계관을 증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지금부터 그의 개체주의적 관점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라이프니츠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관심은 “의지의 자유의 가능성”을 확립하는 문제에 있었다. 세계를 해명하고 구성하는 라이프니츠의 존재론적 세계관에서는 오직 ‘모나드’ 즉, 단자만이 실체이다. 실체는 단순하다. 여기서 단순하다 함은 부분들로 합성되어 있지 않기에 분할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체는 보편자가 아니라 수적으로 무한히 많지만 그들 중의 어느 둘도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개체’이다. 그리고 개체의 특수성은 각 단자의 우연적 속성들의 총체에 의해 규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자는 개체적 실체라고 볼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모든 존재의 단순 실체인 이 단자 개념을 기초로 존재론과 인식론 및 신학과 우주론을 서술한다. 라이프니츠는 단자를 그 자체로 완전한 것, 독립된 것으로 보고 단자들끼리 상호간에 아무런 관련도 없으나 신이 예정한 조화 때문에 질서 있는 우주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이른바 ‘예정조화론’이다. 라이프니츠는 이 단자론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이론적 형이상학적 세계와 현재의 세계를 동일시하며, 필연과 자유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한다. 만약 이미 신이 예정된 조화에 의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면, 우리의 자유 의지는 없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세상의 창조자인 신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프니츠는 모든 실체가 내적 구조로서 “욕구”와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체는 그의 모든 우연적 속성들을 현실태로서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연적 속성들은 각 개체에 가능태로서 내제되어 있고, 미래에 현실화될 발전상태를 자신 스스로의 내적 운동에 의해 현실화해 나간다고 본다. 즉 욕구와 지각이라는 내적 활동이 현실화되면서 신이 예정한 최선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라이프니츠는 필연과 자유의 양립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체를 규정하고 개체가 가진 가능성을 전제함으로써 그의 철학을 확립했다.

고래도 함께 줄거리 중, 재미있게도 인간과 사회 요소들을 고래 속 세포와 장기에 비유하는 부분이 있다. 단백질을 생산하고, 번식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조그만 엔진이나 다름없는, 방대하게 많은 몇 천억 개의 세포들이 복잡하고 방대한 조직과 기관을 구성하고, 이들이 고래의 신체를 이룬다. 여기서의 고래 속 세포들은 곧 개체로 비유할 수 있다. 세포, 즉 개체

하나하나가 제 기능을 못 할 때 장기, 즉 생태계 시스템도 그 힘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고래, 즉 전체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 결국 전체는 개체에 의해 만들어졌고, 개체의 존재 여부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는, 단순한 집합일 뿐이라는 것이 고래와 사회의 비유에 대한 개체론적 해석이다. 줄거리 속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붕괴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독감이라는 질병 때문에 공포심에 빠진 개인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업무 능력을 상실한 채 두려움에 떠난다. 때문에 전력 시설이나 여러 분야에서의 기업들 등 크고 작은 사회적 장치들은 하나씩 기능을 잃고 허울뿐인 것이 되어버리며 결국 전체적인 사회적 붕괴로 이어지는데, 이 역시 인과관계 상 '개체의 기능 상실로 인한 전체의 기능 상실', 즉 개체주의에 근거를 마련해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작가는 개체론적 환경윤리에 입각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보는가? 필자는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책 속에서는 개체주의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개체주의의 문제점에 비유되는 것들 역시 함께 대두된다. 책의 결말에서, 사회가 붕괴할 때 이를 해결하는 것은 공동체적 협력이다. 협력 없이 하나의 개체, 특히 주인공 혼자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인식하고 해결하려 했을 때 그 결과는 사실상 실패, 의미 없는 행동에 불과했다. 반면에, 큰 공동체도 아니고 고작 마을 사람들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협력을 통해 직면한 문제에 맞섰을 때, 그 힘은 빛을 발했다. 책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문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개체보다는 여러 개체들이 모여 사회적 협력을 통한 전체의 힘이 강조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작가의 입장은 '개체론적 환경윤리'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개체론적 환경윤리'에 대립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개체론적 환경윤리와 개체주의는 기본적으로 주체와 대상을 나누는 이원론적 모형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런 이원론적 모형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상이한 요소들이 섞인 현대 사회에서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각 개체의 세계관, 그리고 이에 따른 가치 판단은 같을 수 없다. 크고 작은 차이가 분명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특징이 결국 집단, 종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 했을 때, 그 개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반대로 개체주의에 따르면 이 전체적인 책임은 결국 개체들의 책임의 합으로 환원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개체론적 환경윤리의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 책 속 숨겨진 개체주의적인 요소들은 이러한 측면의 개체론적 환경윤리가 가진 문제점을 잘 부각시킨다.

사회는 다원화되고, 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가 직면할 문제들 역시 그러하다. 개체에 집중해서 포괄적으로 전체를 이해하는 개체주의 방법론은 시대의 변화에 휩쓸려 그 기능을 상실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문제가 우리 삶에 닥친 상황에서, 개체가 이루는 세계에서 벗어나 개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이루는 세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발견된 이타주의

박서진

<고래도 함께>는 금융 붕괴나 펜데믹과 같은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인류 멸망시대에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작가는 런던과 세인트피란의 대조적인 마을 설정으로 이기주의 속 인간의 이타심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담았고, 신인간중심주의적인 결론을 내린다.

소설은 알몸의 젊은 남자 조 학이 세인트피란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떠밀려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조 학은 애널리스트로서 자신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캐시'가 세계 종말을 예측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은행 손실의 주력자로 지목받게되어 런던에서 도망쳐 나온다. 그는 '공매도'라는 주식 투자의 한 방법으로 레인 코프먼 투자은행에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여 만든 중요한 인물이었다.

작가는 이 특이한 주식투자방법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공매도는 보통의 주식 투자와 다르다.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의 주식을 산 다음,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돈을 버는 방식이다. 하지만 공매도는 그와 다르게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예측한 가격에 맞게 떨어지면 돈을 버는 방법이다.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주가 하락, 마치 망하는 회사에 달려들어 타이밍과 운에 기대어 수익을 내보려는 수많은 개미들과도 같다. 이는 공매도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현대 자본시장의 그림자를 은유해 보여주는 느낌이다.

존 아이언명거 작가는 인간의 능력 끝에 개발한 인공지능적인 미래 예측 프로그램으로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남는 구조 안에서 인간의 어두운 본성인 비열함과 졸렬함, 그리고 집단이기주의의 실태를 조 학을 통해 일깨워주려고 했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한 조 학이 취한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 자신의 전재산을 털어 식료품을 사재기하여 마을 사람들과 재난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는 마을사람들과 자급자족하면서, 매일 모두 모여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며,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작가는 인류가 이기주의의 탐욕으로 물들어 가는 자본주의 세상이지만, 어느 한 구석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존의 모습도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조 학과 같은 영웅적인 주인공이 별다른 특색 없는 평범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서로 선행을 베풀어 살아 나가려는 모습에서도 상호협력의 중요성, 각자 맡은 역할의 책임감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점이 든다. 결국 주인공도 투자은행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친 인물 아닌가. 런던에서 해결의 갈피를 찾지 못하고, 세인트피란이라는 시골에서 해결하려는 그의 모습에서 어떤 한계점이 보인다. 결국 그도 이기적인 면모가 있는 인간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앞으로는 우리는 살면서 이기심과 탐욕에 의한 많은 어려움이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엔 살아있는 우리 존재 자체가 희망이며,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될 것이다. <고래도 함께>에서도 보여지듯이 인간 내면 어느 한곳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따뜻한 인류애를 소중히 간직하고, 인간 공동체협력에 대해 긍정적이여야 한다.

우리도 클라이브 해밀턴과 같이 환경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로서 신인간중심주의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인간이 지닌 힘은 점점 커져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자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연환경을 필요에 따라 보는 기존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인간이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자연환경이 인간에 가할 수 있는 제한 모두 염두해두며 사고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자연은 인간과 관계 맺고 있는 유기체며 인간 각각 책임감을 갖고 행동을 조절하는 일이 지구 시스템을 인식한 바람직한 인류의 자세라고 생각된다.

4. 미지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

이윤서

인간은 정말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까?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큰 흐름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신인간중심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지구를 완전히 통제하고 다룰 수 없다. 지구 시스템은 또 하나의 주체로서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지구에게 영향을 준다. 지구와 인간 모두 세상에 주체로서 자리하기에 서로가 서로를 통제할 수 없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만약 지구가 일정한 특이점을 넘어가는 순간, 인간은 지구에 대한 행위성을 상실하기도 한다.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할 때는 그저 동물 개체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 인간이 현대에 들어 이런 문명을 건설해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사회'를 이루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근대까지만 해도 세상의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인간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홉스는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동기가 이성이 아닌 정념이라고 말했다. 홉스는 인간 행동의 동기가 혐오와 욕망으로 이분된다고 주장했는데, 혐오는 어떤 것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운동, 욕망은 어떤 것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운동이라 정의했다. 세상 만물에 대한 혐오나 욕망의 정도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며 언제 사고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희망을 찾았고, 공포를 인지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면 타인들 또한 어떤 정념을 가질지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홉스의 주장을 입증하다 보면, 죽음이나 상해에 관한 공포는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공포심은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전승된 가장 효과적인 생존본능이다. 물론 생명의 위협이 만연했던 과거에 비해 기본적인 안정이 보장된 현대에서는 공포심의 필요성이 조금 낮아 지기는 했다. 그러나, 죽음이나 상해에 관한 공포는 현대에서도 여전하다. 과학 기술이 발전한 현대에서 특히 효과적인 것은 다름 아닌 '실체 없는 공포'이다. 가령 후유증이 강한 전염병과도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나 과한 공포는 공포를 재생산한다. 너무 과한 공포심은 도리어 사회 분열을 야기한다. 따라서 '적당한 공포심'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량의 공포심은 사회가 결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니 말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안전과 쾌락 추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고래와 함께>의 사회를 '전염병'으로 인해 붕괴된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사회를 붕괴시키는 것은 전염병 그 자체가 아니라, 전염병으로부터 비롯된 '공포심'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염병이 세상을 덮친 <고래도 함께>에서는 정체불명의 독감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저 '다같이 뭉쳐서 버티고, 시간이 지나니 끝나 있었다.'는 것 뿐이다. 독감이 퍼지게 된 원인부터 과정, 감염 경로, 해결 방안까지 모든 것들 중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독감'이라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 있는 소재로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 무지로부터 비롯되는 공포감은 작품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기이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미지스런 일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공포감은 독자에게 하여금 실제 이런 일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할 기회를 안겨 준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다같이'라는 키워드이다.

만약 전염병에 버금가는 큰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 한 도시,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붕괴될 정도의 자연재해라면 어떨까? 인간은 이런 막연한 공포심을 기반으로 나름의 답을 제안한다.

내가 내놓은 방안은 공동체의 공유자산 영역 개척 모델링 구축이다. 공공, 민간, 지역 주체가 협력하는 체제가 사회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국공유와 사유재산으로 이분되는 것을 넘어 제 3의 소유 영역인 '공유자산 영역'을 개척해 시민과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공동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공동체주식(지역주민의 지분투자를 통해 영국의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공동체이익회사나 협동조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과도 비슷한 시스템이다.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개인으로서 구성되고, 각 개인의 것이 뭉쳐진 자산을 사람들은 '남의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키기 위해 힘을 뭉칠 것이다. 무엇인지 모를 외부의 현상으로부터.

홉스가 말했듯, 감각과 상상력이 정지된 사람은 더이상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문학 작품은 과학 기술에 도취되어 정체된 인류에게 새로운 상상의 여지를 던진다. <고래도 함께>와 같은 문학은 터무니없는 상상을 마치 진짜처럼 그려내고, 독자에게 하여금 주인공이 무지로부터 느끼는 막막함과 공포감을 공감케 한다는 점에서 철학적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1. 한 티끌의 먼지 속에도 전 우주가 들어가 있다

- 생태주의적 입장에서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오윤상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서인가? 기후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후손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너무나도 나쁜 오후를 보내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느슨하게 사는 우리들 뒤로, 미래가 언덕에서부터 먹구름을 일며 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기 때문일까. 내 눈에는 신인간중심주의가 다소 오만하고 안일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전히 인간중심주의의 관점으로 도대체 무엇을 바꾸겠다는 거지? 인간의 잣대로 또는 관점으로 지구를 회복시키겠다는 것부터 잘못되었다. 이제는 시점을 바꿔야 할 때다. 생태계의 관점으로 지구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의 긴박함을 절절히 알리는 소설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는 우리 인간들이 자연보호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합리화하며 살고 있는지, 그 진상을 낱알이 밝히고 있다.

소설의 제목만 보면 흔히 동물중심주의 또는 개체주의라고 오해하기가 쉽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 책은 명확히 생태철학 소설이며, 많은 생태철학자의 사상을 인용하고 있다. 특히 불교와 스피노자의 자연관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두세이코도 스피노자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소설 87p에서 주인공 두세이코는 이런 말을 한다. “어떤 사건이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많은 사건이 실은 단일 사건의 여러 측면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은 거대한 그물이며, 그 어떤 사물도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세상의 미세한 조각들은 평범한 사고방식으로는 꿰뚫기 어려운, 복잡한 연결망의 우주에 의해 나머지 다른 조각들과 견고하게 묶여 있다. 그렇게 세상은 작동한다. 마치 일본 자동차처럼.” 그녀 또한 자연을 거대한 유기체를 보고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서로 운명적으로 묶여 있다고 언급한 점에서 스피노자가 앞서 신이라는 실체 안에서만 개별 사물들이 다양한 양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견해와 대응된다. 스피노자는 생태중심주의 철학자는 아니지만, 그는 신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생태철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신만이 실체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 실체의 양태들, 개별적 사물들은 모두 신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그의 이론을 스피노자는 자연에 빗대기도 하는데, 그는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으로 자연을 구별하여 적자에 신과 실체, 후자에 개별적 사물과 양태를 대입하면 신 즉 실체는 생산하는 자연이고 개별 사물 즉 양태는 생산되는 자연이 된다. 나아가 스피노자는 정신은 신체의 관념이고 신체는 정신의 대상임을 증명하고, 이러한 것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개체들에게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을 거부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모든 사물이 저마다 영혼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스피노자는 인간 역시 다른 사물들에 의존하고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의 필연적인 질서의 일부로서 자연의 필연성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이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스피노자의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실제로 영혼은 생명체가 가지는 고유의 생존능력으로 식물적 동물적 영혼, 인간적 영혼으로 나눈다고 한다. 281p에서 두세이코와 회장 아내의 대화 중 “인간에게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듯이 동물들에게는 ‘세상을 느끼는 감각’이 있으며, 동물들은 정의감이 강해 인간들에게도 기본적인 정의를 가르쳐 주기도 한다.” 이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과도 유사한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이 정의를 알지는 못하지만, 동물들에게도 인간과는 다른 프로네

시스(실천적 지혜)가 있으며, 동물적 영혼은 ‘느끼고’, 인간적 영혼은 ‘사유한다’고 언급한 점에서 두세이코가 말한 ‘세상을 보는 관점’과 ‘세상을 느끼는 감각’과 대응된다.

마지막으로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는 불교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 대표적으로 301~303p에서 두세이코의 불꽃의 여정에 관한 전설이 그렇다. 빛의 근원에서 온 불꽃은 우주탐험을 거쳐 비로소 지구로 떨어져서 ‘몸’이라는 거죽을 뒤집어쓰는데, 이때 불꽃은 인간이나 동물 또는 식물의 옷을 입으며 불꽃의 여정은 마무리된다. 불꽃의 여정은 불교의 윤회설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제법무아의 사상도 느껴진다.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하며 계속해서 다른 껍질에 들어가며 윤회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영원불변한 것도 동일하게 남아있는 자아도 없고 고정된 실체도 없는 이 세계에 우리는 지구상에서 순례하러 다니다 열반에 도달하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다만 불교와 두세이코의 다른 점은 불교는 상벌의 개념으로 윤회의 삶이 지속되지만, 두세이코의 입장에서는 불꽃이라는 존재가 운명에 따라 이곳저곳을 누비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겨울 아침을 느끼며 두세이코가 한 말은 자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1월의 수요일 아침 7시, 세상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절실히 깨닫는다. 인간의 편안함이나 쾌락을 위해서 창조된 건 더더욱 아니다.” 나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자연은 두세이코의 말 대로 인간만을 위해서만 창조된 것이 아닌 스스로가 존재원인이기 때문에 창조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아가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은 잠깐 지구 생태계에 머물다가 가는 손님으로, 자연에서 빌려 쓴다는 개념에 더 가깝다. 우리는 지구의 주인으로서 자연을 존중하고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빌려서 얻었으면, 빌린 만큼 돌려주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빌리고 보답하면서 공존하는 관계로 살았었고 그래야 한다. 이 소설은 나의 생태철학 사상이 발전하여 빌림과 보답의 철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더욱이 내 생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생태중심주의의 입장으로서 두세이코의 어떠한 사고방식과 행동들은 모순적이라고 느꼈다. 별목꾼 ‘늑대의 눈’과 얘기를 나누면서 별목꾼은 몇 년 전에는 산토끼가 너무 많이 늘어나 농작물을 망친 적도 있다고 언급하며, 이미 자연 체계가 망가져 있으니 인간이 이를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두세이코는 산토끼들에게 피임약을 먹여서 번식을 억제할 수도 있지 않냐고 반박한다. 생태계를 놔두면 자연히 늑대나 여우가 산토끼들을 잡아먹어 먹이 사슬에 균형이 잡혀 늑대와 토끼의 개체수가 적절히 유지될 텐데, 인간에게도 부장용이 있어 조심히 사용하는 피임약을 산토끼들에게 먹인다는 발상 자체가 인간중심주의적이라는 것이다. 또 회장을 죽이고 나서, 동물들이 공격한 양, 무대를 꾸미기 위해 머리대장들을 자극하는 페로몬을 의도적으로 회장에게 뿌리는 장면을 보고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도 있는 페로몬을 인위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두세이코의 모습을 보고 그녀가 정말로 생태계의 평화와 균형을 생각하는지 의심이 된다. 살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소설에서는 두세이코가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수호하기 위해 온몸을 던졌다고 하지만, 나는 ‘과연 그녀는 살인을 하기 전에 최선을 다하였는가?’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않고 끊임없이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훼손을 고발하였고, 그녀의 저항은 많은 이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두세이코, 당신은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기득권층에 청원서를 넣은 것이 최선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자연을 훼손하려 가는 사람마다 무턱대고 붙잡고 막는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을까? 권력층은 우리의 목소리를 묵살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지 않았나? 첫 시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전략을 들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 생태주의자들의 역할이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시야는 좁다.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진정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다.

<출처>

인간. 자연. 통일하다 II/김동희/2021/브런치 <https://brunch.co.kr/@donghee35/38>

생태철학의 선구자, 스피노자/이현복/2011/근대철학,6(),21-43

하이데거와 불교 그리고 생태철학/김종욱/2004/현대유럽철학연구,(9),2-2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의 대지윤리론 비판/김일방/2003/철학연구,86(),47-72

자연학 소론집/아리스토텔레스 저, 김진성 역/2015/이제이북스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올가 토카르추크 저, 최성은 역/2020/민음사

2. 자연스러운 자연의 권리

- 생태주의적 입장에서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유지우

인간이 존중해야 할 자연의 권리는 분명히 존재한다.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의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생태계를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죽은 이들의 뼈 위에서 살고 있다. 한때 생명이었던 것들의 뼈 위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죽은 이들의 뼈 위에서 살면서 이곳을 보호하고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을 존중해야 언젠가 다음 세대의 인간도, 동물도 그리고 식물도 죽은 이들의 뼈 위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동물 상해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죠.'³⁴⁾ 책 속의 인물들은 동물을 무자비로 사냥해도 그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에 속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생태계에게 그 어떤 권리도 없다 느끼며 욕망의 분출구로 여긴 결과가 지금의 기후위기이다. 우리는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찬란하고 아름다운 생태계를 되찾기 위해서 인간들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벌여놓은 모든 것에 비해 힘겨운 싸움일 뿐이다. 자연과 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은 늘 어둡고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인간들의 환경을 위한 활동은 그저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인간의 권리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그 인간의 권리를 지켜내도록 집중되었다. 이러한 오늘날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종들과 맺어진 관계와 모든 생명이 의존하고 있는 생태계와 맺는 관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자의 입장인 생태중심적인 접근법으로 환경을 다루어야 한다.

인간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남용하는 형태의 원인으로서는 인간의 고질적인 관념에 있다. 우선 인간중심주의, 인간은 자연 나머지와 분리되며 인간이 우월하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우월감으로 인해 우리는 자연의 정점에 위치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념은 우리가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인간의 재산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러한 관념은 철학적으로도 오래된 관념이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며,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모든 동물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고 언급한다. 또 이탈리아 철학자 아퀴나스는 신학자로서 자연은 신의 창조물이라고 보았고 인간이 신에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고 보며 인간 중심사고를 넓혀갔다.³⁵⁾ 그리스도교 창시 설화인 [창세기]에선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이라고 강조했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 사회에서 동물의 지위는 악화되었다. 비인간 동물은 이성을 갖고 있지도 감정을 느낄 수도 없는 기계로 본 것이다. 특히나 17~18세기의 철학자들은 동물 지위 악화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프랑스 사상가 르네 데카르트는 '동물은 단지 기계'라며 인간이 이성적으로 독보적 존재라는 결론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동물은 자의식이 없으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동물에 대한 의무는 간접적인 의무로 제한될 뿐이라고 썼다. 고대 때부터 이어진 인간 중심적 사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만연하다. 자유지상주의 철학자 티보르 R. 마칸은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중요하며, 사실 더 나은 존재라고 말하며 인간이 동물 착취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인간은 가장 중요한 종이므로, 인간의

34)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올라 토카르추크. 20200918. 민음사

35) 존재자와 본질. 토마스 아퀴나스. 20210331. 길

삶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는 것은 옳다고 썼다.³⁶⁾ 인간중심주의에서 조금 더 발전된 신인간중심주의자들은 자연을 망가트린 인간이 책임감을 가지고 생태계를 보호해야한다고 하지만 결국 인간의 생존과 이득에 국한될 뿐이다.

자연이 그저 인간에게 유용한 것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인간 중심 사고는 과거에서부터 현대까지 당연하게 여겨지는 개념 중 하나이다.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을 바라보던 인간들 때문에 지금의 지구는 가파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다. 자연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 협약과 노력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일 뿐이었다. 지금의 노력이 부족한 이유는 아직도 우리는 자연을 위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연을 인간의 영위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할 권리는 지닌 존재로 여겨야한다.

사실 이미 동물 종에게 대한 권리와 법은 세계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해야한다는 협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망가진 생태계를 되찾기 위해선 인간이 우월한 종이라는 사고를 버리고 동물의 권리를 넘어서서 생태계 역시 인간처럼 권리는 지니고 있으며 인간과 같이 법으로 보호 받아야한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미국 환경운동가 존 뮤어는 이기적이고 오만한 인간의 공감은 폭이 좁다며 나머지 우주 만물의 권리에 대해 인간은 얼마나 눈 멀고 있느냐며 인간을 자연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비판했다.³⁷⁾ 또 레오폴드는 '우리는 땅을 우리에게 속한 재화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남용한다. 만약 땅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과 존중으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는 유일하고 우월한 종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생태계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이런 생태계를 향한 급진적 사고는 미국 지역사회에서 혁명적인 법규로 구체화되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자연의 권리가 인간의 권리와 동등한 보호를 받게 되기까지는 더 많은 법적 소송과 다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언론과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소송과 이득이지만 생태중심주의의 환경 운동가들의 목표는 사람, 동물 그리고 식물, 즉 자연과 생태계 그 자체의 권리이다. 지금이 아니라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이고 우리는 인간만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종이 아닌 생태계 역시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물론 오래전부터 인간중심주의적 사고가 이어져왔던 인류에게 생태계에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강원도 철원군에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보호하는 구역이 있는 것처럼 자연을 법으로 보존하려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 생태계 또한 법의 보호를 받는 존재, 존중 받아야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은 인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밭을 죽은 이들의 뼈 위인 땅과 자연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이 지구의 독보적 종이라는 무지한 생각을 떨치고 생태중심주의로 기후 위기 완화를 실천해야한다.

36) 우리는 왜 자연의 총아인가 Putting Humans First: Why We are Nature's favorite. 티보르 R. 마칸. 2004

37) 나의 첫 여름. 존 뮤어. 20080421. 사이언스북스

3. 인간 중심주의에서의 도약

- 신인간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김지민

인류는 지구 시스템의 붕괴 위기 속에 살고 있다. 과거 소수의 사람만이 ‘기후 문제’에 대해 논의해왔던 것과 달리 현재 많은 사람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인류가 기후 위기에 봉착했음을 쉽게 접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도 ‘인류는 어떤 시선으로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책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는 생태 중심주의적 시선으로 환경 파괴 문제, 동물 권리문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생태 중심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작가가 위와 같은 물음에 어떤 대답을 내놓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해석해 보면서 기후 문제에 대한 단순한 인식, 관심 보다는 나만의 구체적인 입장을 정립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다.

이 책은 생태주의 소설이다. 생태주의는 대지 윤리를 내세운 레오폴드가 주장한 바와 같이 유기체를 전체 자연을 구성하는 평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그들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고 대지 공동체가 곧 생명 공동체임을 인식한다. 또한, 개별 생명체보다 전체 생명체의 조화를 강조하는 전체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주인공 두세이코가 나무를 함부로 베는 행위를 보며 분노를 느끼고 숲을 존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 모든 생명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고 그 가치를 동등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 중심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먹이사슬을 인정하고 인간의 생존을 위해 다른 개체를 인간의 식량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전체론적인 사고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책에서 강조하는 생태 중심적 사고와는 다르게 인류세에서 해밀턴이 제시한 신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이 책 속에서 생태중심주의가 주는 시사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행해오던 여러 행동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성하게 한다. 하지만 살인을 통해 생태계 파괴를 막으려 했다는 점에서 환경 파시즘이 발생했고 주인공 두세이코는 생태주의적 시선에서 이웃들의 행동에 계속해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만 살인 외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느낀다.

21세기 인류는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된 사회 속에 살고 있고 인간이 다른 생물과는 구별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에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인간이 세계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기보다는 어떤 자세로 세계 속에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간 중심주의를 하나의 오만한 인간 지상주의로 받아들이기보다 인간 중심주의 안에서의 겸허한 인간 중심주의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식물과 동물은 인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중세 아퀴나스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이 자연의 최종 관리자로서 설정한 것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인간 중심주의이다.

인간 중심주의를 목적론적 인간 중심주의와 신인간 중심주의로 나누어 보았을 때 목적론적 인간 중심주의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인간의 고유한 책임을 신인간 중심주의에서는 강조하며 인간이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스스로가 제약을 가하고 절제해야 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인간이 다른 생물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인 책임감을 받아들여 인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환경문제를 다룰 때 인간의 중요성을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신인간 중심주의와 더불어 패스모어의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 중심주의이지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할 방안을 여러 방향으로 모색해 나아간다. 요나스는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주의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현 인류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경 파괴 대부분이 인간에 의해 발생하긴 하지만 극도의 인간 지상주의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학자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지구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지키되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출처>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올가 토카르추크 저, 최성은 역/2020/민음사
인류세/클라이브 해밀턴 저, 정서진 역/2018/이상복스
생태계의 위기와 책임윤리의 도전/양혜림/2000/한국철학회
신인간중심주의로 조명한 인류세 논의/이인건/2019/과학기술학연구

4. 네 뺨속까지 얼게 하는 사슬을 이제는 풀어라

- 신인간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하지원

‘성찰’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과거를 돌아보는 성찰을 통해 인간은 미래에서 성장한다. 많은 이들이 인간의 고유성이라고 생각하는 창의성 또한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다. 책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는 여태껏 우리가 큰 문제 의식 없이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별 문제 의식 없이 고기를 먹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는다. 이 책은 그래서 안 되는 일이라고 분노에 차 외친다. 그 강렬한 외침에 책을 읽던 독자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성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성찰한 자신에 만족하며 안주해서는 안 된다. 성찰한 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미래의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책은 생태주의 소설로, 해밀턴의 신인간중심주의와는 다른 입장이다. 어떤 관점이 생태주의로 분류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뭘까? 첫째, 생명연결성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즉 동물이나 식물과 동등한 개체로 생각해야 한다. 이 책은 앞서 말한 조건 둘을 모두 충족한다. 첫째, 이 책은 주인공이 점성학을 믿는다는 사실을 통해 생명연결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점성학은 “그 어떤 사물도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주인공은 기독교적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며 동물과 인간 모두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데 이를 통해 이 책이 인간을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관점인 생태주의는 생명연결성을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과거의 아리스토텔레스나 데카르트와 같은 인간중심주의자들은 자연과 인간을 분리했고, 인간을 우위에 두었으며, 이들의 사상은 크나큰 영향을 발휘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관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요구한다. 인간이 자연, 동물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한다. 또한 인간의 오만을 비판한다. 모두 가치 있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을 단지 자연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을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부족하다. 인간의 책임을 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보다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실천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은 행위 동기인 ‘분노’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감정적이고, 많은 감정 중에서도 특히 분노를 자주 느낀다. 이 책의 큰 줄거리도 ‘분노’에 찬 주인공이 동물을 대신해 인간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책에서 주인공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생명의 고통에 공감과 연민을 크게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대리 보복 등의 실천을 한다. 옳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이들과 대비되어 분노의 힘으로 실천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유기체적 지구, 기후 위기처럼 감각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이 부재하는 점이 아쉽다.

신인간중심적 관점에 따르면 힘이 없는 자들로부터 변화가, 실천이 시작되어야 한다. 신인간중심적 관점에서 ‘책임’은 ‘인간의 힘을 지구시스템을 보호하고, 인간이 멸종하지 않는 방향으로 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힘은 제도, 체제, 문화에 내재되어 있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 체제,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권력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들은 제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결국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래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4단계로 구체화 해봤다.

[1단계, 기후 위기를 인식]

세부적 방법: 소설 읽기, 미디어 기업에게 기후 위기와 관련해 공익 광고를 내보내도록 하기, 초등학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토론을 하거나, 관련 주제로 에세이 쓰기

[2단계, 분노]

책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의 주인공보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분노가 필요하다. 1950년대에 이미 지구온난화 문제를 알고 있었다. 1970년대에도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 대기업들은 로비를 통해 환경 이슈를 파묻거나, 기후 위기가 거짓이라는 식의 날조된 연구를 발표했다. 누군가의 사익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가 희생된 것이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노해야한다

[3단계: 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 요구]

1) 투표하고 요구해야 한다.

국내외 법률과 규제를 어기면 불이익을 받게, 기업에 규제를 높이도록 정부에 요구해야한다.

2) 불매 해야 한다.

환경을 해치는 기업 제품을 사지 않아야 한다.

[4단계, 정부, 기업의 행동]

기업: 기술 혁신을 통해 제로 탄소 제품들을 더 싸게 만들기

정부: 정책 혁신을 통해 탄소 집약적인 제품을 더 비싸게 만들어 그린 프리미엄을 낮추기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인생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는 타당하다. 그러나 심각한 기후 위기 앞에서는 속력과 방향 둘 모두 중요하다. 분노를 통해 속력을 증가할 수 있고, 신인간중심주의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출처>

블레이크의 시선/윌리엄 블레이크 저, 서강목 역/2012/지만지(지식을 만드는 지식)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올가 토카르추크 저, 최성은 역/2020/민음사

느린 폭력과 빈 자의 환경주의/롭 닉슨 저, 김홍옥 역/2020/에코리브르

인류세/클라이브 해밀턴 저, 정서진 역/2018/이상박스

두 번째 지구는 없다/타일러 라쉬/2020/알에이치코리아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빌 게이츠 저, 김민주, 이엽 역/2021/김영사

DESIGN BY 황이진

시체 앞의 투쟁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를 읽고

황이진(조장), 김나우, 김유빈, 장서준

1. 신인간중심주의적 통제

김나우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전통적 인간중심주의이다. 이들은 밀렵꾼, 사냥꾼, 혹은 무차별적인 자연환경 소모 행위의 방관자 등 전형적인 약탈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이익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발생하기도 한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신부는 동물을 인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하며 동물에게 묘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인간의 독단이라며 강경하게 반대한다. 종교적 이유로 인간중심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하느님이 동물에게 인간을 섬기는 낮은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위계를 구분한다. 동물에게 영혼은 없고, 그들은 구원받지도 못할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전통적 인간중심주의와 가장 크게 대비되는 생태중심주의이다. 생태중심주의는 전체론의 성격을 갖는다. 자연 전체는 부분들의 총합으로 환산되지 않는 고유의 성질을 가지며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함과 동시에 그들을 통제한다. 세상은 거대한 그물이며, 그 어떤 사물도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세상의 조각들은 복잡한 연결망의 우주에 의해 나머지 다른 조각들과 견고하게 묶인 상태로 세상에서 작동하게 된다.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이 아닌 자연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며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결부되지 않은 채 그 자체로 목적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 또한 그것이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은 생태중심주의는 책 속에서 곤충학자 보로스의 언행으로 나타난다. 그는 자연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떤 생물도 유용하거나 무용하지 않으며 그것은 그저 인간들이 그들의 기준으로 만들어 낸 어리석은 구별일 뿐이라고 여긴다. 세상을 쓸모 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으로 나눌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러한 구별을 만들어낼 권리가 없다.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더 못 한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동양 철학 중 도가 사상의 자연관과도 맞닿아 있다.

세 번째는 이 책의 주인공인 두세이코로 대표되고 있는 신인간중심주의이다. 신인간중심주의는 현 사회에 만연한 인간의 동물 착취와 자연 훼손, 그로 인한 “지구 시스템 파괴”에 대해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자연이 인간을 몰아내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 자연이 인간을 몰아내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인간이 기계에게 잡아먹혀 지표면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인간이 져야 하는 “책임”이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지른 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함을 뜻한다. 인간으로부터 살해당한 동물들의 무덤 너머의 복수를 대신해주어 인간이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당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두세이코를 신인간중심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 신인간중심주의는 시간이 작동하는 것 또한 인간 때문이고, 지금의 고통스러운 세상을 다시 평화롭게 바꿀 기회 또한 인간에게 있다고 본다.

이 소설 속 배경은 춥고 습한 시골 마을이다. 마을의 강추위와 폭설은 세상이 인간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지구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편이, 혹은 아예 아무 것도 없는, 우주 공간의 완벽한 공허 상태가 모든 이들에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인간은 이미 지구에서 쫓겨나고 있다. 타락은 진행중이고, 우리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을지는 예상할 수 없다. 지구 시스템은 이미 질서를 벗어났으며 소설에서 등장하는 별목꾼의 말에 따르면, 더 이상 자연다운 자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의 체계는 망가져버렸으며 더한 재앙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은 통제를 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통제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신인간중심주의와 인간지상주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신인간중심주의란 인간이 자신의 힘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고, 그와 달리 인간지상주의란 인간이 스스로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특권을 부여하여 오히려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구시대적 인간중심주의의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냥과 벌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통제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간에 대한 신인간중심주의적 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더이상의 지구 시스템 파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활동은 지금껏 여러 환경의 문제와 변화를 야기했으며 이렇듯 과한 영향력의 행사는 멈춰져야 한다. 인간의 자유는 무한하지 않다. 인간은 결국 전체인 자연에 종속되어 있으며 자연이 곧 인류가 가진 자유의 한계를 정의하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응용 철학 및 공공 윤리 센터 소속 교수인 클라이브 해밀턴에 따르면 기술의 발달과 발전으로 인간은 현재 지구에서 “핵심 행위자”가 되었다. 인간의 중요성과 행위성을 인정하되 인간은 지구에 매여 있는 존재이지,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인류는 지구에 묶여 있는 상태로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하나의 지구,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서는

김유빈

이 책의 작가인 올라 토카르추크는 채식주의, 생태주의, 동물권 수호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작가는 '인간이 동물을 지옥으로 내모는 순간, 온 세상이 지옥으로 변합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을 만큼 동물에 대한 인간의 침해를 무겁게 생각한다. 이 책에서도 그의 동물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동물 사냥과 관련있는 인물들의 죽음을 나열하는 방식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며 동물을 무조건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이 위험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지구라는 공용의 공간을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며 과도하게 동물의 영역을 침범하다 보니 인간에 대한 피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다.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인간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동물의 영역을 우리가 점차 사용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만든 지옥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책이 우리에게 인간과 동물이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에코 모더니즘 즉 생태 근대주의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견해를 내보려고 한다. 먼저, 생태 근대주의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인간이 사용하는 공간과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인간이 자연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환경주의 철학이다. 이 책에서는 결국 동물에 대한 인간의 과도한 침해를 문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상이라는 그물망 속에서 인간과 동물을 연결되어 있고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인간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 창조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기에 인간과 동물은 비슷한 양의 공간을 가져야 하며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우리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동물과 인간은 기브애펀드(give and take)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동물을 학대하고 사냥했던 인물들이 살해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동물이 인간을 해친 것은 결국 인간이 동물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동물을 살해하며 식량, 의복, 자원 등 많은 것을 얻는다. 하지만 인간은 살해한 동물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살해되는 동물이 최소한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들의 고유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인간은 이기적이고 무지하다. 우리에게 닥칠 불행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우리는 동물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권리와 같이 그들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동물에 대한 시혜적이고 이타적인 행위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행위이다.

이제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우리나라는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특히 무지하다. 법률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 공장형 축산,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가공육의 대중화, 인공 장기 실험 등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시키고 인간과 거리를 두게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우리를 위한 도구나 물건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유네스코는 인간이 다른 동물 종의 존재할 권리는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종이 상생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했다. 더 이상 인간만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

전과 이용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동물의 행복과 권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동물이 인간을 지옥으로 몰지 않기 위해서도 과학기술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물이 인간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며 지구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 나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행복과 편안함을 느끼며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3. 복수의 대리인: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이유

분노의 활극,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를 읽고

황이진

여기 분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 있다. '분노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분노에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내재하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감정 상태로는 얻기 힘든 선명한 시야를 우리에게 확보해준다'고 말한다. 그런 그가 '분노'하고 있다. 그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왜 분노해야만 했는지, 어떻게 분노를 표출했는지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작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주인공 두세이코는 세상의 보편적 관점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다. 사람들은 그런 두세이코를 불편하게 여기며 그의 목소리를 무시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보다도 더욱 약한 대상인 동물에게 손길을 내밀고 있다. 그리고 그가 동물에게 손을 내밀며 눈을 맞추었을 때,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행위를 직면하며 비로소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 그는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행위에 대해 '인간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외친다. 이 처절한 외침은 그의 항의의 본질이자 동시에 진정한 분노이다.

두세이코는 진정한 분노를 느낌과 동시에 연쇄 살인이라는 최종적이고도 직접적인 폭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응징함으로써 그 분노를 표출한다. '그들은 내가 사슴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심판해주기를 원했다. 그들은 내가 정의의 형벌을 내리는 은밀한 손이 되어 주기를 원했다. 난 그들의 도구였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여기서 두세이코가 폭력으로 응징한 이유에 대해, 세상에는 얼마든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물이 자신을 구해달라거나 복수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동물은 인간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더라도 그저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그는 스스로 명분을 쥐여주며 동물들에 대한 복수를 감행한다. 결국 스스로 심판자이자 복수의 대리인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명백히 피해의 대상인 동물을 가해자로, 가해자인 인간을 피해자로 묘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비극적 사건의 가해자로 동물이 지목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사슴들, 그리고 다른 잠재적 가해자인 동물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혐의는 결국 사냥꾼이었던 피해자들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행위에 대한, 피치 못할 대응이었기 때문입니다.'라는 대목은 읽는 사람들이 본질적인 의문을 품도록 만든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명백한 가해자인 인간의 행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게 된다. 이는 인간을 가해자로 한번 더 명백히 인식하도록 만드는 작가의 의도적 장치다.

우리는 동물을 어떤 존재로 인식해왔으며, 어떤 존재로 바라보아야 할까. 바로 이 지점이 문학 작품과 철학적 사유의 교차 지점인 셈이다.

동물에 대한 최초의 철학적 논의는 목적론적 질서에 따라 동물과 인간의 영혼을 구별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었다.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로서 여겨졌다. 또한 근대 철학에서는 데카르트에 의해 기계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은 동물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아 동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정당화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로부터 자기의식이 없는 비윤리적 존재에 대한 인간의 직접 의무를 다루는 칸트 철학이 등장한다. 현대철학에서는 이러한 인간 우위의 관점에 따른 동물에 대한 전통적 해석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동물 윤리적 담론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작가가 생각하는 동물은 어떤 존재일까. 두세이코는 인간, 동물, 식물이 모두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인공의 생각은 작가 토카르추크의 사상이 투영된 결과물이다. 주인공은 '세상은 거대한 그물이며, 그 어떤 사물도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세상의 미세한 조각들은 평범한 사고방식으로는 꿰뚫기 어려운, 복잡한 연결망의 우주에 의해 나머지 다른 조각들과 견고하게 묶여 있다. 그렇게 세상은 작동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대목에서 해밀턴의 지구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생각났다. 작가와 해밀턴의 연결점이다. 토카르추크에게 세상은 살아 움직이는 단일체이고, 인간은 작지만 강력한 단일체의 일부에 불과한 존재다. 또한 생태계에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 동등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의존적인 공생 관계에 있다. 인간은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라는 제목은 윌리엄 블레이크 시의 한 구절이다. '죽은 이들'은 인간에 의해 희생된 동물을 의미하며, 이들의 위로 '쟁기를 끌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 것이다. 작가는 단순히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행동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것을 분노라는 감정을 이용하여 표출하고 있다. 작가는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품고 상황을 바라보기를 요구한다. 차분한 태도로 일관하며 상황을 관망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 개입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책의 충격적이고도 폭력적인 결말은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권력이 없고 연약하게 보이는 주인공이 자신보다도 더 약하고 희생당하는 대상인 동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독자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 또한 작가가 의도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판타지 소설처럼 보여지는 이 복수극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큰 게 아닐까.

다만 자신들이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거부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조심스럽고도 간접적으로 행동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하고, 그 감정을 표출하는 주인공의 심리와 행동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이 책을 통하여 분노의 이유를 찾아 나가야 한다. 그렇게 작가가 의도한 대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약한 존재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연대하면서 말이다.

4. 복잡성의 형태

장서준

이 작품 속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한다면 그것은 분명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며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멋대로 다룰 권리도 자격도 없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인간이 생태계의 주인을 자처하기 이전, 모든 생명체가 자연이라는 거대한 흐름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갔다면 지금은 인간에 의해 그리고 인간을 위해 그 필요와 이익에 따라 다른 생명체들의 모든 것을 정하고 생태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가는 누가 인간에게 그런 권리를 부여했으며 마치 신이라도 된 것과 같이 구는 인간에게 하는 경고에 귀를 기울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와 관련지어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행위로 인해 점점 이상기후와 부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 자연의 ‘복수’는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올라 토카르추크가 제시하는 자연과 기후에 대한 방향성은 명확하다. 작중의 주인공 ‘두셰이코’는 일반적인 인간사회, 변화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대에 은거하는 듯 살아가는 인물이다. 작품의 초반부에선 유순한 의인과도 같은 모습이지만 불법적인 사냥이나 밀렵을 옹호하는 인간들을 응징하며 후반부에선 강인한 전사와도 같은 모습을 지녔다고 묘사된다. 자연을 가볍게 여기고 사유 자체가 부족한 인간들을 자연의 복수라는 명목하에 심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작품이 전개됨에 따라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되는 모습은 하나의 해결책이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작가는 두셰이코의 입을 빌려 인간의 이성은 사소하고 이기적인 쾌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복잡한 정신세계는 인간이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복잡한 정신세계가 진실을 가려 인간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분명 작중에서도 나오는 무지하고 책임 의식이 전혀 없는 인간들과도 같이 진실을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도 많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복잡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통한 진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세계와 사유할 수 있는 이성과 능력은 때때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최우선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먼저 헤겔의 자연철학 속의 내용을 참고하여 말하면, 자연은 인간에게 문제로서 주어지는 것이며, 그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기후와 자연에 관련된 문제들, 이 문제가 어디에 성립하는지를 아는 것은 오직 인간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해결해야만 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학기술이 생태를 망가뜨리고 자연을 오염시키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선진화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환경과 기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큰 영향이 생긴다. 예를 들어, 농약이나 비료는 얼핏 보면 생태 파괴적으로 보이지만 농약이나 비료가 없으면 농지 생산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숲을 헐어내고 논밭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농약이나 비료, 트랙터와 같은 농업 기술의 발전은 친환경적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도시 또한 마찬가지다. 도시는 거주 밀집도가 높은 만큼 거주지가 교외 지역으로 넓게 분산된 경우보다 교통,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이 좋다. 작중의 주인공 두셰이코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우편배달원도 오고 가는 것을 꺼리는 외곽지대에

거주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인간이 만든 도시가 곧 가장 친환경적인 녹색의 결과물이자 도시가 가진 밀도가 자연이 숨 쉴 공간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런 에코 모더니즘적인 관점과 인간의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기술과 경제성장이 인간이 주체적으로 기후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가의 주인공 두세이코를 통해 보여주는 바는 명확하다. 인간은 동물이 고유한 삶을 누리게 도와줄 책무가 있는 것을, 그리고 누구도 어떠한 존재를 제멋대로 할 권리를 부여받진 않았음을 말한다. 이는 기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자기적반성에서 멈춰서는 안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과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세상의 진실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기후에 관련된 문제들과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요구되고 필요한 것이 인간이 가진 복잡성 그 자체이다.

교활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질문자는
결코 정답을 알지 못하리니



<죽은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를 읽고
남윤호(조장), 우영서, 이종현 (designed by. 남윤호)

1.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진짜 이유, 이성

이종현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왜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지 모른 채 무조건 동물 보호만을 외치는 사람은 그저 좋은 말을 하며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위선자라는 것이다. 우리는 왜 동물을 보호해야 할까? 보호해야 한다면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동물 보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자신만의 근거를 찾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기에 말로만 하는 동물 보호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궁극적인 동물 보호에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이다.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를 읽으며 올라 토카르추크는 생태주의 예술가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열렬한 추종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치광이’라는 수식어로도 불렸던 윌리엄 블레이크가 소설 속에서 두세이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느낌이 들었다. 중간에 들어간 삽화와 시구는 외로웠던 블레이크의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또한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고 동물의 슬픔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스토리는 독자들에게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심어준다. 그런데 이 책 또한 동물 보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한다.

이 책에서 작가는 주인공 두세이코를 통해 동물 보호를 주장한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특이한 사상을 내세우며 그 사상을 점성학으로 수없이 합리화시키는 두세이코를 주인공으로 설계한다. 이를 통해 주변인들로부터 소외된 사람에게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심지어 두세이코의 살해 행위에 대해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이나 처벌을 받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만큼은 외골수 두세이코의 행동이 옳음이 증명된 셈이다. 그럼으로써 소외된 사람의 말이 정당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항상 다수의 말에 따르는 사회를 비판한다. 이것이 이 책의 첫 번째 미점이다.

두 번째로 두세이코의 사고나 감정, 동기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우려고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더욱이 토카르추크가 심리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강점이 드러난 것 같다. 이는 두세이코의 사상에 근거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며 두세이코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렇듯 작가는 두세이코의 상황을 대변하고 그녀의 가치관을 해설하고자 여러 장치를 두었다. 그런데 문제는 책을 읽으며 나는 그녀의 견해에 동의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올라 토카르추크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성학과 같은 다소 비과학적인 근거와 두세이코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행동들은 독자로 하여금 그녀의 생각에 이입하려다가도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점성학을 통해 살해를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살해하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 그러다 보니 소설 속 다른 등장인물들처럼 두세이코를 더욱 ‘미치광이’로 볼 수밖에 없다. 마치 윌리엄 블레이크에게 붙었던 수식어처럼 말이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먼저, 두세이코는 동물을 불쌍하게 여긴다. 동물을 친구라고 말하며 인간과 동일선상에 두려 하지만 사람들을 살해하는 장면에서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난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낸다. 동물이 하지 못하는 복수를 인간인 그녀가 대신해 준 셈이니 말이다. 이것이 두세이코에게 논리적 비약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인간과 동물은 평등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면서 마치 신이 인간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월등한 존재인 인간이 동물의 부탁을 들어 주는 상황을 만들어 모순을 자처한 것이다.

두 번째로 두세이코는 위선자이다. 자신은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물들의 입

장을 헤아리는 마음 넓은 사람인 척한다. 동물들을 취미 삼아 사냥하는 사냥꾼들에게 비정상적으로 화를 내며 극단적으로 동물의 편을 든다. 그러나 정작 자신도 개들을 키웠지 않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동물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이다. 또한 자신이 살해하고 동물들이 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동물 학대를 하지 말자는 경고를 하고자 한 행동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동물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녀로 인해 동물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진다면 그것이 진정 동물을 위한 행동일까? 또한 동물을 죽이는 것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던 그녀가 인간을 처참하게 죽이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간은 동물보다 괴기한 존재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성'의 존재 여부이다.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언어를 학습하고 도구를 사용하며 지구 상에서 먹이사슬 최상위층에 군림하는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의 말에 의하면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나 그가 설립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다. 이를 그대로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답이 나온다. 인간은 강자이고 동물은 약자이다. 우리는 종종 자연은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조금이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편안을 누리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체의 지극히 당연한 생존 본능이다. 숲 속의 왕이라고 불리는 호랑이는 사슴을 잡아 먹는다. 호랑이에게 사슴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따위는 없다. 그저 사슴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슴을 사냥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동물을 원하는 대로 이용해도 된다. 인간은 동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냥 동물을 마음대로 부리면 된다. 동물을 잡아 먹든 반려동물을 키우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심지어 인간의 편의를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화학 실험을 해도 그것이 곧 정의이다.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면 우리는 동물을 보호하지 말고 무작정 착취하며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절대 강자임과 동시에, 이성을 지닌 존재이다. 호랑이와 달리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다면 훗날 우리에게 돌아올 대가를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동물 보호를 해야 한다.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인간 마음대로 동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의가 될 수 있다. 동물을 위해서, 동물이 불쌍하기 때문에 동물 보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미 우리는 동물의 희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약자인 동물을 이용하되 우리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최소한의 동물 보호는 해야 한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이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기에 강자로서 동물을 이용하지만, 동시에 이성을 가지기에 동물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동물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동물 보호의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이 동물 보호만을 외치는 위선자들의 말은 근거를 필요가 있다. 애석하게도 이 책에서의 인간과 동물은 동등하다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인간은 이성을 바탕으로 동물과 자연을 사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강자이고 동물이 약자임은 분명하며 트라시마코스의 말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자인 인간의 이익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동물을 활용해도 된다. 다만 우리에게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고 절제할 수 있다. 동물을 무분별하게 다루다 자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을 지켜서 동물을 다루어야 한다. 동물 보호는 필요하다, 오로지 인간만을 위해서.

2. 흠벌레는 쟁기를 용서한다.

남윤호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골목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다. 시야가 서둘러 이 어둠에 익숙해지길 기대하며 골목길을 걷는다. 이윽고 눈 앞이 환해지는 것을 느낀다. 저 멀리 가로등 하나만이 제 역할을 다하며, 마치 토 하듯 주황색 불빛을 쏟아내고 있다. 천천히 시선을 내려 불빛이 끝나는 지점에 다다르니, 누군가 어린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다.

그는 나보다 족히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이고, 아이는 너무 작아서 그의 무릎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사 중인 건물 벽에 바짝 기대어 어둠에 몸을 숨긴 채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한다. 경찰의 응대는 친절했지만, 10분이 지나도 경찰은 커녕 지나가는 사람 한 명 없었다. 이윽고 아이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추었다. 그저 주먹질과 발길질에 이리저리 굴러다닐 뿐이었다. 이리다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어쩌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얇은 파이프를 등 뒤에 숨기고 그에게 다가갔다. 다가갈 수록 그는 점점 작아졌다. 그가 커 보였던 것은 벽에 비친 그의 그림자 때문이었다. 그는 아이를 패는 일에 너무 심취해서, 혹은 나 같은 존재는 평소 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바로 뒤에 올 때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파이프로 그의 뒤통수를 힘껏 때린다. 그는 곧바로 쓰러졌다. 그러나 쓰러진 그의 뒤에 내가 구하고자 한 아이는 없다. 피투성이가 된 길고양이 한 마리 뿐이다.

인간과 동물은 도덕적으로 평등하다. 인간과 동물은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능력적으로 더 우월한 인간은 동물을 보호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언뜻 인간중심주의적 논리에 근거해서 동물 보호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가 아닌 “인간은 동물을 보호할 수 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이 책의 흥미로운 지점이다. 작가는 ‘증세’와 ‘분노’라는 표현을 통해 인간이 동물을 보호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한다.

두세이코는 그녀의 언어에 있어서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몇몇 단어들을 사회적 의미가 아닌 그녀 스스로 정의한 의미로써 사용한다. 예를들어 그녀는 타인을 지칭할 때에도 “이름과 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보다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볼 때 머릿속에 자연스레 떠오르는 표현이나 느낌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편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두세이코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특성상,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엇갈린다.

두세이코는 어떤 증세로 인해 고통받는다. 소설 속 표현들을 분석해 본다면 아마 당뇨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두세이코 스스로가 말하는 증세는 조금 다르다. 질병의 증세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녀가 말하는 증세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밀렵꾼들이 무고한 동물을 사냥하거나, 경찰이 그녀의 주장을 무시하고 조소할 때, 그녀의 증세가 발현된다. 즉, 그녀가 말하는 증세란 그녀의 ‘역린’이다.

또한 두세이코는 끊임없이 분노하는 인물이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수월하다. 분노라는 감정은 모두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그녀는 이것을 신성한 분노라고 말한다. 신성한 분노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진다. 총을 든 사냥꾼들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경찰에 거둬 호소하거나, 교회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부를 질투하는 것 모두 신성한 분노가 그녀에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사람 4명을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두세이코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러한 맥락을 염두하면 이해가 가능하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에 분노하며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심정적 상태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성격적 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측은지심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양심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어린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아이에게 심각한 폭력을 가하는 누군가를 저지했다. 이것은 칭찬 받을 만 한 일이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또 다른 폭력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것이 의도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그것은 정당방위이다. 두세이코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인간과 동물이 도덕적으로 평등하다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살인하는 것은 정당하고, 동물을 지키기 위해 살인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세이코의 주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증세’를 불러일으킨다. 한편으로는 두세이코의 이러한 주장이 그저 핑계로 임히기도 한다. 그녀의 주장이 결국 ‘계획적인 연쇄살인’이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 원리는 친애(philia)이다. 내가 더 친밀감을 느끼는 무언가를 더 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하다. 누군가에게 친애를 느끼는 것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것이 나에게 유용한 경우, 그것 자체로 나에게 소중한 경우,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용하면서 그 자체로 나에게 소중한 경우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무언가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끼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두세이코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녀는 동물들에게 친애를 느꼈다. 자연 속에서 만난 동물들을 인격체로서 존중했고, 키우던 강아지를 딸처럼 여겼다. 문제는, 이 친애가 인간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녀가 “내가 친애를 느끼는 것은 모두 선이고, 내가 친애를 느끼는 것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모두 악이다.”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버린 것이다.

친애를 살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 글에서 굳이 왜 살인이 정당하지 못한지는 설명하지 않겠다.) 친애는 확장될 수 있다. 두세이코는 동물을 사랑한 것처럼 인간도 사랑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동물 실험을 자행하거나 동물들을 비윤리적인 환경에서 사육하지만 인간은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역시 동물을 사랑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인간이 동물보다 (도덕적이든, 능력적이든) 더 우월한 존재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3. 필멸의 운명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대지에 의해 삼켜지리라

우영서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제목이 워낙 다른 책과는 다른 특이점을 가졌기에 이 책의 제목만 봤을 땐 무슨 책인지 예측 할 수 없었다. 단호하면서도 굳건한 어투의 제목은 나로 하여금 제목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게 하였다. 책을 다 읽은 시점에서 예측컨대, 책 제목이 주는 의미는 '경각심'인 것 같다. 책에서 살해당한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가 동물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인공 듀세이코는 동물학대를 한 이들에 분노하여, 아니 정확하게는 학대를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무관심한 사회에 분노하여 살인을 저지른다. 듀세이코는 본인의 정의 가치관 안에서 복수를 한 것이다. 아마 책 제목은 '죽은 이들'은 듀세이코에 의해 살해당한 이들인 것 같다. 저자는 동물의 시각(관점)에서 그들을 향해 쟁기를 들고 동물보호를 외치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 같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독자들에게 동물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자 저자가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멸의 운명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대지에 의해 삼켜지리라' 이 문장은 동물보호에 대한 저자의 가치관이 잘 표현된 구절인 것 같다. 인간과 동물 모두 태어나 자연의 이치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것. 누군가에 의해 학대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시 대지의 일부가 되는 것. 동물과 인간의 권리는 모두 소중하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나 또한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동물 보호를 외친다. 내가 동물은 보호 받아야하며 동물과 인간을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동물은 인간과 같이 감정을 느낀다. 통증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통증이란 일반적으로 육체적 손상과 연관된 불쾌한 감각 경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느끼는 인간은 이 감각을 더 경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물이 통증을 느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근거가 있다.

첫째로 행동학적 근거가 있다.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근거로, 통증을 일으킨다고 여기는 것을 피하려 한다거나, 이러한 피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을 경우, 소리를 지르든지 강렬한 불쾌감을 느끼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심리학적 근거이다. 해부학적 근거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포유동물이나 새들은 물론 모든 척추동물에게도 인간과 비슷한 신경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진화론적 근거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원시 시대의 분자들에서 시작하여 공통의 진화론적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인간은 침팬지와 98퍼센트 이상 똑같은 DNA를 갖고 있고, 유전학 상으로 따지면 실제로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보다 침팬지와 원숭이의 차이가 더 크다. 통증이란 분명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진화를 통해 인간이 유해자극으로부터 피하거나 벗어나기 위해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갖추으로써 그러한 방식들을 선택해 왔다. 위와 같은 감정(통증)의 측면에서 나의 주장은 피터 싱어의 주장과 유사하다.

공리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윤리학자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은 인간의 이익과 다른 존재의 이익에 동등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 싱어는 '동물 해방론'에서 권리 주체의 조건으로 '고통 감지 능력'을 꼽고 주로 포유류에 속하는 가축 및 실험동물의 권리를 주장했다. 감각 기능을 가지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고통의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이다. 피터 싱어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는 최소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이익관심을 가지며, 이러한 모든 이익관심은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

다고 말한다. 평등고려 원칙이란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는 모두 하나하나의 개별적 개체로 계산되어야지, 특정 개체에 대해서만 하나 이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형식적 원리이다. 고통이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적어도 이익(interests)을 갖는다, 다시 말해 이익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익 평등고려 원칙은 이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쾌락 및 고통이라는 감각수용능력을 갖고 있는가 혹은 갖고 있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고통과 쾌락이라는 가치를 수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대상은 이익 평등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 싱어는 동물이 쾌락 및 고통 감수능력이 있는 존재 즉 의식적 생명임을 주장하면서 의식이 있는 인간과 동물의 신경계의 유사성, 진화적 유용성 그리고 (고통을 표현하는) 행동을 증거로 제시한다.

나는 저자의 동물보호에 동의하면서도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든 부분은 주인공 듀세이코의 행동이다. 인간과 동물의 권리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동물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인간을 살인하는 행위가 나는 모순이라고 느껴졌다. 과연 독자들에게 살인을 통해 동물보호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 나는 이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이유든 간에 살인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듀세이코의 살인행위는 동물보호를 주장할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를 읽어야 하는가? 최근 동물 학대와 관련한 문제들이 증가하면서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의식개선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난 지금 동물 보호를 다시한번 외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대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